



# **EBS가 답이다!**

## **2021학년도 입시정보 수록**

### **EBS 입시설명회**

# EBS

## 2021학년도

## 입시 자료집

※ 이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은 최신 정보를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학 입시 요강은 수시로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학별 최신 전형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ntents 차례

<b>I . 2021학년도 대입 기본 사항</b>	<b>5</b>
1.1 2021학년도 대입 기본일정	6
1.2 2021학년도 대입의 흐름	7
1.3 2021학년도 대입 모집인원	9
1.4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특징	10
<b>II . 대입 평가자료의 이해</b>	<b>15</b>
2.1 성적자료의 이해	16
2.2 학력평가와 모의평가 활용 전략	22
2.3 교과 및 비교과활동 준비	24
<b>III . 2021학년도 수시전형의 이해</b>	<b>31</b>
3.1 학생부교과전형의 이해	32
3.2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38
3.3 면접의 이해	45
3.4 논술전형의 이해	50
3.5 적성전형의 이해	62
3.6 지역인재전형의 이해	65
<b>IV . 2021학년도 정시전형 기본사항</b>	<b>69</b>
4.1 정시모집의 이해	70
4.2 정시전형에서 영어성적의 영향	76
4.3 정시 추가모집의 이해	78

<b>V. 입시 Q&amp;A</b>	<b>79</b>
----------------------	-----------

<b>VI. 과목별 학습법</b>	<b>83</b>
--------------------	-----------

6.1 국어	84
6.2 수학(가형, 나형)	91
6.2.1 수학 가형	93
6.2.2 수학 나형	102
6.3 영어	107
6.4 한국사	120
6.5 사회탐구	124
6.6 과학탐구	133

<b>VII. EBS 고교강의</b>	<b>147</b>
----------------------	------------

7.1 2021 수능 연계교재 로드맵	148
7.2 수준별, 시기별 추천 강좌	148
7.3 입시 및 수시 강좌 소개	150

<b>VIII. EBSi 서비스</b>	<b>153</b>
-----------------------	------------

[부록 1] 입시 용어 사전	160
[부록 2] 2020년 학력평가 및 모의고사 일정	165



I

# 2021학년도 대입 기본 사항

## I. 2021학년도 대입 기본사항

# 2021학년도 대입 기본사항

## 1.1 2021학년도 대입 기본일정

구분		내용
수시 모집	원서접수	2020. 9. 7.(월) ~ 11.(금) 중 3일 이상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2020. 7. 6.(월) ~ 10.(금)
	전형기간	2020. 9. 12.(토) ~ 12. 14.(월) (94일)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7~8월 중 전형 권장
	합격자 발표	2020. 12. 15.(화) 까지
	합격자 등록	2020. 12. 16.(수) ~ 18.(금)(3일)
	수시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 마감	2020. 12. 19.(목) (합격자 발표 21시 까지)
	수시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2020. 12. 24.(목)
정시 모집	원서접수	2020. 12. 26.(토) ~ 30.(수)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가군 2021. 1. 2.(토) ~ 10.(일) (9일)
		나군 2021. 1. 11.(월) ~ 19.(화) (9일)
		다군 2021. 1. 20.(수) ~ 28.(목) (9일)
	합격자 발표	2021. 2. 1.(월) 까지
	합격자 등록	2021. 2. 2.(화) ~ 4.(목)(3일)
	정시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 마감	2021. 2. 16.(화) (합격자 발표 21시까지)
추가 모집	정시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2021. 2. 17.(수)
	원서접수&전형일&합격자 발표	2021. 2. 19.(금) ~ 25.(목) (합격자 발표 21시까지)
	등록 기간	2021. 2. 26.(금)

## 1.2 2021학년도 대입의 흐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가. 모집인원 및 수시/정시 선발비율은 전년도와 유사

전체 모집인원은 347,447명으로 2020학년도보다 419명 감소한다. 수시모집에서는 267,374명을 선발하고 정시모집에서는 80,073명을 선발한다.

구분	수시모집	정시모집	합계
2021학년도	267,374명(77.0%)	80,073명(23.0%)	347,447명
2020학년도	268,776명(77.3%)	79,090명(22.7%)	347,866명
2019학년도	265,862명(76.2%)	82,972명(23.8%)	348,834명

### 나. 학생부 위주 전형의 선발비율이 전체의 3분의 2

학생부 위주 전형의 선발비율이 전년도보다 0.2%p 증가했다. 전체 모집인원의 67.3%인 233,701명을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한다.

구분	전형유형	2021학년도	2020학년도	2019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	146,924명(42.3%)	147,345명(42.4%)	144,340명(41.4%)
	학생부(종합)	86,083명(24.8%)	85,168명(24.5%)	84,764명(24.3%)
정시	학생부(교과)	270명(0.1%)	281명(0.1%)	332명(0.1%)
	학생부(종합)	424명(0.1%)	436명(0.1%)	445명(0.1%)
합계		233,701명(67.3%)	233,230명(67.1%)	229,881명(65.9%)

### 다.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선발

핵심 전형요소 중심으로 표준화된 대입전형 체계에 따라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로 선발한다.

- 수시 모집인원 267,374명 중 233,007명(87.1%)을 학생부위주로 선발
- 정시 모집인원 80,073명 중 70,771명(88.4%)을 수능위주로 선발



## 라. 적성고사 전형 모집인원 감소

적성고사 전형 모집 인원은 전년도보다 304명 감소하였다. 적성고사는 2022학년도 전면폐지 예정으로 현 고3을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된다.

구분	2021학년도		2020학년도		2019학년도	
	대학 수	모집인원	대학 수	모집인원	대학 수	모집인원
수시	11개교	4,485명	12개교	4,789명	12개교	4,636명

## 마. 대학별 논술 위주 전형 모집인원 감소

논술 위주 전형 모집 인원은 전년도보다 0.3%p(984명) 감소했다. 이는 논술의 적극적 폐지를 유도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이 반영된 결과다.

구분	2021학년도		2020학년도		2019학년도	
	대학 수	모집인원	대학 수	모집인원	대학 수	모집인원
수시	33개교	11,162명	33개교	12,146명	33개교	13,310명

## 바. 고른기회전형 모집인원 및 선발비율 증가

고른기회전형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이 전년도보다 0.4%p(약 1,279명) 증가하였다.

구분	2021학년도	2020학년도	2019학년도
정원 내	23,344명(6.7%)	22,442명(6.5%)	19,337명(5.5%)
정원 외	24,262명(7.0%)	23,885명(6.9%)	24,034명(6.9%)
합계	47,606명(13.7%)	46,327명(13.3%)	43,371명(12.4%)

※ 고른기회전형 지원 자격 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 5도 학생, 만학도, 지역인재 등

## 사.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및 선발비율 증가

지방대육성법 개정에 따른 지역인재 특별전형 선발 인원이 전년도 대비 0.2%(약 399명) 증가하였다.

구분	대학 수	모집인원(명)	총 모집인원 대비 비율(%)
2021학년도	86개교	16,526	4.8
2020학년도	83개교	16,127	4.6
2019학년도	81개교	13,299	3.8

## 1.3 2021학년도 대입 모집인원

### 가. 2021학년도 수시 및 정시 모집 총 모집인원

현 고3이 대입을 치르는 2021학년도 대입에서 수시 모집인원은 약 267,374명으로 약 77%이고, 정시 모집인원은 80,073명으로 약 23%이다. 따라서 작년과 비교할 때, 정시비율은 0.3% 소폭 증가한다.

구분	대상학년	수시모집		정시모집		계(명)
		모집인원(명)	비율(%)	모집인원(명)	비율(%)	
2021학년도	현고3	267,374	77.0	80,073	23.0	347,447
2020학년도	작년 고3	268,776	77.3	79,090	22.7	347,866
증감		-1,402	-0.3	983	0.3	-419

### 나.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수시 전형별 선발비율을 보면 학생부교과전형은 42.4%에서 42.3%로, 학생부종합전형은 24.5%에서 24.8%로 변화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의 모집인원은 421명 감소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집인원은 915명 증가한다. 논술전형은 3.5%에서 3.2%로 984명 감소한다.

정시 전형별 선발비율은 수능위주 선발이 19.9%에서 20.4%로 2020학년도 대입에 비해 모집인원이 1,480명 증가한다.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비교〉

〈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비교〉

구분	전형유형	2021학년도		2020학년도		증감
		모집인원(명)	비율(%)	모집인원(명)	비율(%)	
수시	학생부(교과)	146,924	42.3	147,345	42.4	-421
	학생부(종합)	86,083	24.8	85,168	24.4	915
	논술 위주	11,162	3.2	12,146	3.5	-984
	실기 위주	18,821	5.4	19,377	5.6	-556
	기타(재외국민)	4,384	1.3	4,740	1.4	-356
	소계	267,374	77.0	268,776	77.3	-1,402
정시	수능 위주	70,771	20.4	69,291	19.9	1,480
	실기 위주	8,356	2.4	8,968	2.6	-612
	학생부(교과)	270	0.1	281	0.1	-11
	학생부(종합)	424	0.1	436	0.1	-12
	기타(재외국민)	252	0.0	114	0.0	138
	소계	80,073	23.0	79,090	22.7	983
합계		347,447	100.0	347,866	100.0	-419



# 1.4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특징

## 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이해

2021학년도 수능은 현재 고교 3학년 학생들이 2020년 11월에 응시할 시험으로, 시험체제는 현행 수능과 동일하다. 수능시험은 2020년 11월 19일(목)에 시행되며, 성적은 2020년 12월 9일(수)에 통보된다.

### 1) 2021학년도 수능 영역별 문항 수, 시험시간 및 출제범위

영역	구분	문항 수	문항유형	배점		시험 시간	출제범위(선택과목)
				문항	전체		
국어		45	5지선다형	2,3	100점	80분	화법과 작문, 언어(언어와 매체), 독서, 문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수학 (택 1)	가형	30	1~21번 5지선다형, 22~30번 단답형	2,3,4	100점	100분	수학I, 미적분, 확률과 통계
	나형						수학I, 수학II, 확률과 통계
영어		45	5지선다형 (듣기 17문항)	2,3	100점	70분	영예, 영예II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한국사 (필수)		20	5지선다형	2,3	50점	30분	한국사를 바탕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 내용 중심으로 출제
탐구 (택 1)	사회 탐구	과목당 20	5지선다형	2,3	과목당 50점	과목당 30분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9개 과목 중 최대 택 2
	과학 탐구	과목당 20	5지선다형	2,3	과목당 50점	과목당 30분	물리학I,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 물리학II, 화학II, 생명과학II, 지구과학II 8개 과목 중 최대 택 2
	직업 탐구	과목당 20	5지선다형	2,3	과목당 50점	과목당 30분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기초 제도, 상업 경제, 회계 원리, 해양의 이해,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10개 과목 중 최대 택 2
제2외국어/ 한문		과목당 30	5지선다형	1,2	과목당 50점	과목당 40분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9개 과목 중 택 1

## 2) 한국사 및 영어 영역 등급 체계(원점수 기준 구분)

등급	과목	1	2	3	4	5	6	7	8	9
분할기준 (원점수)	한국사	50~40점	39~35점	34~30점	29~25점	24~20점	19~15점	14~10점	9~5점	4~0점
	영어	100~90점	89~80점	79~70점	69~60점	59~50점	49~40점	39~30점	29~20점	19~0점

## 3) 한국사 및 영어 외 영역(과목)의 등급 체계(백분위 기준 구분)

등급	1	2	3	4	5	6	7	8	9
기준 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 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 나. 탐구과목의 선택

탐구과목을 선택할 때는 보통 4가지 기준으로 정한다. 첫째,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 하는(잘 할 수 있는) 과목이다. 좋아하는 것을 공부한다면 공부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응시 인원이 많았던 과목이다. 응시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안정적으로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다. 내신을 공부하면서 수능까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넷째, 대학에서 지정하는 과목이나 지망 학과와 연관이 있는 과목이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가 정해졌다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전공적합성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논·구술 준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선택과목 응시 추이를 살펴보면 과학탐구에서 2017학년도 수능부터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전통적으로 ‘생명과학’, ‘화학’을 선택하는 수험생이 압도적으로 많은 경향을 보여 왔었는데, ‘지구과학’ 선택자 수가 ‘화학’ 선택자 수를 앞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19학년도 수능에 이어 2020학년도에도 ‘지구과학’을 가장 많은 수험생이 선택하고 있으며, 작년 수능 대비 ‘화학’ 과목 선택자 수가 많이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 탐구과목은 언제 정하면 좋을까?

고3 수험생들이 탐구 과목 선택을 빠르면 겨울 방학, 늦으면 여름방학이 끝나고 결정한다. 당연히 탐구과목을 정하는데 있어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그만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상적으로 겨울방학에 정하고 기본 개념공부는 마치는 것이 가장 좋다. 만약 방학 동안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학습에 집중하는 학생들은 탐구과목을 공부할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학기 중 모의고사에서 한 번이라도 더 수능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4월이 되기 전까지는 선택과목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회탐구 과목별 응시자 수의 변화 〉

과목	2019수능(명)	2020수능(명)	2019비율(%)	2020비율(%)
생활과 윤리	163,120	146,832	61.3	58.5
사회문화	149,904	149,144	56.3	59.4
한국지리	67,373	62,963	25.3	25.1
윤리와 사상	33,476	31,897	12.6	12.7
세계지리	41,252	40,809	15.5	16.3
동아시아사	25,522	27,172	9.6	10.8
법과정치	26,946	27,052	10.1	10.8
세계사	18,720	19,839	7.0	7.9
경제	5,452	5,661	2.0	2.3

〈 과학탐구 과목별 응시자 수의 변화 〉

과탐	2019수능(명)	2020수능(명)	2019비율(%)	2020비율(%)
지구과학I	164,899	148,540	68.1	69.9
생명과학I	151,137	128,033	62.4	60.3
화학I	87,122	73,663	36.0	34.7
물리I	58,151	54,792	24.0	25.8
생명과학II	8,493	7,190	3.5	3.4
지구과학II	8,083	6,656	3.3	3.1
화학II	3,153	2,934	1.3	1.4
물리II	2,925	2,738	1.2	1.3

※ '비율(%)'은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영역 각 과목 응시자의 비율을 의미함.

## 다. 제2외국어/한문 선택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2020학년도 수능 응시자 중 약 13.4%(65,111명)가 선택하였다. 이 중 72.3%의 수험생이 '아랍어'를 선택했으며, '중국어'의 선택자 수는 6.0%로 조금 상승했다. 작년 수능 대비 '일본어' 응시자 비율이 많이 증가한 반면, '아랍어' 응시자 비율이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아랍어'의 응시 인원이 가장 많은 추세인데, 조금만 공부해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아랍어'는 평균점이 낮아, 표준편차가 크기 때문에 표준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는 과목이다. 제2외국어/한문을 사회탐구 1과목으로 대체하여 인정하는 대학 중 표준점수를 그대로 쓰는 대학이라면 '아랍어' 선택 시 유리할 수 있다. 2022 대입부터는 제2외국어/한문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게 되어, 학생들의 선택과목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제2외국어/한문 과목별 응시자 수의 변화 〉

과목	2019수능(명)	2020수능(명)	2019비율(%)	2020비율(%)
아랍어	47,298	47,074	70.8	72.3
일본어	6,188	5,567	9.3	8.6
중국어	3,881	3,892	5.8	6.0
한문	2,973	2,772	4.4	4.3
베트남어	2,091	1,527	3.1	2.3
프랑스어	1,248	1,200	1.9	1.8
스페인어	1,304	1,267	1.9	1.9
독일어	1,191	1,192	1.8	1.8
러시아어	688	620	1.0	1.0
제2외국어/한문	66,842	65,111	100.0	100.0

## 라. EBS 연계율 70%

현 고3이 응시하는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이전과 같이 EBS 연계율은 70%로 유지된다. 수능 전 과목이 EBS 수능 연계교재에 기반해 출제되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국어(문학), 영어, 탐구영역은 학생들의 체감 연계율이 매년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21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또한 EBS 연계교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부 계획을 설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수능 EBS 연계란?

2011학년도 수능부터 사교육 경감을 위해 EBS에서 출간하는 ‘수능 연계교재’의 내용을 실제 수능에 70% 연계하도록 한 제도이다. 2021학년도 기준으로 수능 응시과목의 ‘수능특강’(1월 출시)과 ‘수능완성’(6월 출시)이 수능에 연계된다. EBS의 수능 연계교재들은 온라인으로 무료 동영상 강좌가 제공되며 교재도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기에 많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다.

〈EBS 수능연계교재 목록〉

영역	2021학년도
국어	<수능특강> 독서 <수능특강> 문학 <수능특강> 화법·작문·언어 <수능완성> 국어
영어	<수능특강> 영어 <수능특강> 영어듣기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수능완성> 영어



영역	2021학년도	
수학	가형	<수능특강> 수학 <수능특강> 확률과 통계 <수능특강> 미적분 <수능완성> 수학 가형
	나형	<수능특강> 수학 <수능특강> 수학II <수능특강> 확률과 통계 <수능완성> 수학 나형
한국사	<수능특강> 한국사	
사회탐구	<수능특강> 9개 선택과목 <수능완성> 9개 선택과목 ※ 9개 선택과목 :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과학탐구	<수능특강> 8개 선택과목 <수능완성> 8개 선택과목 ※ 8개 선택과목 : 물리학I, 화학I, 생명 과학I, 지구 과학I, 물리학II, 화학II, 생명 과학II, 지구 과학II	
직업탐구	<수능특강> 10개 선택과목 <수능완성> 10개 선택과목 ※ 10개 선택과목 :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기초 제도, 상업 경제, 회계 원리, 해양의 이해,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제2외국어/한문	<수능특강> 9개 선택과목 <수능완성> 9개 선택과목 ※ 9개 선택과목 : 독일에, 프랑스에, 스페인에, 중국에, 일본에, 러시아에, 아랍에, 베트남에, 한문	
계		총 87책

II

# 대입 평가자료의 이해



# 대입 평가자료의 이해

수시, 정시 그리고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중 어느 모집 시기에 어떤 전형으로 어느 대학에 지원할 지 결정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성적이다. 이 때 성적은 내신과 수능을 말한다. 같은 성적이라고 하더라도 반영 방식에 따라 합/불 결과가 달라지므로, 자신의 성적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성공적인 대입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

## 2.1 성적자료의 이해

### 가. 학생부 교과 성적

학생부 교과 성적은 학생부 비교과 활동 및 수능성적과 더불어 대입전략을 세우는 데 기본이 되는 평가 요소다. 학생부 교과 성적은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석차등급의 형태로 활용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석차등급 뿐만 아니라 학생부에 표기된 과목별 단위 수,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 수 등의 다양한 요소를 함께 평가하게 된다. 또한 고교 3년 간 각 학기의 계열별, 과목별 성적추이를 통해 학생의 학업역량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평가하게 된다.

최근에는 교육과정 상 학생 개인이 자신의 진로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교과가 늘어나면서 모집단위에 따른 관련 과목 이수 여부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논술전형이나 실기전형, 정시전형에서도 낮은 비중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이 반영된다. 따라서 학생부교과 성적 즉, 내신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자료다.

#### 비교과 활동이란?

비교과 활동이란 수업시간에 포함되는 창의적 체험 활동과 그 밖에 동아리, 독서, 교내 대회 참가, 각종 체험 학습 및 봉사활동 등을 말한다. 비교과 활동은 주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했을 때, 학생의 성실한 학교생활을 입증하는 정성평가 요소로 활용된다.

## 1) 석차등급

수시전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평가요소는 내신 석차등급이다. 내신 석차등급은 과목별, 학기별로 산출하는데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를 반영한 점수의 합계 석차 순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9등급으로 환산한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	~4%	~11%	~23%	~40%	~60%	~77%	~89%	~96%	~100%

만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동점자의 중간 석차를 적용한 중간 석차 백분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하는데 중간 석차 백분율이 해당 구간의 비율을 넘길 경우 동점자 성적 모두 아래 등급으로 내려가는 것이 학생부 석차등급의 특징이다. 반면 학력평가나 수능의 경우 해당 구간의 비율을 넘더라도 동점자에게 모두 상위 등급을 부여한다.

교과 100%를 반영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각 대학별 석차등급 평균 산출 공식에 교과성적을 그대로 대입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석차등급의 숫자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교과뿐만 아니라 수능최저등급이나 서류, 면접 등의 기타 요소를 함께 반영한다.

## 2)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 수, 석차

원점수는 한 학기에 실시한 모든 성적의 합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점수다. 보통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한다. 석차등급이 높으면 당연히 원점수도 높다고 기대되지만 각 학교별, 교과별로 시험의 난도에 따라 원점수와 석차등급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다른 학생들의 상대적인 원점수 분포에 따라 석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원점수 분포를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과목평균이나 과목표준편차 등을 병기하여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석차등급이 낮더라도 원점수가 높다면 시험의 변별력이 떨어져서 대부분의 학생의 원점수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과목평균과 과목표준편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성평가 방법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실제로 학생들의 원점수 분포가 높은 곳에 몰려있다고 해석되는 경우, 석차등급이 조금 낮더라도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생부에 나타난 여러 과목과 학기별 성적을 분석해보면 해당 학교의 학생집단이 우수한 집단인지, 특정 과목의 출제 난도가 높은지, 낮은지 등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부교과 성적에 표기된 원점수를 비롯한 다양한 성적자료들은 학생의 상대적인 학업역량과 그 학생이 속한 학교의 집단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자료들이다.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단순한 석차등급뿐만 아니라 원점수나 성취도 같은 성적지표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목별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평정하지만, 학교별로 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를 과목별로 다시 설정할 수 있다.

성취율(원점수)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성취도	A	B	C	D	E

단, 체육, 음악, 미술 과목의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성취율(원점수)	8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성취도	A	B	C

## 나.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 2학년 때 학교 재량으로 연간 최대 4회 그리고 3학년은 3월, 4월, 7월, 10월에 치르는 시험이다. 교육청 주관 하에 학교에서 응시하며, 수능시험 연습을 위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교과내신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홀히 여기기 쉽지만, 전국단위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수능 연습을 한 학년에 최대 4회 밖에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번의 기회도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이다.

시험을 치르고 나면 약 3주 후에 교육청에서 채점을 마친 성적표가 각 과목별로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석차등급 등이 표시되어 제공된다. 수능 연습만큼 수능성적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성적관리와 자료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 모의고사 성적표 예시〉

영역		원점수		표준점수		표준점수에 의한 석차/백분위/등급			
		배점	득점	범위	득점	학급석차	학교석차	전국백분위	등급
국어		100	87	0~200	120	4/33	29/410	83.83	3
수학	가형	100	77	0~200	137	3/33	14/410	94.39	2
영어		100	92	원점수에 의한 등급 (1)					
한국사		50	45	원점수에 의한 등급 (2)					
과학	화학	50	42	0~100	58	1/33	5/130	96.55	1
탐구	생명과학	50	26	0~100	58	3/33	9/124	79.88	3

### 1) 원점수

원점수는 해당 영역의 문항 중 수험생이 정답을 맞춘 문항의 배점을 합한 점수이며, 국어, 수학, 영어영역은 100점 만점이고, 한국사 영역과 탐구영역은 과목당 50점이 만점이다. 따라서 국, 수, 영 3개 영역과 탐구영역을 2과목 선택한 학생의 원점수 만점은 400점이 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원점수를 제공하지 않지만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원점수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수능시험에서는 영역, 과목별로 난도와 응시집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한 원점수만으로 개인의 성적이 얼마나 우수한 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실제로 수능시험에서는 원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 등을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 2) 표준점수

영역, 과목별 난도가 다르고 응시집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영역 또는 선택과목별로 정해진 평균과 표준편차를 갖도록 변환한 분포 상에서 원점수가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나타나도록 변환한 것을

표준점수라 한다. 즉 과목별로 학생의 원점수가 성적분포상에 어디에 위치하는지 과목별로 맞추어 서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학력평가와 수능시험에서 표준점수를 산출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국어, 수학	사탐, 과탐, 직탐, 제2외국어/한문
$\frac{\text{원점수} - \text{평균}}{\text{표준편차}} \times 20 + 100$	$\frac{\text{원점수} - \text{평균}}{\text{표준편차}} \times 10 + 50$

표준점수는 기본적으로 다른 선택과목 간의 비교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같은 표준점수라 하더라도 해당 과목 응시자 전체의 득점 분포상황에 따라 성취수준의 위치가 달라지게 된다. 학생이 선택한 영역 집단 내에서의 학생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표준점수에 의해 환산한 백분위 점수가 추가로 필요하다.

학력평가와 수능에서 표준점수의 범위는 0점~200점(탐구는 0점~100점) 구간으로 표시되는데 이는 만점이 200점(100점)이라는 뜻은 아니다. 표준점수의 최고점은 원점수의 분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난도가 높은 시험이 평균점수가 낮아지므로 만점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만약 표준점수의 범위를 초과하는 값이 나오는 경우 절삭하여 0점 미만은 0점으로, 200점 초과는 200점을 부여한다.

#### 표준점수는 정시에 어떻게 반영될까?

수험생이 대학에 정시로 지원하게 될 때 상대평가 과목에서는 표준점수가 사용된다. 상대평가 과목에서는 각 대학에서 정한 각 과목의 반영 비율에 따라 표준점수의 합산을 사용하여 대학에 지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 OO대학의 국어와 수학과목의 반영 비율이 각각 20%, 30%이고 변환된 점수의 총합이 1000점 만점 기준이라 할 때, 국어 변환점수의 만점은 200점, 수학은 300점이다. 이 때 본인의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가 각각 120점, 130점이라고 한다면, 국어의 표준점수 만점은 원래 200점이므로 120점이 그대로 반영된다. 수학 같은 경우 원래 표준점수의 만점이 200점이지만 이 대학의 반영 비율은 30%이므로 변환한 점수의 만점은 300점이 된다. 따라서 표준점수의 130점에서 3/2배를 곱한 195점이 이 대학에서의 변환 점수로 쓰인다. 정시로 대학에 지원할 때는 본인의 각 과목의 표준점수와 각 대학의 과목별 반영비율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백분위

백분위는 상대적인 학생의 위치를 나타내는 점수로, 해당 수험생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받은 학생 집단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이다. 이는 원점수가 아닌 정수로 표기된 표준점수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과목 또는 시험의 종류에 상관없이 성적 위치를 파악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산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frac{(\text{자신보다 더 낮은 표준점수를 받은 수험생의 수}) + (\text{동점자 수}) \div 2}{(\text{해당 영역 또는 과목의 수험생 수})} \times 100$$



백분위는 원칙적으로 표준점수를 기반으로 산출하지만 표준점수는 원점수의 선형 변환이므로, 원점수가 제공되는 학력평가의 경우 위의 식에서 표준점수 대신 원점수를 사용해도 결과는 동일하다.

#### 4) 등급

표준점수에 근거하여 수험생을 9등급으로 나누고 수험생이 속한 해당 등급을 표시한다. 등급별 비율은 교과 성적등급 산출과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교과 성적과는 달리 등급 구분점수에 놓인 동점자들에게는 해당 등급 중 상위 등급을 모두 부여한다.

※ 주의 : 백분위는 ‘성적표에 기록될 때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한다. 따라서 성적표의 백분위가 동일하더라도 표준점수는 다를 수 있고, 실제 등급(표준점수를 기준으로 반올림없이 산출) 역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어 영역에서 ‘가’ 학생의 표준점수는 133점으로 반올림하지 않은 백분위가 95.8이고, ‘나’ 학생의 표준점수는 134점으로 반올림하지 않은 백분위가 96.3이라면, 1등급의 등급 구분점수는 표준점수 기준으로 134점이 되고 성적표에는 두 학생 모두 백분위가 96으로 반올림 되어 표시되지만, 실제 등급은 ‘가’ 학생에게 2등급이, ‘나’ 학생에게 1등급이 부여된다.

### 다. 전형에 따른 성적자료의 활용

#### 1) 수시전형 “합격당락은 내신성적이 좌우하지만, 전략을 잘 때는 학력/모의평가 성적이 필요”

학생부교과 성적은 학생부중심전형(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에서 모두 반영되고 지원하려는 대학의 범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교과전형의 경우 실질적인 당락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며 다른 어떤 요소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학생부종합전형 또한 교과성적 외 다른 요소를 함께 평가하고 있어 교과성적 향상이 수시전형 합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수시 지원 전략을 잘 때 학생부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부비교과 내용, 전국연합학력평가(또는 모의평가) 성적까지 활용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학력평가 평균 성적으로 수능 예상등급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정시 지원선을 예측하여 수시 지원 여부와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여부, 수시 지원 대학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3 학생이라면 꼭 성실하게 모의평가에 임해야 한다.

특히 최저등급을 요구하는 전형은 수능최저등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조건 불합격하지만, 반대로 수능최저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에게는 실질경쟁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모의평가에서 받은 성적의 범위를 바탕으로 수시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 학력평가(모의평가)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일?

고3 학생들과 상담하다 보면 모의고사를 열심히 보지 않았단가, 졸았다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는 경우를 종종 접한다. 말 그대로 ‘모의’ 시험인데 열심히 안 봐도 되지 않겠냐는 학생들의 생각과 달리, 모의고사 성적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수시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모의고사 성적은 중요하다. 모의고사 성적(수능 예상성적)으로 수시 지원 대학의 하한선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모의고사를 열심히 보지 않아 자신의 정확한 전국단위 위치를 알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이 경우 옆에 아홉은 수시전형에서 ‘하향지원’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능 성적을 예상할 수 없기에 수시전형에 합격하기 위해 대학을 낮춰 쓰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매년 수능을 잘 봤음에도 ‘하

향'으로 쓴 대학에 수시로 합격하여 진학하게 되는 '수시납치'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고3에게 모의고사는 더 이상 '모의'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수시납치: 수시에서 1개 대학이라도 합격한 학생은 수능에서 아무리 좋은 성적을 받더라도 정시 지원을 할 수 없기에, 수능 성적보다 낮은 대학을 수시로 진학하게 되는 일

## 2) 정시전형 “수능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절대적으로 합/불을 결정”

수시전형과 달리 정시전형은 수능성적이 절대적이다. 수능에서는 원점수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표준점수와 백분위점수의 총 합산점수가 중요하다. 따라서 수능의 연습인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부터 소홀히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학은 성적향상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므로, 공부시간의 50%는 수학에 투자하는 것을 권한다. 수학성적을 잘 받는 경우 이과는 물론이고 문과 학생의 경우에도 표준점수에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수학을 잡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탐구과목은 겨울방학을 활용해 탐구과목의 기본 개념공부는 마치는 것이 좋다. 고3이 되면 학교 내신, 수능 공부, 자소서 준비 등 신경써야 할 것이 많아 자칫하면 탐구과목 학습이 너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겨울방학에 탐구과목을 결정하지 못한 학생이라면 늦어도 4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탐구과목을 결정해 수능에서 응시할 과목으로 모의고사를 치르는 것을 권장한다.



## 2.2 학력평가와 모의평가 활용 전략

고 3학생들은 3월 학력평가부터 11월 수능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월 전국단위 시험을 치르게 된다. 수능을 제외하고는 모두 ‘모의고사’로 불리고, 비슷하게 생각되는 경향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각 시험의 성격과 중요도에는 차이가 있다.

응시일	주관	응시영역	응시자
3월 12일(목)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수/영/사/과	고3 재학생
4월 8일(수)	경기도교육청	국/수/영/사/과	고3 재학생
6월 4일(목)	평가원	전 영역	재수/N수생 포함
7월 8일(수)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수/영/사/과	고3 재학생
9월 2일(수)	평가원	전 영역	재수/N수생 포함
10월 13일(화)	서울특별시교육청	전 영역	고3 재학생
11월 19일(목)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영역	전원

고3으로써 모든 시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시험시기와 주관단체, 그리고 응시자의 성격에 따라 시험결과의 분석과 활용방안이 달라진다.

### 가. 3월 학력평가

고3이 되어 처음으로 치르는 전국단위 시험으로 겨울방학 학습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다. 3월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는 속설이 많이 회자되지만 절대 사실이 아니므로 혹여나 3월 성적이 기대보다 낮게 나와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실제 시험 난도는 고2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등급 자체에 연연하기보다는 현재의 위치를 판단하고 앞으로의 공부 우선 순위를 설계하는 데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 4월 학력평가

재학생만 치르는 시험이라는 점에서는 3월 학력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4월 학력평가 전까지 수능에서 응시할 탐구과목을 선택하고 해당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을 권장한다. 4월 시험결과를 토대로 6월 모의평가를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공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

### 다. 6월 모의평가

재수생과 N수생이 합류하는 첫 시험으로 응시인원이 늘어나고 등급 커트라인이 올라간다. 꾸준히 준비를 하지 않은 고3이라면 대부분 등급이 하락하게 된다. 이는 수능만을 준비한 재수/N수생이 상위권에 진입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로, 6월 모의평가 성적을 현 시점의 수능 성적이라고 생각하고 9월 모의평가까지 학습 계획을 설계해야 한다.

### 라. 7월 학력평가

재학생만 치르는 시험으로 방학 전 전체적인 점검을 하는 데 의의가 있다.

### 마. 9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는 수능 전 재학생/재수/N수생이 함께 치르는 마지막 시험이다. 따라서 수능의 최종점검을 한다는 마음으로 시험에 임해야 한다. 또한 9월 모의평가 직후에 수시 접수가 시작되므로 6월과 9월 모의평가 성적을 바탕으로 본인의 수능 예상 등급을 산출하고, 그에 맞춰 수시 지원 대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 바. 10월 학력평가

재학생만 응시하는 시험으로, 시험의 난도는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나 시험 결과보다는 시험 자체에 익숙해지는 데 의미를 두고 준비한다. 실제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수면시간 조절, 컨디션 관리, 시간배분 등을 연습해 볼 수 있는 시험이다.





## 2.3 교과 및 비교과활동 준비

### 가. 학교활동과 기록

#### 1) 교과활동이란?

학생부종합전형의 기본적인 취지는 학교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을 충실하게 한 학생을 가려내어 미래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단순 암기와 문제풀이만 잘하는 똑똑한 학생이 아니라 기본적인 지적호기심과 학업역량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과 도전, 열정,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인성과 나아가 창의적인 부분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요소는 성적으로서의 교과와 활동으로서의 비교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학생부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교과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수업시간에 이뤄지는 학생의 활동을 선생님들이 기록해주는 항목으로 교과내용과 관련하여 학생의 학업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수업의 내용과 학생들의 교과활동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학생 스스로 호기심을 해결하는 탐구방법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수업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기록도 학생의 지식을 탐구하는 활동 기록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지적호기심을 바탕으로 수업시간을 통해 다양한 과정의 탐구활동을 계획하고 정리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비교과활동의 준비방법

학생부기록 중 숫자로 된 성적자료 외 모든 기록을 비교과활동이라고 한다. 즉, 수업시간의 활동을 제외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비교과활동이라 할 수도 있다.

학적사항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과 같은 처벌사항이 기록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기록이 있을 경우, 학생부종합전형 역시 상대평가인 점을 고려하면 합격에 불리할 수 있다.

출결상황은 학생의 성실성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다. 출결에 문제가 있는 학생 역시 종합전형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상경력도 학생의 관심, 학업역량, 도전정신, 노력정도, 공동체정신 등의 다양한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항목이다. 따라서 자신의 관심분야의 수상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입상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진로희망사항은 변하고 바뀔 수 있다. 다만 바뀐 후 변경된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창의적체험활동과 교과활동에 해당하는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독서활동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모든 활동은 사실상 모두 별개의 활동이라기보다 서로 상호 연계된 활동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수업과 수업 외 활동을 하며 활동을 하게 된 동기-과정-결과를 활동 전·후에 기록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 3) 학생부 기록의 간소화

학생부 기록이 간소화되어 글자 수가 제한됨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가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학생부에 간략하게 기록된 활동 중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내용에 집중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함으로써, 간소화된 학생부 기록을 보완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항목		글자 수	
		2020 대입부터 적용	2019 대입 적용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자율	500	1,000
	동아리	500	500
	봉사	미기재	500
	진로	700	1,00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500	1,000
계		2,200	4,000

### 4) 학생부 항목별 기록 내용

현 고3의 경우 크게 변화하는 내용은 없으나 현 고2(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학생부 기록사항이 크게 변화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적용학년 (2020년 기준)	
				고2	고3
인적사항 학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사항) 학생정보, 가족사항(부모 성명, 생년월일) 특기사항</li> <li>• (학적사항) 졸업연월일, 학교명, 검정고시 합격정보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사항의 학부모 정보 및 특기사항 삭제</li> <li>• (인적·학적사항) 인적사항과 학적사항 통합</li> </ul>	○	
진로희망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희망, 희망사유 입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목 삭제 / 학생의 진로희망은 창체 진로 활동 특기사항에 기재(상급학교 미제공)</li> </ul>	○	
출결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무단·기타 결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미인정·기타 결석</li> </ul>	○	○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봉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적 및 특기사항 기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기사항 미기재(실적만 기재)</li> </ul>	○	
	자율 동아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재 개수 제한 없이 자율 동아리명, 활동 내용 등을 특기사항란에 기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동아리 활동은 학년 당 1개만 기재할 수 있고 동아리명 및 동아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30자 이내로 기재</li> </ul>	○	
	청소년 단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 단체, 학교 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 학교 밖 청소년 단체 활동 모두 기재(단체명, 활동 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단체명, 활동내용 모두 기재)</li> <li>•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단체명만 기재)</li> <li>• 학교 밖 청소년단체(미기재)</li> </ul>	○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 활동내용(포지션, 대학출전 경력, 역할, 특성 등) 기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기재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교육과정 내: 개인특성 중심 기재</li> <li>- 정규교육과정 외: 클럽명(시간)만 기재</li> </ul> </li> </ul>	○	
	기재 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기사항 기재 분량: 3,000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기사항 기재분량 축소: 1,700자</li> </ul>	○	○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적용학년 (2020년 기준)	
				고2	고3
교과학습 발달상황	방과후 학교	• 활동(수강)내용 기재	•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기재분량: 1,000자 - 누가기록 나이스에서 관리	• 기재분량 축소: 500자 - 누가기록 기재 관리방법 시도 위임	○	○
수상경력		• 수상경력 모두 기재, 상급학교 제공 개수 제한 없음	• 수상경력 모두 기재, 상급학교 제공 수상경 력 개수 제한(학기당 1개)	○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 대입자료로 제공	• 대입자료로 미 제공	○	

※ 자율탐구활동: 현 고3에 한하여 정규 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된 연구 주제 및 참여 인원, 소요시간만을 기재할 수 있음. (1,2학년은 기재 불가)

## 나. 자기소개서 준비

자기소개서는 대부분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사용되는 평가서류이다. 특히 학생부 기록은 학교 선생님이 하지만, 자기소개서는 학생이 작성하는 서류라는 점에서 다르다. 학생부 기록이 간소화됨에 따라 학생부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서류가 될 수 있으므로 최선을 다해 작성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평가를 위한 서류이므로, 자기소개서를 읽는 평가자인 입학사정관을 설득할 수 있는 글이어야 하고 다른 학생이 아닌 지원자 본인을 소개하는 글이므로 자신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학생부를 바탕으로 각 문항에 알맞은 소재를 잘 선정해야 하고,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에게 의미있는 활동을 소재로 골라야 충분히 그 의미까지 설명할 수 있고 추후 면접에서 질문에 잘 답할 수 있다.

### 자기소개서는 언제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자기소개서는 지원자가 자신의 모습을 직접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원하는 모습과 학생부에서 드러나지 않는 지원자의 다양한 장점을 어필해야 한다. 따라서 지나치게 이른 시기에 작성하기보다는 고등학교 3년간의 활동이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2학년 겨울방학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학기 중에 조금씩 쓰는 것보다 일정한 시간을 갖고 집중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본격적인 수시 지원 시즌 이전에는 소재 확보에 집중하고, 실제로 글을 쓰는 것은 여유시간이 어느정도 확보되는 3학년 여름방학에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다.

자기소개서는 3개의 공통문항과 1개의 대학별 자율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 1) 자기소개서 공통문항 (2021 대입)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1,500자 이내)
3.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

공통문항은 2015학년도 대입 이래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으며, 2021학년도 대입에서도 성적을 위한 노력(1번)과 전공적합성 및 관심사(2번), 그리고 인성(3번)에 대한 문항 3개가 출제된다.

## 2) 대학별 자율문항의 예

대학별 자율문항에 주로 출제되는 것은 지원자의 성장과정, 대학/학과의 지원동기, 앞으로의 진로계획 등이다. 학교에 따라 독특한 문항이 출제되기도 하니, 진학 희망 대학의 전년도 자율문항을 반드시 참고 하길 바란다.

서울대	고등학교 재학기간 읽었던 책 중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3권 내로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각 500자 이내)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서울여대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나 지원자의 교육환경(가정, 학교, 지역 등)이 성장에 미친 영향 등을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1,500자 이내)
고려대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동기를 포함해 고려대학교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하세요. (1,000자 이내)
성균관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하십시오. (본인의 성장환경 및 경험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 / 지원 동기 및 진로를 위해 노력한 부분 / 본인에게 영향을 미친 유, 무형의 콘텐츠(인물, 책, 영화, 음악공연 등))(1,000자 이내)

###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만 대학에 합격할까?

항상 그렇지는 않다. 실제로 매년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보다 보면, 글의 구성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내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반대로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잘 쓴 학생이 수시 전형에서 탈락하기도 한다. 이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자기소개서 외에도 학교성적이나 교과 및 비교과활동, 특기와 관련된 학생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겉보기에 부족한 점이 많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친구가 대학에 합격하기도 한다. 다시말해, 꼭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만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기소개서가 수시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을 평가하는데 큰 부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는 다소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나 자



신을 잘 표현하는 자기소개서를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다. 글을 잘 써야겠다는 압박감에 자기소개서 대필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지금 문장력을 평가하는 백일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 좋은 자기소개서는 자신을 잘 소개하는 자기소개서이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충분히 좋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다.

(EBS 대입자기소개서 바이블 중 발췌)

### 3) 어떻게 써야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을 여러 가지 기본 원칙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꼽자면 바로 ‘구체적인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스펙이나 활동을 나열하는 것을 구체적인 글쓰기라고 하지만 두 가지 글쓰기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 〈예시1〉 참여한 활동들을 모두 나열한 글

제가 하였던 교내외 활동들은 교내에선 논술반 동아리, 영어동아리, 영어조화 사회자이고 교외는 토익시험, 영어대회참가와 RCY활동이 있습니다. 논술반 캠프는 매주 만나서 제시문 해석, 팀티칭, 첨삭의 과정을 통해서 논술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 영어동아리(english breaking girls)의 장을 맡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영어 단어시험, 영미 소설, 드라마 등 다매체를 통해 공부하기 등의 활동을 하고 카페를 만들어서 영어 일기쓰기도 합니다. 또 저는 월요일마다 아침조화를 영어로 진행하는 사회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이 되면 토익시험을 보면서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english up 대회에 참가해 도 대회까지 나갔습니다. 또 RCY활동을 통해 꽃동네 방문, 손목도리 만들기 등을 참여했습니다.

#### 〈예시2〉 참여한 활동 중 의미 있는 한 가지 사례에 집중해 구체적으로 기술한 글

Red Tornado는 교내 토론동아리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 모여 여러가지 사회적 쟁점을 주제로 토론을 하였고, 수업시간에 배울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속세를 폐지해야하는가?’라는 주제로 제가 처음 찬반토론에 참여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전까지 토론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준비한 논리가 타당한지 수십 번 읽어보았고, 자연스럽게 말하기 위해 거울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첫 토론에서 7:3의 평가로 승리 판정을 받았습니다.

### 4)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사항

최근 대입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교외활동을 자기소개서에 기술한 지원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침이 결정되었다.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2020학년도 대입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매년 유의사항이 변동될 수 있으니, 꼭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한다.

### 〈자기소개서 유의 사항〉

1.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지원자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제출된 자기소개서는 표절, 대리 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검증을 위해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고,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4. 자기소개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경우 서류 평가에서 “0점”(또는 불합격) 처리된다.

#### 1) 공인어학성적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 2) 수학 · 과학 ·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수학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한국수학인증시험(KMC), 온라인 창의수학 경시대회, 도시대항 국제 수학토너먼트,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과학	한국물리올림피아드(KPHO), 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 한국생물올림피아드(KBO), 한국천문올림피아드(KAO),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KESO),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전국정보과학올림피아드,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국제천문올림피아드,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
외국어	전국 초중고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경시대회, IET 국제영어대회, IEWC 국제영어글쓰기대회, 글로벌 리더십 영어 경연대회, SIFEC 전국 영어말하기대회, 국제영어논술대회

\*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외국어(영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등) 수상실적을 작성했을 경우 “0점”(또는 불합격) 처리

\*\* ‘교외 수상실적’이란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실적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은 교외 수상실적이라도 작성 시 “0점”(또는 불합격) 처리

5. 학생부위주전형의 자기소개서는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이므로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주요 항목(논문(학회지) 등재나 도서 출간, 발명특허 관련 내용, 해외 활동실적, 교외 인증시험 성적 등)은 작성할 수 없고, 여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 활동의 경우에도 작성이 제한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한다.
6. 학생부위주전형의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 부모(친인척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한다.





# 2021학년도 수시전형의 이해



## 2021학년도 수시전형의 이해

### 3.1 학생부교과전형의 이해

학생부교과전형은 2021학년도 대입 선발인원 중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2020학년도 147,345명에서 146,924명(수시 전체의 42.3%)으로 421명이 감소하였다. 학생부교과전型的 대학별 모집정원을 비교해보면 서울 소재의 대학은 상대적으로 교과전형의 모집인원이 적는데 비해, 중하위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대학과 지방 국립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마다 편차는 있지만 대략적인 수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모집정원 대비 학생부교과전형 모집인원이 차지하는 비율〉

서울 소재			지방 소재	
상위권 대학	중위권 대학	하위권 대학	거점국립대	일반대
약 10%	약 20%	약 45%	약 35%	약 60%

학생부교과전형은 흔히 ‘내신’으로 불리는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전년도 합불 결과를 참고한 합격예측의 정확성이 다른 전형에 비해 높은 편이다. 즉, 교과성적을 제외한 다른 요소들의 영향력이 가장 적은 전형으로, 학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학생부교과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교과전형 위주로 지원하는 특성이 있어 경쟁률이 타 수시전형보다 낮다는 특징이 있고, 한 학생이 여러 대학에 중복 합격하는 경우가 많아 총원합격률이 높은 전형이기도 하다.

#### 총원합격률이란?

총원합격률이란 최초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하여 예비번호를 받은 대기자가 대신 합격하는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모집전형 10명인 학과의 총원합격률이 100%라는 말은, 최초 합격한 10명이 모두 등록을 하지 않아 정원의 100%(10명) 만큼인 예비 1번 ~ 예비 10번의 대기자가 추가(총원) 합격했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흔히 ‘한 바퀴 돌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모든 과목의 내신성적이 좋아야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물론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전 과목에서 높은 수준의 내신 성적이 필요하지만, 대학에 따라 수능최저학력기준(이하 ‘수능최저’)이 있거나, 면접이 있거나, 교과 내신

성적 산출 시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교과목 중 성적이 좋은 과목을 선택해서 반영하기도 한다. 즉,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내신성적만이 유일한 평가지표가 아닌 대학도 있고, 전 과목의 성적이 아닌 일부 과목의 성적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 다시말해, 학생부교과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유무에 따라 또는 전형방법에 따라 합격선이 달라질 수 있다.

#### 수능 최저(등급)란?

수능최저등급이란 대학에서 수시모집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때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능 성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능최저등급이 수학 과목을 포함한 2개 합계 등급이 4등급이라고 정했다면, 수학을 포함해서 등급을 합산한 값이 4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만약 국어, 수학, 영어의 수능 등급이 각각 2등급, 2등급, 3등급을 받았다면 국어와 수학을 합쳐 4이내가 되므로 최저등급을 맞춘 것이 된다. 내신과 비교과에서 우수하더라도 수능최저등급을 맞추지 못한다면 합격할 수 없게 되므로, 수능최저가 있는 대학을 지원하려는 학생은 수능 준비를 성실히 해야만 한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 교과 성적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등급, 원점수 또는 Z점수 등을 활용하고 있다. 등급은 가장 많은 대학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9등급 상대평가로 반영된다. 또한 등급과 원점수를 혼용하여 반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점수 90점, 80점 등을 기준으로 1등급 또는 2등급 등으로 환산하여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Z점수는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교과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 방법은 교과 내신 성적의 경쟁이 치열한 학교 학생들의 불이익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어, 대학에 따라 등급과 Z점수를 혼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

#### Z점수?

학생부교과를 반영할 때, 단순히 등급 또는 원점수를 반영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시험 성적의 표준편차를 활용해 계산한 점수이다. Z점수를 활용하는 방법은 대학마다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이에 따라 성적 분포를 변환시켜 나오는 값인 Z값을 활용한다.

$$(\text{변환 식: } Z = (\text{원점수} - \text{평균}) / \text{표준편차})$$

Z점수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대학은 연세대가 있으며, 연세대는 위의 공식으로 나온 Z값에 따른 석차 백분율 값을 미리 공지하고 해당 값을 이용하여 최종 반영 점수를 계산한다. 다만 Z점수를 활용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정확한 계산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학의 입학처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 교과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은 대학별로 상이하다. 즉, 반영과목이 전 과목인지, 아니면 일부 과목인지 또는 각 과목의 이수단위 반영 여부에 따라 내신 성적은 다르게 산출될 수 있다. 또한 학년별 반영비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학년별 성적반영비율에 따라 한 번의 시험이 전체 교과성적에 반영되는 비중 차이〉

학년별 가중치 없음 (1:1:1)		학년별 가중치 있음 (2:4:4)	
1학년 시험 4번	시험당 8.3%, 총 33.3%	1학년 시험 4번	시험당 5%, 총 20%
2학년 시험 4번	시험당 8.3%, 총 33.3%	2학년 시험 4번	시험당 10%, 총 40%
3학년 시험 2번	시험당 16.7%, 총 33.3%	3학년 시험 2번	시험당 20%, 총 40%

만약 성적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경우라면 3학년 성적 반영 비중이 높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반대로 성적이 하락한 경우에는 전 학년 성적을 균등하게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성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학년별 가중치를 주지 않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학년별 반영 비중이 다른 대학에는 어떤 곳들이 있나요?

최근 입시에서는 고려대(학교추천1), 건국대(글로벌, 학생부교과), 광운대(학생부교과), 덕성여대(학생부100%), 부산대(학생부교과), 인하대(학생부교과) 등이 학년별 반영비중이 다른 학교라 할 수 있다. 대학의 전형방법은 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대학 홈페이지의 2021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꼭 확인하길 바란다.

서울의 주요 대학과 지방 거점 국립 대학 그리고 간호학과 등 선호도가 높은 학과의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지방 거점 국립 대학의 경우에는 학과별로 수능최저가 다르게 적용되니, 지원 시 수능최저 충족 여부를 고려하여 지원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수시전형 전반에 걸쳐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잘 활용할 경우 경쟁률을 대폭 줄여주는, 다시 말해 합격 가능성을 대폭 상승시킬 수 있는 합격의 열쇠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수시전형에 지원한다고 해서 수능 공부를 소홀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왜 중요한가요?

수능최저가 합격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은 수시에 지원하는 많은 고등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해 수능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능최저를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을 제외한 '실질경쟁률'은 굉장히 낮다.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의 경쟁률이 수능최저가 없는 대학보다 낮은 경쟁률을 보이곤 한다. 즉, 수능최저가 있는 전형에서 수능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면 다른 학생들에 비해 굉장히 낮은 경쟁률로 대학 합격을 노려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전형	학과	경쟁률	실질경쟁률	수능최저 충족 시
학생부교과전형	사회학과	10.7:1	3.7:1	경쟁률 65% 하락
	기계공학과	15:1	4.5:1	경쟁률 70% 하락
논술전형	정치국제학과	60.1:1	17.3:1	경쟁률 71% 하락
	화학과	70.6:1	12.8:1	경쟁률 82% 하락

(중앙대학교 2019학년도 입시결과 중 발췌)

이처럼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잘 활용하면 수시전형 전반에서 합격률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완화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서울 주요대학과 지방거점국립대의 학생부교과 전형에는 수능최저가 있는 경우가 많고, 수시 논술전형에서도 수능최저가 있는 경우가 많다.

### 가. 2021학년도 서울 주요 대학 학생부교과전형(안) : 수능최저 있음

대학명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방법	수능최저학력기준(안)
가톨릭대	학생부교과	266명	교과100 학년별 가중치X	인문/자연: 2개 합 6(국,수,영,탐구1과목 중) 간호 인문: 3개 합 6(국,수(나),영,사탐1과목 중) 간호 자연: 3개 합 6(국,수(가),영,과탐1과목 중)
가천대	학생부우수자	428명	교과80 +비교과20 학년별 가중치X	인문: 2개 합 6(국,수,영,탐구1과목 중) 자연/금융수학/자유전공: 2개 합 6 ↳ 단, 수학(가) 포함 시 1등급 상향 의예: 3개 각 1등급(국,수(가),영,과탐 중) ↳ 과탐 적용 시 2과목 평균. 소수점 절사 한의예: 2개 각 1등급(국,수(가),영,과탐 중) ↳ 과탐 2과목 모두 1등급
고려대	학교추천	1,158명	교과60+서류20+면접 20 학년별 가중치 2:4:4	인문: 3개 합 5(국,수,영, 탐구 중) 자연: 3개 합 6(국,수(가),영,과탐 중) 의예: 4개 합 5(국,수(가),영,과탐 중) ※ (공통)탐구 적용 시 2과목 평균. ※ (공통) 한국사 인문 30 이내, 자연/의예 40 이내
국민대	교과성적우수자	463명	학생부100 학년별 가중치X	인문: 2개 합 5(국,수,영,탐구1과목 중) 자연: 2개 합 6(국,수,영,과탐1과목 중)
상명대	학생부교과	233명	교과100 학년별 가중치X	인문/자연: 2개 합 7(국,수,영,탐구1과목 중)
서경대	교과성적우수자	227명	교과100 학년별 가중치X	2개 합 6(국,수,영,탐구1과목 중) ※ 한국사로 탐구 대체 가능
서울 과기대	학생부교과	395명	교과100 학년별 가중치X	인문: 2개 합 6(국,수(나),영,사탐 중) 자연: 2개 합 6(국,수(가),영,과탐 중) ※ (공통)탐구 적용 시 2과목 평균.
서울 시립대	학생부교과	193명	교과100 학년별 가중치X	(인문) 3개 합 7(국,수,영,탐구1과목 중) (자연) 3개 합 8(국,수(가),영,과탐1과목 중) ※ 자연: 수학(가), 과탐 응시 필수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	28명	1단계(3배수): 교과100 2단계: 1단계80+ 해군전형 20	국어, 영어, 수학 3개 합 9
	항공시스템공학	17명	1단계(5배수): 교과100 2단계: 1단계100+ 공군전형(합/불)	국어, 영어, 수학 3개 합 9, 한국사 3



대학명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방법	수능최저학력기준(안)
송실대	학생부우수자	475명	교과100 학년별 가중치X	인문: 2개 합 6(국,수(나),탐구2과목 중) 자연: 2개 합 7(국,수(가),과탐2과목 중) ※ 영어영역 반영 제외
인천대	교과성적우수자	647명	교과100 학년별 가중치X	인문/자연: 2개 합 7 사범: 인문/자연: 2개 합 6 동북아국제통상학부: 2개 합 5 ※ 인문,디자인,동북아: 국,수,영, 탐구1과목 중 ※ 자연: 국,수,영, 과학탐구1과목 중
중앙대	학생부교과	404명	교과70 +비교과30 학년별 가중치X	인문: 3개 합 6(국,수,영,탐구2과목 평균 중) 자연(서울): 3개 합 6(국,수(가),영,과탐1과목 중) 자연(안성): 2개 합 5(국,수(가),영,과탐1과목 중) 디자인학부: 2개 합 5(국,수,영,탐구1과목 중) ※ (공통) 한국사 40내
한성대	교과성적우수자	322명	교과100 학년별 가중치X	인문: 2개 합 6(주)/8(야)(국,수,영,탐구1과목 중) 자연: 2개 합 7(주)/8(야)(국,수,영,과탐1과목 중)
한국외대 (서울)	학생부교과	170명	교과90 +비교과10 학년별 가중치X	국, 수, 영, 탐구1과목 중 2개 합 4 ※ 제2외국어 및 한문을 사탐1과목으로 대체 가능 ※ (공통) 한국사 40내 ※ 글로벌캠퍼스는 수능최저 없음
한양대 (에리카)	학생부교과	302명	교과100 학년별 가중치X	인문: 2개 합 6(국,수,탐구1과목 중) 자연: 2개 합 6(국,수(가),탐구1과목 중)
홍익대	교과우수자	383명	교과100 학년별 가중치X	인문: 3개 합 7(국,수,영,탐구1과목 중) 자연: 3개 합 8(국,수(가),영,과탐1과목 중) ※ (공통) 한국사 40내
덕성여대	학생부100%	190명	교과100 학년별 가중치 3:3:4	인문: 2개 합 7(국,수,탐구1과목 중) 자연: 2개 합 7(국,수,탐구1과목 중) ※ 반영영역 각각 4등급 이내 ※ 수학(가) 포함 시 2개 합 8 ※ 대교협 심의 후 세부사항 수정 예정
동덕여대	학생부교과	408명	교과100 학년별 가중치X	공통: 2개 합 7(국,수,영,탐구2과목 평균 중) ※ 단, 영어 포함 시 2개 합 6
서울여대	교과우수자	182명	교과100 학년별 가중치X	공통: 2개 합 7(국,수,영,탐구1과목 중) ※ 영어 포함 시 2개 합 5
성신여대	교과우수자	184명	교과90 +출석10 학년별 가중치X	인문: 2개 합 6(국,수,탐구1과목 중) 자연: 2개 합 7(국,수,탐구1과목 중) ※ 영어 포함 시 1등급 상향
숙명여대	학생부교과	244명	교과100 학년별 가중치X	공통: 2개 합 4(국,수,영,탐구1과목 중)

## 나. 2021학년도 서울 주요 대학 학생부교과전형(안) : 수능최저 없음

대학명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방법
광운대	교과성적우수자	151명	교과100
명지대	학생부교과(교과성적)	241명	교과100
	학생부교과(교과면접)	409명	1단계(5배수) : 교과100 2단계 : 1단계70+면접 30
상명대	학생부교과(안보학전형)	24명	1단계(3배수) : 교과100 2단계 : 1단계80+면접10+체력검정10
세종대	학생부우수자	389명	교과100
중앙대	학교장추천	170명	교과60+서류40
한성대	학생부교과(상상력인재학부)	40명	교과100
한양대	학생부교과	288명	교과100
이화여대	고교추천	370명	교과80+면접20

## 다. 2021학년도 지방 거점 국립 대학 학생부교과전형 모집인원

지방 거점 국립 대학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보다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많다. 또한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과별로 다른 수능최저등급을 적용하여 선발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지원 시 수능최저 충족 여부를 따져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명	정원 내				정원 외				합계
	교과	종합	논술	실기	교과	종합	논술	실기	
강원대	2,221	690		136	40	246			3,333
경북대	1,158	912	757	121		309	15		3,272
경상대	1,186	1,028		46		224			2,484
부산대	1,290	748	533	216		258		16	3,061
전남대	1,642	1,051		69	246	74			3,082
전북대	1,817	530		71		409			2,827
충남대	1,640	499		35	28	282			2,484
충북대	1,061	721		7	105	137			2,031
제주대	835	373		66		287			1,561
합계	12,850	6,552	1,290	767	419	2,226	15	16	24,135

## 3.2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2021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의 총 모집인원은 86,083명으로 약 24.8%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 0.3%, 약 915명 감소한다. 전국적으로는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제일 많이 선발하지만, 서울 지역 대학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이라면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을 고려해 봐야한다. 또한 서울 소재 대학 외에도 카이스트, 포스텍, 지스트, 디지스트 등의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모두 수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란?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인 5개 대학을 하나로 일컫는 말이다. 인문계열, 사회과학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사범계열 등 다양한 계열의 학과와 단과대학을 가진 일반 대학과 달리 과학기술 분야, 즉 자연계열과 공학계열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해당 계열의 학과 및 단과대학이 대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학들이다.

현재 KAIST(한국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대학교), POSTECH(포항공과대학교)의 5개 대학이 있으며, 이들은 수시 원서 접수 시 6개 이하 지원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일반 대학은 최대 6개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은 수험생이 원하는 만큼 지원할 수 있다.

### 가. 2021학년도 주요 대학 수시 전형별 모집인원

대학명	정원 내				정원 외				합계
	교과	종합	논술	실기	교과	종합	논술	실기	
건국대		1,358	445	28		321			2,152
경희대		2,173	684	336		462			3,655
고려대	1,158	1,723		169		255		18	3,323
국민대	463	1,059		177		433			2,132
단국대	995	1,137	340	424		358		-	3,254
덕성여대	190	237	232	49	17	43			768
동국대		1,301	452	141		155			2,049
동덕여대	408	226		356		66			1,056
삼육대	361	357		79	13	66		9	885
상명대	656	700		361	117	124			1,958
서강대		875	235			9			1,119
서울과학기술대	395	536	266	68		227			1,492
서울대		2,442				164			2,606

대학명	정원 내				정원 외				합계
	교과	종합	논술	실기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서울시립대	222	737	101	10	102				1,172
서울신학대	206	99		69	3	27			404
서울여대	227	555	150	79		86			1,097
성균관대		1,570	520	103		233	12		2,438
성신여대	184	733	186	242	123	15			1,483
세종대	389	607	338	77	137	110			1,658
숙명여대	244	739	300	154		224			1,661
송실대	479	934	292	54		215			1,974
연세대		1,664	384	163		145			2,356
이화여대	370	914	479	321					2,084
중앙대	574	1,344	789	406		212			3,325
한국외대	491	1,179	489						2,159
한양대	284	1,095	373	192		154			2,098
홍익대	681	1,102	383	81	59	150			2,456
합계	8,977	27,396	7,438	4,139	571	4,254	12	27	52,814

#### 나. 2021학년도 서울 주요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 수능최저 있음

대학명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방법	수능최저학력 기준
고려대	학업우수형	1,178	1단계(5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	(인문) 4개 합 7 (자연) 4개 합 8 (의예) 4개 합 5 ※ 탐구2과목 반영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756	서류70+면접30	3개 영역 각2등급 ※ 탐구 2과목 반영 시 2개 합 4
이화여대	미래인재	844	서류100	(인문/자연) 3개 합 6 (의예) 4개 합 5 (스크랜트) 3개 합 5 ※ 탐구 1과목 반영
홍익대	학교생활우수자	383	서류100	(인문) 3개 합 7 (자연) 3개 합 8 ※ 탐구 1과목 반영
	미술우수자	247	1단계(6배수) : 교과100	3개 합 9 ※ 탐구 1과목 반영
			2단계(3배수) : 서류100	
			3단계 : 2단계40+면접60	





## 다. 2021학년도 서울 주요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 수능최저 없음

대학명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방법	수능 최저
건국대	KU자기추천	798	1단계(3배수): 서류100 2단계: 1단계70+면접30	x
	KU학교추천	475	교과30+서류70 ※ 추천인원 제한 없음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1,180	1단계(3배수): 서류100 2단계: 1단계70+면접30	x
	고교연계	750	서류70+교과30 ※ 인문2/자연3/예체능1추천	
고려대	계열적합형	495	1단계(5배수): 서류100 2단계: 1단계60+면접40	x
동국대	Do Dream	609	1단계(2.5~3배수): 서류100 2단계: 1단계70+면접30	x
	학교장추천인재	390	서류100 ※ 총 6명(계열별 3명 이내)추천	
	불교추천인재	108	1단계(3배수): 서류100 2단계: 1단계70+면접30	
	Do Dream (소프트웨어)	64	1단계(2.5~3배수): 서류100 2단계: 1단계70+면접30	
서강대	1차	434	서류100	x
	2차	323		
	SW우수자	16		
서울대	일반	1,686	1단계(2배수): 서류100 2단계: 서류50+면접50	x ※미술, 체육교육 수능최저 있음
서울시립대	학생부종합	563	1단계(2~4배수): 서류100 2단계: 1단계50+면접50	x
성균관대	학생부종합(계열모집)	655	서류100	x
	학생부종합(학과모집)	915	서류100 ※ 의예, 사범, 스포츠과학 면접 실시	
숙명여대	숙명인재I(서류형)	423	서류100	x
	숙명인재II(면접형)	230	1단계(4배수): 서류100	
	소프트웨어융합인재	19	2단계: 1단계40+면접60	

연세대	면접형	523	1단계(3배수): 교과40+비교과60 2단계: 1단계40+면접60	X
	활동우수형	768	1단계(일정배수): 서류100 2단계: 1단계60+면접40	
중앙대	다빈치형	590	서류100	x
	탐구형	538		
	SW인재	75		
한국외대 (서울)	학생부종합(면접형)	371	1단계(3배수): 서류100 2단계: 1단계70+면접30	x
	학생부종합(서류형)	131	서류100	x
한양대	학생부종합	979	학생부종합평가100	x

## 라. 2021학년도 교육 대학 모집인원

지역별 교육 대학에서는 초등교육과 수시 전체 모집인원 2,295명 중 2,105명 즉 91%가 넘는 인원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

대학명	정원 내		정원 외		합계
	교과	종합	교과	종합	
경인교대		349		48	397
공주교대	80	105		29	214
광주교대		209		27	236
부산교대		221		31	252
서울교대	60	140		29	229
전주교대	50	45		23	118
진주교대		181		27	208
청주교대		162		25	187
춘천교대		174		25	199
대구교대		217		38	255
합계	190	1,803	0	302	2,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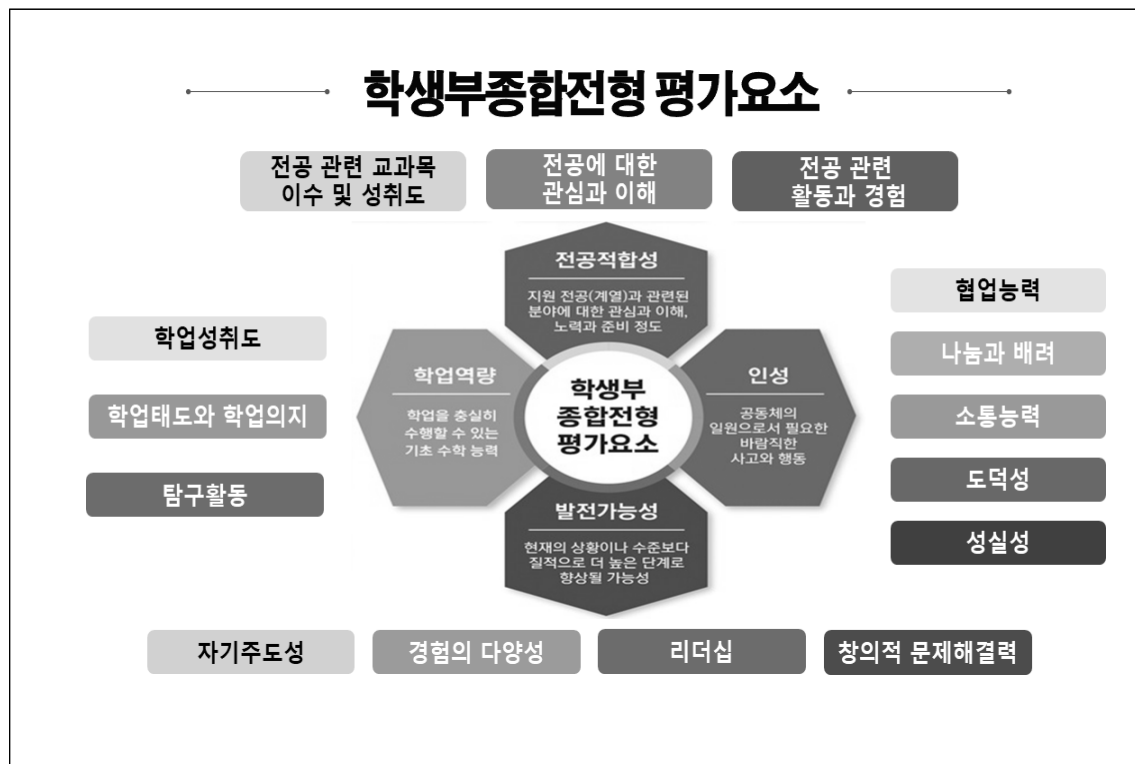
## 마.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별 평가항목

학생부종합전형은 지원자의 교과 성적 외에도 지원자의 잠재능력, 소질, 전공적합성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 판단하여 대학의 인재상과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즉,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 학생의 성과를 결과만으로 단순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미래를 보고 평가하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학교생활과 관련된 학생부(교과성적, 비교과활동 등),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서류를 전형요소로 활용하지만 추천서를 폐지하는 대학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공인어학성적이나 수학, 과학, 외국어 등의 교외 수상실적은 반영하지 않으며,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0점 처리되어 불합격하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학생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생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이다. 따라서 교과 성적 뿐 아니라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생부에 기재된 모든 항목을 통해 기초학업역량이나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을 인식하고 학생부기록이 충실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국대 등 6개 대학과 교사들이 공동연구를 통해 대입전형표준화방안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 연구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상당수의 학생을 선발하는 60여개 대학의 평가기준을 정리해서 공통 분모를 찾아내고, 대학이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는지를 정리하였다.



※ 출처 : 6개 대학 공동연구 <대입 전형 표준화방안 연구>, 2018. 3.

## 바. 항목별 평가 세부 내용

평가 요소	평가 항목	평가 항목별 평가 세부 내용
전공 적합성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및 성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하였는가?/스스로 선택하여 수강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li> <li>▶ 지원 전공과 관련된 교과 성적이 우수한가?(이수단위, 수강자 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참고)</li> </ul>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전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지원 전공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li> <li>▶ 자신의 경험과 지원 전공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li> </ul>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전공에 관련된 교과관련활동(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수상 등)이 있는가?</li> <li>▶ 지원 전공에 관련된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이 있는가?</li> <li>▶ 지원 전공에 관련된 독서가 있는가, 적절한 수준인가?</li> </ul>
인성	협업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발적인 협업을 통하여 공동의 과제를 완성한 경험이 자주 나타나는가?</li> <li>▶ 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협동을 이끌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li> </ul>
	나눔과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나누고자 한 구체적 경험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가?</li> <li>▶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나눔을 생활화 하고자 하는 경험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가?</li> <li>▶ 학교생활에서 타인을 배려한 본보기로 언급되거나 모범이 된 사례가 있는가?</li> </ul>
	소통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과제 수행이나 모둠 활동, 단체 활동 등에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대방의 관심사항과 요구를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li> <li>▶ 수업이나 과외활동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li> <li>▶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논리적·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경험이 나타났는가?</li> <li>▶ 새로운 지식이나 사고방식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li> </ul>
	도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속한 집단이 정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라도 하더라도 이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li> <li>▶ 자신이 속한 구성원들에게 인정과 신뢰를 얻고 있으며 바람직한 행동으로 모범이 되는가?</li> </ul>
	성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활동에 있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는가?</li> <li>▶ 자신의 관심분야나 진로와 관련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li> <li>▶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도 일관된 모습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경험이 있는가?</li> </ul>
발전 가능성	자기주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내 다양한 활동에서 주도적, 적극적으로 활동을 수행하였는가?</li> <li>▶ 새로운 과제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성과를 내었는가?</li> <li>▶ 기존에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외연을 확장하려고 노력하였는가?</li> </ul>
	경험의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등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는가?</li> <li>▶ 독서활동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쌓았는가?</li> <li>▶ 예체능 영역에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하였는가?</li> </ul>



평가 요소	평가 항목	평가 항목별 평가 세부 내용
발전 가능성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 주도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li> <li>▶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가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경험이 있는가?</li> <li>▶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가?</li> </ul>
	창의적 문제해결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내 활동 과정에서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일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가?</li> <li>▶ 교내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li> <li>▶ 주어진 교육환경을 극복하거나 충분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li> </ul>
학업 역량	학업성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적인 교과성적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어느 정도인가?</li> <li>▶ 학기별/학년별 성적은 고르게 유지되고 있는가?/학기별/학년별 성적은 상승/하락하고 있는가?</li> <li>▶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과목(예: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등)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li> <li>▶ 그 외 과목 성적은 전반적으로 무난한가? 유난히 소홀함을 보인 과목은 없는가?</li> <li>▶ 희망 전공과 관련된 기본 과목은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li> <li>▶ 과목별 이수자 수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과목별 등급 외에 원점수(평균/표준편차 포함)는 적절한가?</li> </ul>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하고 있는가?</li> <li>▶ 자발적인 성취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넓고 깊게 학습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는가?</li> <li>▶ 교과 활동을 통해 지식의 폭을 확장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li> <li>▶ 교과 수업에서 적극적이고 집중력이 있으며 스스로 참여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을 보이는가?</li> </ul>
	탐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탐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li> <li>▶ 각종 교과 탐구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는가?</li> <li>▶ 탐구 활동에서 표출되는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li> <li>▶ 성공적인 학업 생활을 위해 적극적인 탐구 의지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li> </ul>

####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흔한 오해?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성적’을 보고, 학생부종합전형은 ‘스펙’을 본다는 말이다. 이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로, 학생부종합전형의 도입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의 역량을 판단하는 종합적인 요소들을 ‘교과성적과 함께’ 판단하는 전형이다. 성적 위주로만 학생을 선발할 경우 자칫 놓치게 될 수 있는 우수한 잠재력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학생부교과전형을 보완하기 위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전형이 학생의 다양한 활동과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성적이 덜 중요한’ 전형은 결코 아니다.

## 3.3 면접의 이해

면접은 독립적인 전형이라기보다는 학생부교과전형과 종합전형, 특기자전형의 단계별 전형 중 한 요소로서 활용된다. 면접이 전형에 활용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합불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학생부교과전형 중 면접을 실시하는 고려대는 학교추천전형에서 단계별 전형을 폐지하고 일괄합산 전형으로 수능최저를 적용하여 학생부(교과)60+서류20+면접20으로 1,158명을 선발한다. 반면 이화여대는 고교추천전형에서 일괄합산전형으로 수능최저를 적용하지 않고 교과80+면접20으로 370명을 선발한다.

### 가. 학생부교과전형 면접 실시 대학

#### 1) 교과+면접 일괄합산 실시 대학

대학	전형명	모집인원(명)		전형방법	수능 최저
		2021	2020		
고려대	학교추천	1,158	400	학생부(교과)60+서류20+면접20	○
이화여대	고교추천	370	390	교과80+면접20	X

#### 2) 1단계 학생부 교과, 2단계 면접 실시 대학

전형 방법		대학명
1단계	2단계	
1단계 : 교과 100% (일정배수)	서류 30%+면접 70%	성결대 SKU창의적인재
1단계 : 교과 100% (일정배수)	교과 60%+면접 40%	가천대 가천바람개비 2, 협성대 미래역량우수자전형, 수원대 미래핵심인재
1단계 : 교과 100% (일정배수)	교과 70%+면접 30%	명지대 학생부교과(교과면접), 인천대 INU교과전형
1단계 : 교과 100% (일정배수)	교과 80%+면접 20%	안양대 아리학생부면접

### 나.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실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단계별 전형을 실시한다.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한다. 2단계 면접에서는 서류의 진위확인 및 전공소양, 인성 등을 평가하고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면접은 실시하지 않는다.

학생부종합전형 중 면접의 비중이 높은 대학은 2단계에서 60%를 반영하는 연세대 면접형(523명)과 숙명여대 숙명인재III(면접형)(230명)/소프트웨어융합인재전형(19명)이다.



면접 비율이 30%이고 수능최저등급을 요구하는 서울대 지역균형선발(756명)과 고려대 학업우수형(1,178명)을 제외하고, 수능 최저등급은 없고 면접은 있는 대학들의 경우, 면접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합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 1) 면접이 있는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방법 및 면접비율	수능 최저 적용	수능 최저 미적용
서류70+면접30	서울대 지역균형선발(743)	
1단계(일정배수): 서류100 2단계: 1단계70+면접30	고려대 학업우수형(1,178)	건국대 KU자기추천(850), 경희대 네오르네상스(1,180), 동국대 Do Dream(609)/ DoDream소프트웨어(64)/ 불교추천인재(108), 한국외대(서울) 학생부종합(면접형)(371)
1단계(일정배수): 서류100 2단계: 1단계60+면접40		고려대 계열적합형(495), 연세대 활동우수형(768)
1단계(일정배수): 서류100 2단계: 1단계50+면접50	서울대 일반전형 (미술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67)	서울대 일반전형(미술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제외)(1,592), 서울시립대 학생부종합(563)
1단계(일정배수): 서류100 2단계: 1단계40+면접60		숙명여대 속명인재III(면접형)(230)/ 소프트웨어융합인재(19)
1단계(3배수): 교과40+비교과60 2단계: 1단계40+면접60		연세대 면접형(523)

#### 2) 면접이 없는 학생부종합전형

서울 주요대학 중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홍익대, 이화여대 등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면접과 수능최저없이 학생을 선발한다.

### 다. 면접의 유형

#### 1)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유형

유형		대학
일반 면접	서류내용 확인 및 인성평가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서류면접전형), 건국대(KU자기추천), 경기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국대(Do Dream, 불교추천인재), 명지대, 삼육대, 상명대, 서울과기대, 서울대(지역균형), 서울여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III(면접형), 송실대, 아주대, 인하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양대(에리카)(학생부종합II)

유형		대학
심층 면접	제시문 기반 심층면접	고려대(학업우수형, 계열적합형), 동덕여대(동덕창의리더), 서울대(일반), 서울시립대, 연세대

## 2-1)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예시 - 일반면접

일반면접의 경우 대부분의 면접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대한 확인과 지원자 개개인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므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별도의 기출문제를 제공하지 않는다.

## 2-2)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예시 - 심층면접

2019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모집 학교추천 II 전형 면접 기출문제 (인문계열)
<p><b>[제시문]</b></p> <p>(가) 허자(虛子)가 말했다. “천지에 생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귀합니다. 금수한테는 지혜가 없고 초목한테는 감각이 없으니까요. 또한 이들에게는 예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금수보다 귀한 존재이고, 초목은 금수보다 천한 존재이지요.” 실옹(實翁)은 고개를 들어 깔깔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너는 정말 인간이로구나! 오륜(五倫)과 오사(五事)가 인간의 예의라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함께 먹이를 먹는 것은 금수의 예의이고 군락을 지어 가지 뽀는 건 초목의 예의이다. 인간의 입장에서 물(物)을 보면 인간이 귀하고 물이 천하지만, 물의 입장에서 인간을 보면 물이 귀하고 인간이 천하다. 그러나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과 물은 균등하다. 무릇 대도(大道)를 해치는 것은 뽀내는 마음보다 더 심한 게 없다. 인간이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물을 천하게 여김은 뽀내는 마음의 근본이다. 너는 왜 하늘의 입장에서 물을 보지 않고 인간의 입장에서 물을 보느냐?”</p> <p>(나) 1950년 네덜란드 축산업자들은 매우 부드러운 송아지 고기를 얻는 방법을 개발했다. 비결은 송아지를 매우 작게 개조한 우리 안에 가두고 사육하는 것이다. 먹이도 풀 대신 비타민과 미네랄, 성장 촉진제를 첨가한 탈지분유를 만든 액체 사료를 사용했다. 송아지들은 이런 환경에서 16주를 산다. 갓 태어났을 때는 40kg 남짓하지만 이런 시스템에서 16주를 보내면 180kg까지 증가한다. 이렇게 생산한 송아지 고기는 야외에서 풀을 먹고 마음껏 뛰놀면서 성장한 송아지 고기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팔린다.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 고기가 질기지 않고 색깔도 연하기 때문이다.</p> <p>(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미래세대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하는 발전을 의미한다. ‘지속가능성’은 인간의 지속가능성, 사회의 지속가능성, 경제의 지속가능성, 더 나아가 생태적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이들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생태적 지속가능성이란 개체들 사이 또는 개체와 자연 간의 상호 의존성이나 생명 간의 연대성과 같은 관계성의 지속을 의미하는데,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인간도, 사회도, 경제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p>





(라) 람사르습지 도시는 람사르습지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참여하는 도시나 마을을 의미한다. 람사르습지 인증은 습지의 훼손을 막아 개발로부터 자연과 인간을 보호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지역과 세계가 힘을 모아, 지역 주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혜택의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지역은 3년 전부터 람사르습지로 지정돼 있으나, 최근 인근 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시에서는 일대 부지에 1,000여 마리의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시설과 숙박시설을 짓는 사파리월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 정부는 이러한 개발은 ○○지역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이며, 후손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발계획을 두고 지역 환경단체는 “람사르습지 도시로 지정한 취지와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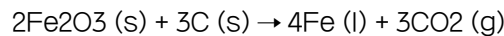
1. 제시문 (가)의 ‘허자’의 입장에서 제시문 (나)와 (라)에 대한 견해를 각각 말해 보시오.
2. 제시문 (다)의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의 ‘실용’과 제시문 (라)의 ‘○○시 정부’의 생각 또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 말해 보시오.
3. 제시문 (가)~(라)를 바탕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방향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방안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해 보시오.

#### 2019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모집 학교추천 II 전형 면접 기출문제 (자연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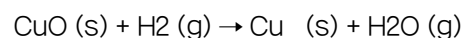
#### [제시문]

(가) 태양 전지에 처음 사용된 반도체 재료는 단결정 실리콘이다. 단결정 실리콘으로 만든 태양 전지는 에너지 변환 효율이 좋으나 고급 실리콘 재료를 필요로 한다. 다결정 실리콘 재료는 효율 면에서는 떨어지나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나) 철을 얻기 위해서는 철광석에서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제련 과정이 필요하다. 용광로 속에서 여러 단계의 반응이 일어나지만 철광석이 제련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제련 과정은 순수한 금속을 얻는데 다양하게 사용된다. 예를 들어 산화구리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구리를 얻을 수 있다.



(다) 고대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매우 짧아서 기원전 1000년경의 인간 평균 수명은 오늘날의 청소년 연령에 해당되는 18세에 불과하였다. 또 영국의 경우 1814년의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민의 평균 수명은

26세였다. 그 당시는 수인성 전염병인 콜레라가 정기적으로 발생하여 다른 도시들의 평균 수명도 이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수도물이 보급된 후로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깨끗한 물은 곧 건강과 직결되는데, 세계적인 장수촌이 모두 물이 깨끗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 그 좋은 예이다.

(라) 반도체로 만든 소자는 원하는 대로 저항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빛을 낼 수도 있는 등 특별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전자 산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전기 기구에는 반도체로 만든 부품이 들어있다. 순수한 반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불순물을 넣어 전류가 잘 흐르게 한다. 불순물을 섞는 과정을 도핑이라고 한다. 반도체에 약간의 불순물을 넣어서 남아도는 전자나 양공을 만들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입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좋아진다.

(마) 세계화로 인적·물적 교류가 증대되면서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커지고 있다. 사람의 왕래나 대중매체 등을 통해 이념, 가치, 언어, 예술 등이 국경을 넘어 전달되면서 한 사회 내에 세계 각지의 문화가 혼재하게 되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귀화 외국인, 북한 이탈 주민 등이 증가하면서 문화적 특성이 다른 여러 집단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고 있다.

(바) 고분자에 나노 입자를 첨가하면 고분자의 구조와 표면이 변화되어 고분자의 물리적 특성이 강화되는데, 나노 물질의 크기가 매우 작아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기존의 복합 재료보다 적은 양의 첨가로도 우수한 성질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나노 복합 재료를 항공기와 자동차에 적용하여 무게는 가볍고 강도는 높은 운송 수단을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은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온실 기체의 발생을 줄여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제]

1. 제시문 (가)~(다)에서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개념과 제시문 (라)~(바)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개념을 찾고, 대비하여 설명하시오.
2. 제시문 (가)~(다)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개념을 사회에서 추구할 때의 장·단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3. 제시문 (라)~(바)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개념의 장·단점을 과학현상에서 찾고 설명하시오.
4. 생물학적 다양성이란 유전적 다양성 및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문제 1’에서 찾은 두 가지 개념과 관련지어 생물학적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시오.

## 라. 면접 대비

1) 지원하는 대학의 면접유형을 파악하고, 대학에서 발표하는 선행학습 영향평가서를 참고하여 면접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제시문이 있는 심층면접의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2) 서류기반 면접의 경우에는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시 질문과 답변을 작성하여 모의면접을 경험해보도록 한다. 질문에 답할 때 짧고 간결하게 중심 문장을 말하고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말로 부연 설명하는 방법을 익혀 실전대비를 하도록 한다.

3) 모의면접 시 꼭 영상으로 자신의 말하는 모습을 찍어본다. 말할 때의 표정, 말투, 제스처 등에 대해서도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 3.4 논술전형의 이해

수시 논술 위주 2020학년도 모집인원은 12,146명, 비율은 3.5%이었다. 이에 비해 2021학년도 모집인원 11,162명에 비율 3.2%로 전년도 대비 모집인원은 984명 감소, 비율도 0.3% 감소된다. 이는 논술전형 폐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게끔 방침을 발표한 교육부의 의도에 대학이 방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1학년도			2020학년도			증감
대학 수	모집인원(명)	비율(%)	대학 수	모집 인원(명)	비율(%)	인원(명)
33개교	11,162	3.2	33개교	12,146	3.5	-984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 수는 전년도와 같이 33개교로, 서울 지역에서는 22개 대학에서 실시하며, 인천, 경기 지역 대학에서는 9개 대학에서, 기타 지역에서는 경북대, 부산대, 울산대 (의예)를 포함해서 5개 대학에서 실시한다.

### 가. 2021학년도 지역별 논술전형 실시 대학

지역	대학교
서울(22)	가톨릭대, 건국대, 경기대, 경희대, 광운대, 동국대, 덕성여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인천, 경기(9)	인하대, 경기대(수원), 단국대(죽전), 아주대, 중앙대(안성), 한국외대(글로벌),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항공대, 한양대(에리카)
기타지역(5)	연세대(원주), 한국기술교육대, 경북대, 부산대, 울산대(의예)

### 나. 논술전형 모집 인원 변화

논술전형은 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전형이다. 상위 주요 15개 대학 중 서울대, 고려대를 제외한 13개 대학이 논술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중앙대(789명), 경희대(684명), 성균관대(520명), 인하대(520명)가 500명 이상의 인원을 논술로 선발한다. 그리고 한국외대(489명), 이화여대(479명), 동국대(452명), 건국대(445명), 연세대(원주)(384명), 홍익대(383명), 한양대(에리카)(373명), 단국대(340명), 세종대(338명), 숙명여대(300명)가 300명 이상의 인원을 선발하며, 연세대(서울)(262명), 한양대(서울)(216명), 서강대(235명)와 서울시립대(101)가 모집한다. 지역 거점 대학인 경북대는 772명, 부산대는 533명을 선발한다.

## 1) 전년도 대비 2021학년도 주요 대학 논술전형 모집 인원 및 선발 증감 (정원 내 기준)

대학명	모집인원		증감
	2021(현 고3)	2020	인원(명)
가톨릭대	175	175	0
건국대	445	451	-6
경기대	172	172	0
경북대	772	793	-21
경희대	684	714	-30
광운대	206	206	0
단국대	340	350	-10
덕성여대	232	299	-67
동국대	452	470	-18
부산대	533	679	-146
서강대	235	235	0
서울과학기술대	266	270	-4
서울시립대	101	142	-41
서울여대	150	150	0
성균관대	520	520	0
성신여대	186	288	-102
세종대	338	348	-10
숙명여대	300	300	0
송실대	292	296	-4
아주대	203	212	-9
연세대(원주)	384	314	70
연세대(서울)	262	607	-345
울산대	12	12	0
이화여대	479	543	-64
인하대	520	562	-42
중앙대	789	827	-38
한국기술교육대	210	230	-20
한국산업기술대	268	150	118
한국외대	489	493	-4
한국항공대	153	166	-13
한양대(서울)	216	376	-160
한양대(ERICA)	373	387	-14
홍익대	383	397	-14
합계	11,162	12,146	-984

※각 대학의 모집 인원은 2021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 참조



## 2) 전년도 대비 2021학년도 대학별 논술전형 모집 인원 변화

2021학년도 논술전형에서 모집인원이 증가한 대학은 2개교이다. 한국산업기술대는 2020학년도 150명에서 268명으로 118명이 증가하고, 연세대(원주)는 314명에서 384명으로 70명이 증가하였다. 논술 선발인원에 변화가 없는 8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모두 지난해보다 선발규모가 축소되었다. 모집인원이 가장 많이 감소된 대학은 연세대(서울)로 345명이 감소하였고 그 다음으로 감소된 대학은 한양대(서울, 160명), 부산대(146명), 성신여대(102명)로 모집인원의 감소 규모가 큰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지원학과의 모집인원 변화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증가 대학(증가 인원)	유지 대학	감소 대학(감소 인원)
연세대(원주)(70), 한국산업기술대(118)	가톨릭대, 경기대, 광운대,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울산대,	건국대(6), 경북대(21), 경희대(30), 단국대(10), 덕성여대(67), 동국대(18), 부산대(146), 서울과기대(4), 서울시립대(41), 성신여대(102), 세종대(10), 송실대(4), 아주대(9), 연세대(서울)(345), 이화여대(64), 인하대(32), 중앙대(38), 한국기술교대(20), 한국외대(4), 한국항공대(13), 한양대(160), 한양대(에리카)(14), 홍익대(14)

## 다. 대학별 논술전형 방법

논술전형은 대부분 논술과 학생부 성적을 반영해 선발한다. 2019학년도부터 연세대는 논술100%로 선발 방법을 변경하였다. 2020학년도 논술에서는 건국대가 논술 100%로 선발방식을 변경하면서 수능 최저기준을 도입하였다. 서울시립대는 1단계에서 논술100%, 2단계에서 논술60%+교과40%로 선발한다. 교과 반영비율이 지난해와 달라진 대학은 서울과학기술대, 세종대, 숙명여대, 한양대 등이다. 교과반영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논술전형의 합격은 대부분 논술실력에 의해 결정되며 학생부 성적의 실제 변별력은 낮다. 그 이유는 대학이 설정한 학생부의 교과등급 간 점수 차가 작고 교과점수에 기본점수를 주는 대학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학생부 교과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큰 대학도 있지만 논술전형에서는 논술의 영향력이 학생부보다 크다는 점이 내신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참고할 부분이다. 논술전형은 논술 시험이 합격 당락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다만, 논술 문항출제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대비가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수능최저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대학은 논술 시험에서 출제자의 출제의도에 맞는 답안작성이 중요하며, 수능최저기준이 설정된 대학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합격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 1) 2021학년도 논술전형 실시 대학 및 선발 방법

대학명	전형명	모집인원	선발방법	수능 최저
가톨릭대	논술	175	논술70+교과30	X(의예,간호○)
건국대(서울)	KU논술우수자	445	논술100	○
경기대(수원)	논술고사우수자	172	논술60+교과40	X
경북대	논술(AAT)	772	논술70+교과30	○
경희대	논술우수자	684	논술70+교과30	○

대학명	전형명	모집인원	선발방법	수능 최저
광운대	논술우수자	206	논술70+교과30	X
단국대(죽전)	논술우수자	340	논술60+교과40	X
덕성여대	논술	232	논술80+교과20	O
동국대	논술우수자	452	논술60+교과40	O
부산대	논술	533	논술70+교과30	O
서강대	논술	235	논술80+교과20	O
서울과기대	논술위주	266	논술70+교과30	X
서울시립대	논술	101	논술60+교과40	X
서울여대	논술우수자	150	논술70+교과30	O
성균관대	논술우수	532	논술60+교과40	O
성신여대	논술우수자	186	논술70+교과30	O
세종대	논술우수자	338	논술70+교과30	O
숙명여대	논술우수자	300	논술70+교과30	O
송실대	논술우수자	292	논술60+교과40	O
아주대	논술우수자	203	논술80+교과20	X(의학○)
연세대(원주)	일반논술	384	논술70+교과30	O
연세대(서울)	논술	262	논술100	X
울산대	논술(의예과)	12	논술60+교과40	O
이화여대	논술	479	논술70+교과30	O
인하대	논술우수자	530	논술70+교과30	X(의예○)
중앙대	논술	789	논술60+교과40	O
한국기술교대	코리아텍일반	210	논술60+교과40	O
한국산업기술대	일반(논술)	268	논술60+교과40	X
한국외대	논술	489	논술70+교과30	O(글로벌X)
한국항공대	논술우수자	153	논술70+교과30	X
한양대(서울)	논술	216	논술80+교과20	X
한양대(에리카)	논술	373	논술70+교과30	O
홍익대(서울)	논술	383	논술60+교과40	O

## 2) 전년도 대비 2021학년도 논술 반영 비율 비교

논술전형의 모집 인원은 감소된 반면, 논술 반영 비율을 늘린 대학은 늘어, 논술고사의 영향력이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양대, 광운대, 세종대는 전년도보다 논술 반영 비율을 각각 10%씩 확대 했다. 반면에 시립대는 단계별 전형을 폐지하고 일괄합산 전형으로 논술 반영 비율을 100%에서 60%로 축소하여 선발한다.



반영 비율	2021학년도 (현 고3)	2020학년도
100%	연세대(서울), 건국대	연세대(서울), 건국대 서울시립대(1단계)
80%	덕성여대, 서강대, 아주대, 한양대	덕성여대, 서강대, 아주대
70%	가톨릭대, 광운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세종대, 연세대(원주), 이화여대, 인하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양대(에리카)	가톨릭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연세대(원주), 이화여대, 인하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양대(서울/에리카)
60%	경기대, 단국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송실대, 울산대(의예), 중앙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산업기술대, 홍익대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동국대, 서울시립대(2단계),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송실대, 울산대(의예), 중앙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산업기술대, 홍익대

## 라. 대학별 논술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논술전형은 서울시립대, 연세대, 한양대 등 몇개의 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학들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최근 연세대는 수능최저기준을 폐지한 반면, 건국대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였다. 사실상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그 용어와는 반대로 최저라고 보기 어렵다.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하는 학생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논술전형의 높은 경쟁률 또한 최저 충족 이후의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서강대의 경우, 전체 지원자 대비 실질평가 대상자는 31~32%에 불과했다. 중앙대의 경우 지원경쟁률이 평균 66:1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한 실질경쟁률은 22:1로 내려갔다. 하지만 이를 바깥 말하면,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논술전형 합격이 상대적으로 쉬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대학마다 다르므로, 목표 대학에 맞는 수능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면 합격률을 몇 배로 향상시킬 수 있다.

### 1) 2021 논술전형 수능최저 없는 대학

구분	대학명
인문	가톨릭대(간호 제외),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외대(글로벌), 한국항공대, 한양대(서울)
자연	가톨릭대(의예, 간호 제외),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아주대(의예 제외), 인하대(의예 제외), 한국기술교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글로벌), 한국항공대, 한양대(서울)

## 2) 2021 논술전형 수능최저 적용 대학

〈2021학년도 주요 대학 논술전형 수능 최저등급〉

대학명	수능 최저 등급	
	인문	자연
가톨릭대	(간호) 국, 수(나), 영, 사탐(1) 중 3개 등급 합 6	(간호) 국, 수(가), 영, 과탐(1) 중 3개 합 6등급 (의예) 국, 수(가), 영, 과탐(2) 중 3개 합 4등급, 한국사 4등급
건국대	국, 수(가/나), 영, 탐(사/과)(1) 중 2개 등급 합 4, 한국사 5등급	국, 수(가), 영, 과탐(1) 중 2개 등급 합 5, 한국사 5등급 (수의예) 국, 수(가), 영, 과탐(1) 중 3개 등급 합 4, 한국사 5등급
경희대	국, 수(가/나), 영, 탐(사/과)(1) 중 2개 등급 합 4, 한국사 5등급	국, 수(가), 영, 과탐(1) 중 2개 등급 합 5, 한국사 5등급
덕성여대	국, 수(가/나), 영, 탐(사/과)(1) 중 2개 등급 합 7	국, 수(가/나), 영, 탐(사/과)(1) 중 2개 등급 합 7 ※ 수(가) 포함 시 2개 등급 합 8
동국대	국, 수(가/나), 영, 탐(사/과)(1) 중 2개 등급 합 4, 한국사 4등급 (경찰행정) 국, 수(가/나), 영 중 2개 등급 합 4, 한국사 4등급	국, 수(가), 영, 과탐(1) 중 2개 등급 합 5, 한국사 4등급 ※ 수(가) 또는 과탐 1개 이상 포함 (경찰행정) 국, 수(가/나), 영 중 2개 등급 합 4, 한국사 4등급
서강대	국, 수(가/나), 영, 탐(사/과)(1) 중 3개 등급 합 6, 한국사 4등급	국, 수(가/나), 영, 탐(사/과)(1) 중 3개 등급 합 6, 한국사 4등급
서울여대	국, 수(가/나), 영, 사/과탐(1) 중 2개 합 7등급 (각 4등급 이내) ※ 영어 포함 시 2개 합 5등급	국, 수(가/나), 영, 사/과탐(1) 중 2개 합 7등급 (각 4등급 이내) ※ 영어 포함 시 2개 합 5등급
성균관대	국, 수(가/나), 탐(사/과)(2) 중 2개 등급 합 4, 영어 2등급, 한국사 4등급(글로벌경영/경 제/리더) 국, 수(가/나), 탐(사/과)(2) 중 2개 등급 합 3, 영어 2등급, 한국사 4등급 ※ 제2외국어/한문을 탐구 1과목 대체 가능	국, 수(가), 과탐(2) 중 2개 등급 합 4, 영어 2등급, 한국사 4등급 (반도체시스템/소프트웨어/글로벌바이오메디 컬공학) 수(가), 과탐(1) 중 2개 등급 합 3, 영어 2 등급, 한국사 4등급
성신여대	국, 수(가/나), 영, 탐(사/과)(1) 중 2개 등급 합 6 ※ 영어 포함 시 2개 등급 합 5	국, 수(가/나), 영, 탐(사/과)(1) 중 2개 등급 합 7 ※ 영어 포함 시 2개 등급 합 5
세종대	국, 수(나), 영, 사탐(1) 중 2개 등급 합 4	국, 수(가), 영, 과탐(1) 중 2개 등급 합 5
숙명여대	국, 수(가/나), 영, 탐(사/과)(1) 중 2개 등급 합 4	국, 수(가), 영, 과탐(1) 중 2개 등급 합 4
송실대	국, 수(나), 영, 탐(사/과)(2) 중 2개 등급 합 6	국, 수(가), 영, 과탐(2) 중 2개 등급 합 7





대학명	수능 최저 등급	
	인문	자연
아주대		(의학) 국, 수(가), 영, 과탐(2) 중 4개 등급 합 5
울산대		(의예) 국, 수(가), 영, 과탐(2) 4개 등급 합 5, 한국사 4등급
이화여대	국, 수(나), 영, 탐(사/과)(2) 중 3개 등급 합 6 (스크랜튼) 국, 수(나), 영, 탐(사/과)(2) 중 3개 등급 합 5	국, 수(가), 영, 과탐(2) 중 3개 등급 합 6 (의예) 국, 수(가), 영, 과탐(2) 중 4개 등급 합 5 (스크랜튼) 국, 수(가), 영, 과탐(2) 중 3개 등급 합 5
인하대		(의예) 국, 수(가), 영, 과탐(2) 중 3개 영역 각 1 등급
중앙대	국, 수(가/나), 영, 탐(사/과)(2) 중 3개 등급 합 6, 한국사 4등급	(서울) 국, 수(가), 영, 과탐(1) 중 3개 등급 합 6, 한국사 4등급 (안성) 국, 수(가), 영, 과탐(1) 중 2개 등급 합 5, 한국사 4등급 (의학) 국, 수(가), 영, 과탐(2) 중 4개 등급 합 5, 한국사 4등급
한국외대	국, 수(가/나), 영, 탐(사/과)(1) 중 2개 등급 합 4, 한국사 4등급 (LD/LT 학부) 국, 수(가/나), 영, 탐(사/과)(1) 중 2개 등급 합 3, 한국사 4등급	
한양대 (에리카)	국, 수(가/나), 영, 탐(사/과)(1) 중 2개 등급 합 6	국, 수(가), 영, 탐(사/과)(1) 중 2개 등급 합 6
홍익대	국, 수(가/나), 영, 탐(사/과)(1) 중 3개 등급 합 7, 한국사 4등급	국, 수(가), 영, 과탐(1) 중 3개 등급 합 8, 한국사 4등급
경북대	(경상, 사범, 수의, 행정) 국, 수, 영, 탐 중 3개 등급 합 6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과, 농업, 생활과학, 간호, IT, 자율) 국, 수, 영, 탐 중 3개 등급 합 8, 한국사 4등급	(의예, 치의예) 국, 수, 영, 탐 4개 등급 합 5, 한국사 4등급 (전자공학, 모바일공학) 수(가), 과탐 2개 등급 합 3
부산대	(경상, 경제통상) 국, 수(가/나), 영, 탐(사/과)(2) 중 3개 등급 합 6, 한국사 4등급 (인문, 사과, 사범, 예술) 국, 수(가/나), 영, 탐(사/과)(2) 중 3개 등급 합 7, 한국사 4등급	(자연과학, 공과, 사범, 간호, 나노과학) 국, 수(가), 영, 과탐(2) 중 수(가) 포함 2개 등급 합 5, 한국사 4 (생활환경) 국, 수(가/나), 영, 과탐(2) 중 2개 등급 합 6, 한국사 4등급

## 마. 대학별 논술 출제 유형

논술고사는 자신에게 유리한 논술 출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논술고사 출제 방침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는 것이지만, 대학에 따라 세부적인 출제 경향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2020학년도를 기준으로 인문계를 예로 들면, 중앙대 경영경제, 한양대 상경계열 모집단위는 일반적인 인문계 논술 외에도 수학이 출제된다. 또, 이화여대는 영어 제시문이 출제되어 학생들의 영어 독해력이 필요하기도 하다. 자연계의 경우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등의 대학은 수학만 출제되며 성균관대, 중앙대 등은 수학과 과학이 선택형으로 함께 출제된다.

자연계열 논술은 수능 고난도문항에 주관식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 수학에서 강점을 보인다면 자연계열 논술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또한 수학은 모든 대학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수학 우수자는 일단 논술전형의 지원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다. 대학에 따라 과학 문항이 출제되기도 하는데 이때, 과학 점수가 높고 서술형으로 풀어 낼 능력이 있다면 대학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인문계열은 수능 국어와 같이 지문 및 자료를 독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기에 수능 국어에서 강점을 보이면 유리하다.

논술 준비의 기본자세는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탑재된 선행학습 영향평가보고서, 논술 동영상, 논술 평가 가이드북(논술백서) 등을 참고하여 반복학습하면서 문제유형과 유의사항을 익히는 것이다. 또한 대학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반복학습하고, 대학별 모의논술 시험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 바. 대학별 논술 문제 예시

아래는 2019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에서 출제된 실제 논술문제의 예시이다.

2019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인문계열)
<p><b>제시문 (가)</b></p> <p>생명유지, 영양섭취, 감각적 지각 등과 같은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하는 활동이다. 하지만 이성의 발휘는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이다. 따라서 이성을 잘 발휘하는 삶을 통해 인간은 궁극적 목적인 최선, 즉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행복은 이성에서 나오는 삶을 통해 덕을 쌓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 도덕적인 사람은 이성을 통해 어떤 행동이 좋은가를 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이를 실천에 옮겨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인간은 옳은 행위를 함으로써 옳은 사람이 되고, 용감한 행위를 함으로써 용감해진다. 하지만 한 번의 실천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유덕한 행위가 습관화될 때 덕이 쌓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덕은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느끼는 것이 중용이자 최선이고, 이것이 덕의 특징이다. 과도함과 부족함은 악덕의 특징이요, 양 극단 사이에서 적절함을 선택하는 중용이야말로 덕이 갖는 특징이다. 이 때의 적절함이란 1과 5 사이의 중간이 3인 것처럼 산술적인 중간이 아니다. 사람에 따라,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중용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적절함에 대한 오랜 경험과 훈련, 그리고 꾸준한 배움을 통해 중용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 도덕적인 삶은 중용을 찾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 예컨대, 어린 아이는 올바른 행동을 정확하게 몰라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 잘못된 행동은 무지가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성인들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임을 알면서도 잘못</p>



된 행동을 할 때는 무지가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자제력 없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자제력 없는 사람이란 흡연이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흡연을 지속하는 것처럼, 스스로 최선이라고 이성적 판단을 내린 것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자제력이 있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따져서 해아린 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인데 반해,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따져서 해아린 것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자제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이성 때문에 그 욕구를 따르지 않지만,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행위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정 때문에 그것을 한다. 자제력 없음은 악덕에 속하는 무절제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다. 우선 둘 다 육체적인 욕구와 쾌락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쾌락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사람, 그것도 쾌락 자체만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무절제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며 또 후회할 줄도 모른다. 후회할 줄 모르는 자를 고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확고한 결정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반면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올바른 이치에 어긋나는 육체적 쾌락을 추구할 정도로 감정에 지배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쾌락을 무한정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정도까지는 지배당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자제력 없는 사람은 마음을 돌리도록 설득하기가 쉽지만 무절제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무절제한 사람과 달리 자제력 없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자신의 욕망에 굴복하여 자신의 행위가 그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그른 행위를 하는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면 이성과 더불어 중용을 실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 제시문 (나)

### 〈실험 1〉

한 심리학자가 ‘행복한 쥐 공원’이라는 실험을 했다. 16마리의 쥐들은 실험실에 있는 각각 격리된 작은 우리 속에 가두고, 다른 16마리의 쥐들은 ‘행복한 쥐 공원’이라고 하는 거주지에 넣어 두었다. 공원의 넓이는 18 제곱미터가 넘었고, 온도는 쾌적했으며, 공원 내부에는 즐길 수 있는 놀이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쥐들은 공원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었다. 우리 속의 쥐들과 쥐 공원의 쥐들에게 동일하게 중독물질인 모르핀을 탄 물과 일반적인 물을 선택하게 하자, 우리 속의 쥐들은 초기부터 모르핀을 탄 물을 마시며 중독되었지만, 쥐 공원에 있던 쥐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물을 선택했다. 또 이미 실험실에서 모르핀에 중독된 쥐들도 쥐 공원으로 옮겨주자, 금단증상을 겪으면서도 모르핀이 든 물을 선택하지 않았다.

### 〈실험 2〉

영상 의학 기술이 크게 발달하면서 중독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해졌다. 한 연구진은 중독이 어떻게 유전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다. 우선 약물로 중독된 50명과 그들의 형제자매 중 전혀 약물로 중독된 경험이 없는 50명을 선정했다. 중독자와 중독되지 않은 그들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50쌍이 실험에 참여한 것이다. 또 비교를 위해 약물로 중독된 경험이 없는 일반인 50명도 실험에 참여했다. 연구진은 먼저 실험 참여자들의 자기 조절 능력을 평가하여 점수를 매겼다. 일반인 50명과 비교해 중독자들은 당연히 점수가 낮았지만, 그들의 형제자매들도 대부분 이 평가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뇌 영상 촬영 결과에서도 중독자와 그들의 형제자매는 모두 자기 조절, 쾌락과 보상, 습관 형성 등과 관련된 특정 뇌 영역에서 일반인 50명과 매우 다른 특징들이 발견되었다. 이를 근거로 연구진은 약물 중독자들의 뇌에서 발견되는 문제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특성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이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중독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적용할 요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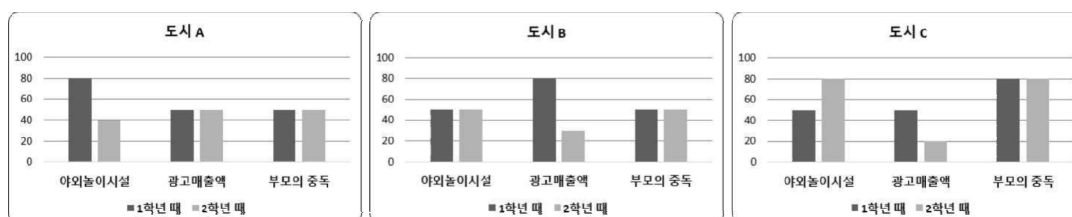
## 제시문 (다)

우리는 과잉 소비의 시대를 살고 있다.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세상을 파악하게 되었다. 포장된 쾌락이 이런 새로운 세계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대량생산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람들에게 더 강렬한 감각을 제공하는 식품과 기호품이 병, 캔, 상자에 담겨 포장되었고, 소리와 경치, 환상까지도 포장되었다. 인간이 전통적으로 경험해온 청각, 시각, 미각, 그리고 더 나아가 동작과 환각까지 끌어 모으고 압축하고 저장해서 판매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포장된 쾌락의 혁명이다. 이 혁명은 새로운 발명을 통해 기존의 감각을 조합하고 변형시켜 새로운 감각을 만들었다. 쾌락 제조자들은 질리고 지루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각의 강도를 계속 높여왔다. 이것은 업계의 경쟁에서 이기는 데에도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강렬함은 더 큰 강렬함을 낳았다. 삶의 지루한 부분을 견뎌야 할 필요도 없어졌다. 포장된 쾌락은 전례 없는 건강상의 위험과 도덕적인 위기도 야기했다. 극단적인 사례로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성분이 강화되면서 중독의 문제를 일으켰다. 예를 들어 인간 문명의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인공물인 담배는, 20세기 들어와 생산이 기계화되고 광고와 마케팅 전략을 통해 대량 판매되면서 중독적인 과잉 소비로 이어졌다. 담배 중독이 늘어난 데에는, 제조업체가 정교하게 첨가하는 화학 물질만이 아니라 마케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제조업체는 담뱃갑에 그려진 디자인과 문구를 다양하게 만들어 상품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광고회사는 이 이미지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대중적으로 확산시켰다. 욕망의 만족이 증가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좋은 삶에 대한 인간 본연의 추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 과도한 욕망의 문제가 중용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중용만을 강조하다 보면 문제를 지나치게 개인적인 수준으로 치환해버리게 된다.

## 제시문 (라)

전국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야외놀이시설 보급 정도, 광고매출액, 해당 학생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조사했다. 동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년과 2학년 때 두 차례 조사를 실시했다. 각 요인들과 스마트폰 중독 정도의 측정값은 0에서 100 사이로 조정했고, 전국 평균값은 두 차례 모두 50이었다. 아래의 표와 그래프는 <도시 A>, <도시 B>, <도시 C>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다. 표와 그래프의 모든 수치는 조정된 측정값의 평균을 보여준다. 스마트폰 중독은 세 가지 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세 가지 요인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스마트폰 중독 정도			
	도시 A	도시 B	도시 C	전국
1학년 때	30	80	80	50
2학년 때	80	20	80	50





### 〈문제1〉

제시문 (가), (나), (다)는 중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중독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관점들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 〈문제 2〉

제시문 (나), (다)에 근거하여 제시문 (라)에 관한 다음 물음들에 답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1:** 〈도시 A〉, 〈도시 B〉, 〈도시 C〉 각각에서 1학년 때의 스마트폰 중독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제시문 (나), (다)에 나타난 관점들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

**문제 2-2:** 1학년에 2학년이 되면서 나타난 변화를 바탕으로 〈도시 A〉, 〈도시 B〉, 〈도시 C〉 각각에서 어떠한 요인이 스마트폰 중독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절한지 서술하시오.

## 2019학년도 한양대학교 논술전형 (자연계열 - 오전)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가〉 매개변수  $t$ 로 나타낸 곡선

$$x(t) = A \sin t, \quad y(t) = B \cos(2t + \theta)$$

가 있다. (단,  $A, B$ 는 양수,  $\theta$ 는 실수이다.)

〈나〉 매개변수  $t$ 로 나타낸 곡선

$$x(t) = \sin t, \quad y(t) = \frac{1}{\sqrt{2}} \cos t$$

가 있다.

1.  $A=2, B=3, \theta=0$ 일 때 제시문 〈가〉의 곡선이  $x$ 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F, F'$ 이라 하고,  $y$ 축과 만나는 점을  $P$ 라 하자. 점  $P$ 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Q$ 라 하자.  
두 초점이  $F, F'$ 이고 선분  $PQ$ 가 단축인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2.  $A=1, B=3, \frac{3\pi}{4} < \theta < \pi$ 일 때, 제시문 〈가〉의 곡선이  $x$ 축,  $y$ 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R, S$ 라 하자.  
이 곡선에서  $y$ 좌표가 최소가 되는 점을  $T$ , 점  $T$ 를  $y$ 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U$ 라 하자.  
 $\overrightarrow{RU} \cdot \overrightarrow{ST}$ 를  $f(\theta)$ 라 할 때,  $\theta = \frac{5\pi}{6}$ 에서의 미분계수  $f'(\frac{5\pi}{6})$ 를 구하시오. (단,  $0 \leq t \leq \frac{3\pi}{8}$ 이다.)
3. 점  $P$ 에서 제시문 〈나〉의 곡선에 그은 접선이 두 개이고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이러한 점  $P$ 의 자취가 어떤 곡선인지 설명하시오.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가> 공간벡터  $\vec{a}, \vec{b}$ 와 양수  $s, t$ 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한다.

$$s^2 = 1 + |\vec{a}|^2, \quad t^2 = 1 + |\vec{b}|^2$$

(단,  $|\vec{a}|$ 는 벡터  $\vec{a}$ 의 크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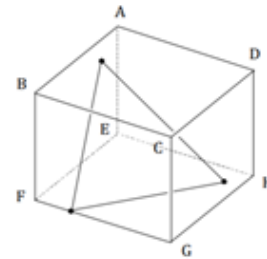
<나> 함수  $f(x) = ||x-3|-3|$ 이고,  $f^n = f \circ \dots \circ f$ 는 함수  $f$ 를  $n$ 개 합성한 함수를 나타낸다.

<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밑면으로 하고, 높이가  $\sqrt{3}-1$ 인

직육면체 ABCD-EFGH 안에 삼각형  $T$ 가 놓여 있다.

$T$ 의 한 꼭짓점은 면 ABCD에, 다른 두 꼭짓점은

면 EFGH에 있다.



1. 제시문 <가>에서 주어진 양수  $s, t$ 에 대하여 이차방정식  $x^2 - 2(st - \vec{a} \cdot \vec{b})x + 1 = 0$ 의 실근을  $\alpha, \beta$  (단,  $\beta \leq \alpha$ )라고 할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beta \leq \frac{s}{t} \leq \alpha, \quad \beta \leq \frac{t}{s} \leq \alpha$$

2. 제시문 <나>에서 주어진 함수  $f(x)$ 와 자연수  $n$ 에 대하여

평면도형  $A_n = \{(x, y) \mid f^n(\sqrt{x^2 + y^2} - 3n) \leq 1\}$ 의 넓이를  $S_n$ 이라 할 때, 극한값  $\lim_{n \rightarrow \infty} \frac{S_n}{n^2}$ 을 구하시오.

3. 제시문 <다>에서 주어진 삼각형  $T$ 의 면 EFGH 위로의 정사영을  $S$ 라 할 때,

$S$ 는 면 EFGH에 있는 정삼각형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정삼각형이다.

이러한 삼각형  $T$ 의 개수를 구하고 각각의 넓이를 구하시오.

## 3.5 적성전형의 이해

적성전형은 전형 분류상 학생부교과전형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합격가능성에 있어 교과보다는 적성고사의 영향력이 더 큰 전형이다.

적성전형은 2020학년도 대입에서 4,789명을 모집했는데 2021학년도에는 4,485명 모집으로 304명이 감소되었다. 적성고사는 2022 대입부터는 폐지될 예정이다.

대학 수	모집인원(명)	대학 수	모집인원(명)	인원(명)
11개교	4,485명	12개교	4,789명	304

2021 대입에서 적성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홍익대(세종)가 폐지되어 11개교이다. 을지대는 사회기여 및 배려대상자 전형과 특성화고교 졸업자전형에서 적성고사를 폐지하였다. 작년에 비해 모집인원이 증가한 대학은 한신대 적성우수자(51명)와 가천대 적성우수자(16명), 서경대 일반학생①(6명), 평택대 PTU 적성전형(1명) 등이다. 반면 모집인원이 감소한 대학은 한국산업기술대 적성우수자전형(100명), 고려대(세종) 학업능력고사전형(30명), 을지대 교과적성우수자(12명), 삼육대 교과성적우수자(4명) 등이다.

### 가. 지역별 적성고사 실시 대학

2021학년도(현 고3)		2020학년도	
지역	대학	지역	대학
서울(3개교)	삼육대, 서경대, 한성대	서울(3개교)	삼육대, 서경대, 한성대
경기(7개교)	가천대, 성결대, 수원대, 을지대(성남, 의정부), 평택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신대	경기(7개교)	가천대, 성결대, 수원대, 을지대(성남, 의정부), 평택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신대
세종(1개교)	고려대(세종)	세종(2개교)	고려대(세종), 홍익대(세종)
합계	11개교	합계	12개교

※2021학년도 홍익대(세종) 적성고사 폐지

## 나. 2021 적성전형 모집인원

대학명	2021학년도(현 고3)		2020학년도		증감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명	모집인원	
가천대	적성우수자	1,031	적성우수자	1,015	16
	농어촌(적성)	59	농어촌(적성)	59	0
고려대(세종)	학업능력고사전형	400	학업능력고사전형	430	-30
삼육대	교과적성우수자	234	교과성적우수자	238	-4
서경대	일반학생①전형	327	일반학생①	321	6
	농어촌학생(정원외)	50	농어촌학생(정원외)	50	0
성결대	적성우수자전형	283	적성우수자	283	0
수원대	적성일반전형	550	일반전형(적성)	550	0
	사회배려대상자전형	30	사회배려대상자전형	30	0
	국가보훈대상자전형	16	국가보훈대상자전형	16	0
을지대	교과적성우수자	341	교과적성우수자	353	-12
	사회기여 및 배려대상자	0	사회기여 및 배려 상자	53	-53
	특성화고교 졸업자	0	특성화고교 졸업자	7	-7
평택대	PTU적성	178	PTU적성	177	1
한국산업기술대	적성우수자	200	일반전형(적성)	300	-100
	농어촌학생	55	농어촌학생	55	0
한성대	적성우수자전형	380	적성우수자	380	0
한신대	적성우수자	355	일반전형	304	51
홍익대(세종)		0	학생부적성전형	168	-168
합계		4,485	합계	4,789	-304



## 다. 2021학년도 적성전형 실시 주요대학 전형방법

대학명	전형명	모집 인원	반영비율(%)		문항수			시간 (분)	수능 최저
			학생부	적성	국어	수학	영어		
가천대	적성우수자	1,031	60	40	20	20	10	60	X
고려대 (세종)	학업능력고사	400	60	40	(인)20		(인)20	80	O
						(자)20	(자)20		
삼육대	교과성적우수자	234	60	40	30	30		60	X
서경대	일반학생①	327	60	40	30	30		60	X
성결대	적성우수자	283	60	40	25	25		60	X
수원대	일반(적성)	550	58.8	41.2	30	30		60	X
울지대	교과적성우수자	341	60	40	15	20	15	60	X
평택대	PTU적성	178	60	40	25	25		60	X
한국산업 기술대	적성우수자(적성)	200	60	40	25	25		70	X
한성대	적성우수자	380	60	40	30	30		60	X
한신대	적성우수자	355	60	40	30	30		60	X

### 1) 고려대(세종) 학업능력고사전형의 수능최저

대학명	전형명	수능최저
고려대(세종)	학업능력고사	(인문/체능) 국수탐(2) 중 1개 3등급 이내 또는 영어 2등급 이내 (자연) 국수과탐(2) 중 1개 3등급 이내 또는 영어 2등급 이내 ※ 자연계 모집단위 중 경제통계학부(자연), 자유공학부는 사탐도 인정 ※※ 데이터계산과학전공, 사이버보안전공, 디스플레이융합전공, 반도체 물리전공, 신소재화학과, 전자기계융합공학과는 수학 (가)만 인정. 공통 : 탐구영역은 2개 과목 평균등급으로 반영

적성전형은 비교적 다른 전형에 경쟁력이 약한, 내신과 수능이 3~5등급대의 수험생이 수시에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적성고사의 출제 난도는 수능의 70%~80%수준으로 수능보다 약간 쉬운 형태이다. 교과서와 EBS 연계교재를 토대로 수능 출제유형과 유사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능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준비가 가능하다. 고려대 세종캠퍼스 인문계열을 빼고는 모두 수학이 필수이다. 따라서 수학에 어느정도 경쟁력이 있는 수험생이라면 적성전형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가 출제되는 대학은 가천대, 울지대, 고려대(세종)이 있고, 고려대(세종) 자연계열은 국어가 출제되지 않는다. 적성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에 포함되어있어 명목상 학생부 반영비율이 60%라고 해도, 실질반영비율은 10%미만이다. 따라서 내신 3등급에서 4등급 간 점수 차이는 적성문항 0.75개에서 3개 정도를 더 맞추면 극복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성고사 준비를 충실히 한다면 내신의 불리함을 만회할 수 있다. 적성고사를 치르는 대학 중 수능최저가 있는 대학은 고려대 세종캠퍼스가 유일하다. 고려대 세종 수능최저등급은 (인문/체능)국수탐(2) 중 1개 3등급 또는 영어 2등급, (자연)국수과탐(2) 중 1개 3등급 또는 영어 2등급이다. 단, 경제통계학부(자연), 자유공학부는 사탐도 인정된다. 이 외 대학은 모두 수능최저가 없으므로 적성고사에 의해 당락이 결정된다.

## 3.6 지역인재전형의 이해

지역인재전형은 2020학년도 대입에서 16,127명을 모집했는데, 2021학년도에는 18,407명 모집으로 2,280명이 증가하였다.

2021학년도			2020학년도			증감
대학 수	모집인원(명)	비율(%)	대학 수	모집 인원(명)	비율(%)	인원(명)
86개교	18,407	4.8	83개교	16,127	4.6	▲2,280

지역인재전형이란 지방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지역 고교출신자 중에서 선발하는 전형이다. 특히 의대나 치대, 한의대, 간호대 정원의 일부를 해당 지역 고교출신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주목적인 전형이다. 이들 대학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수한 자원이 많은 수도권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은 편인데, 졸업 후에 다시 출신 지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지역 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여 만들어진 전형이다. 그러나 현재는 의치한 뿐만 아니라 전체 학과로 선발을 확대하는 경향이다.

이 전형은 대학별로 지원가능한 지역이 제한되어 있어 일반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강원 지역 대학은 강원 지역 소재 고등학교만, 대구와 경북지역에 있는 대학에는 대구와 경북 소재 고등학교만 지원이 가능하다. 건국대 글로벌캠퍼스는 충남과 충북지역 소재 고등학교만 지원이 가능하며, 대전이나 세종시 소재 고등학교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전남대는 광주와 전남 및 전북 지역 소재 고등학생이 모두 지원가능하나, 전북대는 전북지역 고교만 지원이 가능하다.

선호도가 높은 의학계열의 경우 지역인재전형의 선발인원이 많은 편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경쟁률이 낮은 경우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인재전형은 대부분 대학이 수시에서 선발한다. 수시모집에서 지역인재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편이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능최저등급 충족을 위한 공부도 병행해야 한다.



## 가. 2021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대학	권역	수시	정시	합계	의·치·한·간
가톨릭관동대	강원권	274		274	33
강릉원주대	강원권	490		490	19
강원대	강원권	823		823	27
건국대(글로벌)	충청권	46		46	2
건양대	충청권	204		204	75
경동대	강원권	69		69	20
경북대	대구경북권	313		313	98
경상대	부산울산경남권	299	17	316	44
경운대	대구경북권	167		167	35
경일대	대구경북권	108		108	15
경주대	대구경북권	23		23	3
계명대	대구경북권	1,066		1,066	69
고려대(세종)	충청권	40		40	
고신대	부산울산경남권	40		40	40
공주교대	충청권	70		70	
공주대	충청권	260		260	20
광주교대	호남권	80		80	
광주대	호남권	643		643	10
광주여대	호남권	31		31	3
군산대	호남권	197		197	12
금오공대	대구경북권	151		151	
김천대	대구경북권	20		20	10
나사렛대	충청권	48		48	3
남서울대	충청권	140		140	2
대구가톨릭대	대구경북권	410		410	46
대구교대	대구경북권	120		120	
대구대	대구경북권	758		758	12
대구한의대	대구경북권	124		124	25
대전대	충청권	194	8	202	16
동국대(경주)	대구경북권	27		27	27
동신대	호남권	65		65	40

대학	권역	수시	정시	합계	의·치·한·간
동아대	부산울산경남권	30	10	40	40
동양대	대구경북권	6		6	4
동의대	부산울산경남권	252		252	18
목원대	충청권	190		190	
목포가톨릭대	호남권	8		8	8
목포대	호남권	74		74	6
목포해양대	호남권	54		54	
배재대	충청권	143		143	5
백석대	충청권	234	54	288	20
부경대	부산울산경남권	100		100	
부산가톨릭대	부산울산경남권	108		108	11
부산교대	부산울산경남권	119		119	
부산대	부산울산경남권	254		254	99
상지대	강원권	100		100	14
서원대	충청권	45		45	
선문대	충청권	336		336	17
세명대	충청권	112		112	39
순천대	호남권	361		361	13
순천향대	충청권	284		284	43
안동대	대구경북권	279		279	8
연세대(원주)	강원권	60		60	22
영남대	대구경북권	25		25	25
우석대	호남권	34		34	29
우송대	충청권	144		144	5
울산대	부산울산경남권	4		4	4
원광대	호남권	200		200	145
을지대	충청권	12		12	12
인제대	부산울산경남권	28		28	28
전남대	호남권	811	18	829	94
전북대	호남권	233	29	262	123
전주교대	호남권	28		28	
제주대	제주권	273	6	279	34



대학	권역	수시	정시	합계	의·치·한·간
조선대	호남권	453	30	483	81
중부대	충청권	54		54	5
중원대	충청권	32		32	9
진주교대	부산울산경남권	105		105	
창원대	부산울산경남권	278		278	6
청운대	충청권	49		49	3
청주교대	충청권	60		60	
청주대	충청권	145		145	5
초당대	호남권	40		40	30
춘천교대	강원권	72	20	92	
충남대	충청권	493	33	526	76
충북대	충청권	263	13	276	35
한국교통대	충청권	52		52	4
한국기술교대	충청권	92		92	
한국해양대	부산울산경남권	84		84	
한남대	충청권	915		915	17
한동대	대구경북권	60		60	
한라대	강원권	39		39	
한림대	강원권	183		183	16
한밭대	충청권	153		153	
한서대	충청권	105		105	10
호서대	충청권	308		308	6
호원대	호남권	12		12	6
합계		16,288	238	16,526	1,881

IV

2021학년도  
정시전형  
기본사항

## 2021학년도 정시전형 기본사항

### 4.1 정시모집의 이해

#### 가. 정시모집 일정 및 특징

##### 1) 정시모집 일정

정시 모집	원서접수		2020. 12. 26.(토) ~ 30.(수)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가군	2021. 1. 2.(토) ~ 10.(일) (9일)
		나군	2021. 1. 11.(월) ~ 19.(화) (9일)
		다군	2021. 1. 20.(수) ~ 28.(목) (9일)
	합격자 발표		2021. 2. 1.(월) 까지
	합격자 등록		2021. 2. 2.(화) ~ 4.(목)(3일)
	정시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 마감		2021. 2. 16.(화) (합격자 발표 21시까지)
	정시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2021. 2. 17.(수)

##### 2) 정시모집의 특징

정시모집의 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23%(전년도 22.7%)인 80,073명(전년도 79,090명)으로 모집 인원이 전년도보다 983명이 증가하였다. 수시 미등록으로 인한 정시 이월인원이 발행하게 되면 23%를 넘는 인원이 정시에서 선발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중앙대 380명, 이화여대 307명, 고려대 94명, 경희대 89명, 연세대 84명, 서울시립대 12명, 한양대 8명을 증원하여 선발한다.

〈최근 3년간 정시전형 모집인원 변화〉

구분	모집인원(명)	비율(%)
2021학년도	80,073	23.0
2020학년도	79,090	22.7
2019학년도	82,972	23.8

## 3) 정시 군별 모집대학 현황

(단위: 개교)

구분	정시모집		
	가군	나군	다군
2021학년도	139	138	122
2020학년도	138	138	121

## 4) 각 군별 모집대학 현황

구분	가	나	다	가/나	가/다	나/다	가/나/다
2021학년도	22	20	17	33	20	21	64
2020학년도	21	21	17	34	21	21	62

## 5) 각 군별 모집대학 명

분할 모집군	대학 수	대학명
가	22	경주대, 공주대, 광신대, 광주가톨릭대, 김천대, 대전가톨릭대, 목포가톨릭대, 부산장신대, 서강대, 서울대, 수원가톨릭대, 영남신학대, 이화여대, 제주국제대, 중원대, 창신대, 청운대, 총신대, 한국교원대, 한국체육대, 한세대, 호남신학대
나	20	감리교신학대, 경인교대, 고려대(서울), 공주교대, 광주교대, 꽃동네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연세대(서울), 장로회신학대, 전주교대, 중앙승가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한려대, 한일장신대, 호남대
다	17	가야대, 건국대(글로벌), 금강대, 대신대, 대전신학대, 루터대, 서울장신대, 서원대, 영산대, 영산선학대, 예수대, 침례신학대, 칼빈대, 한경대, 한국국제대, 한국성서대, 한동대
가/나	33	경북대, 경희대, 광주대, 광주여대, 금오공과대, 남부대, 덕성여대, 동국대(서울), 동서대, 동아대, 백석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세한대, 송원대, 숙명여대, 안동대, 연세대(원주), 예원예술대, 용인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한남대, 한양대(서울), 호원대
가/다	20	경상대, 계명대, 군산대, 나사렛대, 동국대(경주), 동신대, 목포대, 삼육대, 서울신학대, 서울한영대, 성결대, 순천대, 아주대, 유원대, 인제대, 인천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한성대, 한신대
나/다	21	가톨릭관동대, 경남과학기술대, 경운대, 고신대, 극동대, 대구가톨릭대, 동덕여대, 서울기독교대, 선문대, 성공회대, 세명대, 수원대, 순천향대, 신경대, 안양대, 위덕대, 인천가톨릭대, 제주대, 차의과학대, 케이씨대, 한라대
가/ 나/ 다	64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서울), 건양대, 경기대, 경남대, 경동대, 경성대, 경일대, 고려대(세종), 광운대, 국민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대, 대구예술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대진대, 동명대, 동양대, 동의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부경대, 부산외대, 상명대, 상지대, 서경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송실대, 신라대, 신한대, 영남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하대, 전주대, 중부대, 중앙대, 청주대, 초당대, 추계예술대, 평택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한양대(ERICA), 협성대, 호서대, 홍익대





### 정시 지원 전략

정시 지원은 수시와 다르게 각 군별로 1개씩 지원하여 최대 3개의 지원이 가능하다. 각 군별의 지원시기는 겹치지않고 연속적인 일정으로 짜여있다. 지원시기를 놓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시 지원시기에는 지원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는 가/나/다 세 군을 모두 포함하여 총 1개의 군에만 있다. (교차 지원을 받는 학과의 경우 다른 군에 같은 학과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을 원하는 학과 또는 학교가 같은 군에 있다면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각 군별로 원하는 학교와 학과를 선택할 때는 보통 4가지 유형의 지원 성격으로 분류한다. 지난 입시 결과와 비교하여 본인의 성적보다 높은 학교 또는 학과로 지원하는 상향 지원, 본인의 성적대보다 약간 높은 소신 지원, 본인 성적에 맞는 안정 지원, 본인 성적보다 낮은 곳으로 지원하는 하향 지원이 있다. 각 군별로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때, 이를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적절히 분배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6) 2021학년도 교대 및 초등교육과 정시 모집

전국의 교육대학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나군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초등교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선택의 폭이 작다. 다군에서 선발하던 제주대 초등교육도 2020학년도 정시부터 나군으로 이동하여 선발하기 때문에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와 한국교원대만 가군에서 선발하게 된다.

(단위 : 명)

대학명	가군	나군	다군
경인교대		251	
공주교대		169	
광주교대		118	
대구교대		167	
부산교대		136	
서울교대		157	
이화여대	15		
전주교대		192	
제주대		41	
진주교대		138	
청주교대		126	
춘천교대		147	
한국교원대	15		
합계	30	1,642	

## 7) 2021 주요 대학별 정시 모집 군별 모집 인원

대학명	수능			실기/실적		
	가	나	다	가	나	다
가천대	390	219	474	20		124
가톨릭대	240	54	190	45		
강원대	368	639	297	106	52	
건국대	430	645	96		20	
경기대		150	749	29	13	48
경북대	837	812		17		
경상대	606		171			
경희대	611	725		142	70	
고려대		756				
광운대	220	90	309			
국민대	614	251	185	23	80	17
단국대	280	646	601	15	73	121
덕성여대	213	190			50	
동국대	434	377				
동덕여대		164	145		49	164
명지대	224	258	198		111	79
부산대	853	615				
삼육대	198		78	23		25
상명대	15	770	88			21
서강대	477					
서울과학기술대	391	415				
서울대	736					
서울시립대	550	36		55		
서울여대	280	54	221	13	13	
성균관대	573	537				
성신여대	377	160	40	135	6	
세종대		787		11	123	
숙명여대	80	511		92		
송실대	409	67	360		22	64
아주대	10		455			
연세대		1,085			135	
연세대(원주)	151	272			40	



대학명	수능			실기/실적		
	가	나	다	가	나	다
이화여대	830			122		
인하대	316	334	162		10	36
전남대	563	517			90	
전북대	698	677			36	
제주대		344	447		6	47
중앙대	343	319	409	48	111	
충남대	540	581		62	78	
충북대	632	290		38		
한국교원대	202					
한국외국어대	287	581	350			
한국항공대	110	92	104			
한양대	193	585		98		
한양대(ERICA)	377	180		118	3	
홍익대	81	123	1,233			
합계	15,739	15,908	7,362	1,212	1,191	746

## 나. 정시모집 전형요소, 수능 성적 반영비율, 반영지표

### 1)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정시모집에서는 전체 모집인원인 80,073명의 88.5%에 해당하는 70,771명을 수능 위주로 선발한다.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전체 인원수와 함께 수능위주 모집인원이 2,960명 늘었고 비율도 약 0.3% 증가했다.

구분	전형유형	2021학년도(현 고3)		2020학년도	
		모집인원(명)	비율	모집인원(명)	비율
정시	수능 위주	70,771	88.5	69,291	87.6
	실기 위주	8,356	10.4	8,968	11.3
	학생부(교과)	270	0.3	281	0.4
	학생부(종합)	424	0.5	436	0.6
	기타(재외국민)	252	0.3	114	0.1
소계		80,073	100	79,090	100

## 2)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활용지표

동일 대학이라도 모집군이 다르면 ‘학생부+수능’, ‘수능100%’ 등 전형요소를 달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정시 전형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능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지만 필요에 따라 학생부를 반영하여 선발하는 대학도 있다. 희망대학의 수능 성적 활용지표를 확인하고 학력평가 성적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 보는 것이 수시 및 정시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된다.

구분	대학명	합계
등급	경동대, 광신대, 광주여대, 대구예술대, 루터대, 서울기독대, 서울한영대, 세한대, 송원대, 예원예술대, 유원대, 침례신학대, 칼빈대, 평택대, 한성대, 호남신학대, 호원대	17
백분위	가야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남대, 감리교신학대, 강원대, 건국대(글로벌), 건양대, 경기도, 경남대, 경운대, 경인교대, 경일대, 경주대, 계명대, 공주대, 광주교대, 광주대, 국민대, 군산대, 극동대, 금강대, 금오공대, 김천대, 꽃동네대, 나사렛대, 남부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전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동신대, 동양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백석대, 부산교대, 삼육대, 상지대, 서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수원대, 숙명여대, 순천대, 순천향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안동대, 안양대, 영남대, 예수대, 용인대, 우석대, 우송대, 위덕대, 을지대, 인천가톨릭대, 인천대, 전주대, 제주국제대, 조선대, 중부대, 종원대, 진주교대, 차의과학대, 창신대, 창원대, 청주대, 초당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케이씨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남대, 한동대, 한라대, 한려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한세대, 한신대, 한일장신대, 협성대, 호남대, 호서대	103
표준점수	경남과학기술대, 가톨릭대, 경상대, 경성대, 고신대, 공주교대, 대구가톨릭대, 대구교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동국대(경주),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외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교대, 서울장신대, 세종대, 수원가톨릭대, 송실대, 신경대, 신라대, 영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하대, 전남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충남대, 한국국제대, 한국체육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양대(ERICA), 홍익대	40
등급+백분위	강릉원주대, 남서울대, 가천가톨릭대, 목포대, 상명대, 신한대, 울산대, 장로회신학대, 제주대, 청운대	10
등급+표준점수	고신대, 부산가톨릭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연세대(서울), 한양대(서울)	7
백분위+표준점수	가톨릭대, 경북대, 고려대(서울), 광운대, 단국대, 동국대(서울), 동의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세종대, 송실대, 인하대, 전북대, 전주교대, 중앙대, 한림대	18
등급+백분위+표준점수	건국대(서울), 경희대, 고려대(세종), 서울시립대,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울산대, 한국외대, 한양대(서울)	9

## 4.2 정시전형에서 영어성적의 영향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 절대평가가 실시되었다. 영어성적은 90점 이상 1등급, 80점 이상 2등급의 10점단위로 등급만 표시되기 때문에 같은 성적을 받은 동점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특징이 있다.

### 가. 정시전형에서 영어영역 반영방법

영어 성적은 정시전형에서 각 대학이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영향력의 차이가 달라진다. 각 대학의 반영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영어는 백분위와 표준점수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국어, 수학, 탐구의 백분위 또는 표준점수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후 총점에서 영어를 가점 또는 감점하여 반영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총점에서 작게는 0.5점~2점 정도만 가감하기 때문에 영어 등급이 한 두 등급 낮게 나온다고해도 총점에 끼치는 영향력은 그리 크지않다. 따라서 영어를 가감점으로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 실제 영어에 대한 영향력을 적게 두고자 의도한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두 번째, 대부분 대학들은 영어에 백분위점수가 주어지지않자 임의로 각 등급에 따른 백분위 환산점수를 만들어서 영어 백분위점수를 총점에 합산하여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백분위 점수가 등급에 따라 편차가 생기는데, 여기에 더해 영어 반영비율까지 적용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 점수 차이에 따른 유효를 계산할 때는 반영비율까지 같이 환산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백분위 환산점수의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그리고 영어 반영비율이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실제 영어성적이 총점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영어는 원점수 10점 단위를 한 등급으로 구간을 나누기 때문에 등급 간 점수 차이가 큰 경우 한 등급만 미끄러지더라도 총점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백분위 환산점수에 의한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 영어 성적을 반드시 환산해보아야 유효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즉, 영어 반영비율이 높은 학교의 경우 영어를 2등급 받는 순간 지원이 불가능 해 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소 영어성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수능의 영어와 한국사 영역의 절대평가의 장점은 다른 학생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 보다 쉽게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점이 있다면 시험의 난도가 미리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조금만 어렵게 출제되면 의도치 않게 등급이 내려갈 수 있으니 평소 목표한 점수보다 조금 더 여유있게 공부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

####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흔한 오해

‘절대평가라서 영어가 쉬워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산이다. 2018학년도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은 10.03%였지만, 2019학년도에서는 5.3%로 크게 줄었다. 이는 상대평가였을 때 1등급 비율(4%)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로,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 절대평가는 ‘경쟁으로 인해 1등급을 받기 힘들었던 상위권 학생들에게 1등급의 기회가 열린 것’으로 이해해야 하고, ‘영어 난도가 쉬워졌다’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 1) 대학별 영어 등급별 환산점 예시 (2020 대입 기준)

등급 대학	계열	1	2	3	4	5	6	7	8	9
건국대	인문	200	196	193	188	183	180	170	160	150
	자연	200	200	196	193	188	183	180	170	160
경희대	전체	200	192	178	154	120	80	46	22	0
고려대	전체	0	-1	-3	-5	-7	-9	-11	-13	-15
광운대	전체	200	197	192	184	172	160	148	136	0
국민대	전체	100	98	95	90	85	80	75	70	0
동국대	전체	200	198	196	190	180	160	140	20	0
서강대	전체	100	99	98	97	96	95	94	93	92
서울과기대	전체	135	130	125	115	100	80	60	30	0
서울대	전체	0	-0.5	-1	-1.5	-2	-2.5	-3	-3.5	-4
성균관대	인문	100	97	92	86	75	64	58	53	50
	자연	100	98	95	92	86	75	64	58	50
숙명여대	전체	100	95	85	75	65	55	45	35	25
연세대	전체	100	95	87.5	75	60	40	25	12.5	5
이화여대	전체	100	98	94	88	84	80	76	72	68
중앙대	전체	20	19.5	18.5	17	15	12.5	9.5	5.5	0
한국외대	인문	140	134.4	128.8	123.2	117.6	112	106.4	100.8	95.2
	자연	140	137.2	134.4	131.6	128.8	126	123.2	120.4	117.6
한양대	인문	100	96	90	82	72	60	46	30	12
	자연	100	98	94	88	80	70	58	44	28
홍익대	전체	200	195	188	179	168	155	140	123	104

## 4.3 정시 추가모집의 이해

### 가. 정시 추가모집의 일정 및 특징

추가모집	기간
원서접수&전형일&합격자 발표	2021. 2. 19.(금) ~ 25.(목) 21시까지
등록 기간	2021. 2. 26.(금)

대학입시의 ‘마지막 기회’라고 불리는 추가모집의 선발인원은 일정하지 않다. 2019학년도에 경우 전국 167개교 4년제 대학에서 7,437명을 선발하였는데, 2018학년도 157개교에서 8,591명을 추가로 모집했던 것에 비하면 규모가 줄었다. 정시모집에서 중복 합격한 인원이 줄면 대학은 결원이 많지 않게 되어 추가모집의 모집인원도 줄어들게 된다.

추가모집은 수시 및 정시 모집과 달리 대학별 전형 일정이 다양하다. 원서접수 기간 내 하루만 원서를 받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추가모집에도 결원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모집하는 대학도 있다. 추가모집 지원 시 횟수 제한은 없다.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수험생은 수시에서 합격한 사실이 없고, 정시에서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이다. 수시 합격에는 최초합격이나 추가합격을 모두 포함한다. 만약, 정시에서 합격해 등록한 경우라면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단, 전문대와 산업대 정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한 후 등록까지 했다고 해도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대학별로 지원자격을 따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추가모집은 정시에 비해 합격선이 다소 높게 형성되는 특징이 있다. 수능점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잘못된 지원전략으로 3개 군에서 모두 불합격한 경우가 많다. 바로 이 학생들이 모집인원이 적은 추가모집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시모집에 비해 합격선이 높아지는 것이다. 지원횟수 제한이 없다는 것도 많은 학생들이 소신껏 지원하고 과감한 지원전략을 짜는 요인이 된다.

### 나. 주요대학 추가모집 현황 (2019년 기준)

구분	대학별 모집인원
서울 (268명)	광운대(24), 국민대(29), 덕성여대(6), 동덕여대(17), 명지대(15), 삼육대(1), 상명대(7), 서경대(10), 서울과학기술대(18), 서울여대(22), 성공회대(3), 성신여대(8), 세종대(43), 숭실대(55), 한성대(10)
수도권 (301명)	가천대(4), 가톨릭대(12), 강남대(27), 경기대(14), 단국대(16), 대진대(22), 명지대(17), 성결대(5), 수원대(16), 안양대(36), 용인대(15), 을지대(16), 인하대(23), 차의과학대(2), 평택대(10), 한세대(5), 한신대(14), 한양대(에리카-15), 협성대(32)

※ 수능 위주 일반전형 기준, 대교협 발표자료

V

# 입시 Q&A



## 입시 Q&A

### Q1. 대입 원서는 몇 번이나 쓸 수 있는 건가요?

→ 일반 대학(4년제)과 교육 대학의 경우 수시 6회, 정시 3회의 지원 횟수 제한이 있다. 단, 사관학교와 경찰대, KAIST나 UNIST 등의 특수 대학은 지원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정시 모집 이후에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일반 대학은 지원 횟수 제한이 없는 추가모집으로 학생을 따로 또 선발한다.

#### 수시 6회 제한 미적용 대학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업대(호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전문대

### Q2.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 원서는 쓸 수 없나요?

→ 일반 대학(4년제)뿐 아니라 전문대 수시 전형에 합격한 경우에도 정시 원서접수를 할 수 없다. 정시 원서접수를 하여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이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Q3. 수시에서 하나의 전형으로 같은 학교, 여러 학과를 지원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하다. 한 학교 내에서 같은 전형으로 여러 학과에 지원할 수 없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 전형으로 하나의 학과에 지원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강대의 경우, 논술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학업형과 종합형 등의 전형으로 중복지원이 가능하고, 건국대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 내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단, 각각의 지원은 수시 6회 지원 중 한 번씩의 기회로 적용된다. 참고로 일부 전문대학의 경우 2지망까지는 받는 경우도 있다. 각 대학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이다.

### Q4. 고등학교는 인문계열을 다니지만 자연계 학과를 갈 수 있나요?

→ 고등학교에서의 계열과 상관없이 각 대학이 정한 모집단위에 따른 수능 지정 응시영역에 응시할 경우 가능하다. 많은 대학이 자연계 학과의 수능 지정 응시영역으로 국어, 수학(가), 영어, 과학탐구, 한국사를 정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은 수학(나)형이나 사회탐구를 치른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한 대학과 학과가

있다. 희망 대학의 대입 전형요강을 통해 반영되는 수능영역을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참고로 인문계열 수능을 치른 학생은 예외적으로 자연계 학과를 지원할 수 있지만, 자연계열 수능을 치른 학생은 인문계 학과에 대부분 지원이 가능하다.

#### Q5. 내신성적이 좋지않는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 학생부종합전형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 즉 내신을 기준으로 하는 전형인 학생부교과전형과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뿐 아니라 비교과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학생부종합전형이 있다. 내신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의미있는 비교과가 있다면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이 가능하다.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인성 등 다양한 활동이나 학업에 대한 열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다소 내신이 나쁘더라도 어느정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 Q6. 특별한 비교과 활동이 없는데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나요?

→ 특별한 비교과 활동이 없어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무조건 비교과 활동이 많아야 합격하는 전형은 아니다. 단순히 많은 활동을 했던 학생보다는 각종 활동을 통해 내적 성장을 일궈낸 학생을 선호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활동의 양이 아니라 활동의 질과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 소수의 비교과활동이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했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충실한 학교생활, 학교에서의 활동경험과 호기심,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한 과정과 발전하는 모습 등을 객관적으로 잘 기록해보기 바란다. 또한 특별한 비교과활동이 없더라도 학교생활을 충실히 했고, 지원대학, 학과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을 가진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이 신설되기도 한다. 이 전형은 주로 학교장 추천전형인 경우가 많다.

#### Q7. 자기소개서 글자를 꼭 채워야 하나요?

→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글자를 모두 채워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자기소개서가 지원자의 활동을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의 역할을 하므로 충분한 분량으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지원하는데 자신을 소개할 내용이 적어 글자 수를 채우지 못한다면 서류를 확인하는 입학사정관들에게 긍정적으로 보여지기 힘들 것이다. 글자 수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대부분의 자기소개서는 대학교에서 지정한 인터넷 경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입력하게 되어있는데, 띄어쓰기를 포함한 글자 수 제한을 초과하면 입력되지 않는다.

#### Q8. 자기소개서에 학교생활기록부에 없는 내용을 써도 되나요?

→ 자기소개서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지원자가 학습하고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사항은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사항 외에는 지원자가 고등학교 재학 중 활동한 독서활동, 방송강좌 수강 등 학습노력의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미 충분히 기재된 것은 굳이 자기소개서에서 반복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쓰여 있지 않



지만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험이 있다면 자기소개서에 써도 좋다.

#### Q9. 면접에서 교과지식을 묻나요?

→ 교과지식을 질문할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 형태는 대체로 서류확인 면접으로 진행하여 교과내용을 중심으로 질문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학에 따라(특히 상위권 대학에서) 전공적합성, 학업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교과와 관련된 제시문을 활용하기도 한다. 면접에서 이러한 교과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질문을 하는 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 특기자전형이 대부분이다.

#### Q10.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 학생부교과 성적이 우수하고,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다면 수능최저기준이 있는 대학이 유리하다. 학생부교과 성적은 우수하지만 수능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이 생각보다 많다. 그 예로 2015학년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3과목 2등급 미충족 지원자 1,101명으로 전체 지원자의 45.6%가 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 대학 합격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 Q11. 학생부종합전형은 공부를 못해도 잠재력과 열정만 충분하면 합격할 수 있나요?

→ 합격하기 어렵다. 비교과활동은 학생부를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 비교과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잠재력이 있다’라고 추론할 수 있도록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은 고등학교 3년간 학생의 내신을 무의미하게 보는 전형이 아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내신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지원자의 성실성이나 학업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성적이 낮은 이유가 증명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 이유는 없다. 그래서 최고의 비교과는 내신성적이라고도 한다. 만약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신성적이 낮다는 것은 학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대학에서 배우게 될 더 어려운 내용을 학습하기에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 Q12. 전체 교과목 성적은 높은 편인데, 지원학과와 관련된 과목 성적이 낮다면 불리한가요?

→ 그렇지 않다. 먼저 진로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1,2,3학년 전체에 걸쳐 진로가 바뀌는 것은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입학사정관들도 청소년 시기에는 충분히 진로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진로를 바꿨다면 바뀐 뒤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과 계기 등을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부를 통해 증명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지원학과와 관련된 성적이 낮더라도 괜찮다. 왜냐하면 성적만으로 전공적합성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과와 관련된 비교과활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고 참여했는지를 학생부를 통해 보기 때문에 학업 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우수성을 표현하고 진로탐색 과정에서 지원학과와 관련된 열정을 보여주었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VI

# 과목별 학습법

## 과목별 학습법

### 6.1 국어

#### 가. 국어 학습 주요사항

국어는 대학 입시에서 매우 중요한 과목이지만 수능 성적을 효과적으로 올리는 올바른 공부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수험생은 거의 없다. 대개의 수험생은 ‘기출이 진리’라는, 전략 아닌 전략만 손에 쥔 채 국어의 망망대해를 허망하게 떠돌다가 절망하곤 한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여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국어 공부를 해야 한다. 지금부터 수능 만점을 위한 국어 공부의 길을 익혀 보자.

#### 나. 파트별 공부법

##### 1) 화법

‘화법’은 ‘발표, 강연, 토의, 토론, 협상’ 등 주로 출제되는 담화 유형을 익히고, 각 담화 유형별로 출제되는 문제유형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능에서 출제되는 문제유형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화법 영역 역시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점점 길어지고 있는 화법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주의를 기울여 기본기를 닦는 과정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EBS 수능개념〉 강의와 교재를 통해 기본적인 이론들을 이해한 뒤, 수능 기출문제와 EBS 연계 교재로 시험에서 반복되는 전형적인 문제 유형들을 익히자. 전형적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기르려는 노력을 하면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

‘화법’에서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말하기 방식 파악	듣기 전략 파악
<p>1.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① 발표 대상의 종류를 열거하여 장점을 소개하고 있다.                  ② 청중의 대답을 예상하고 질문하여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③ 청중의 경험을 이끌어 내며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④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⑤ 발표 대상의 특징을 부각하기 위해 다른 대상과 비교하고 있다.</p>	<p>3. &lt;보기&gt;는 위 발표를 들으며 떠올린 생각들이다. &lt;보기&gt;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lt;보 기&gt;</p> <p>○ 저 달이 하회달인 줄 알았는데, 하회달의 한 종류였구나. 양반달 말고 다른 하회달도 설명해 주겠지?                  ○ 나도 관우 달을 박물관에서 봤을 때에 정말 화려하다고 생각했었어.                  ○ 발표자가 말한 대로 ‘달의 용도에 따른 모양’에 대해 조사해 보면 좋을 것 같아.</p> </div>

## 매체 자료의 활용 이유

2. 다음은 위 발표에 활용된 매체 자료이다. 발표를 참고할 때, 발표 내용과 자료를 활용한 이유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자료	발표 내용	매체 자료를 활용한 이유
①	자료 1	만년필에 적용된 모세관 현상	표면의 거친 정도에 따라 모세관 현상이 일어난다는 정도의 차이를 대비하여 보여 주기 위해
②	자료 2	볼펜의 제작 과정	볼펜의 복잡한 내부 구조를 단순화하여 보여 주기 위해

## 쟁점별 입론의 내용

- ①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능동적인 태도로 듣고 있다.
- ② 발표를 들으며 갖게 된 의문을 해결하며 듣고 있다.
- ③ 발표자가 제안한 탐구 주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듣고 있다.
- ④ 발표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며 발표자의 설명에 공감하며 듣고 있다.
- ⑤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지식을 수정하며 듣고 있다.

4. (가)의 입론을 쟁점별로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쟁점 1]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은 편리한가?

- ▶ 찬성 1: 때와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면접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 ▶ 반대 1: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지원자가 오히려 불편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①

## [쟁점 2]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은 경제적인가?

- ▶ 찬성 1: 면접에 소요되는 인력을 줄임으로써 경제적 효과감을 비용 절감의 사례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 ②
- ▶ 반대 1: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인재를 놓치게 되는 점을 들어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이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 ③

## 말하기 전 사전 계획 점검

6. 다음은 솔빛 마을 주민 측에서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협상 계획서의 일부이다. 다음을 참고하여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논의할 내용	세부 내용	대응 전략
...	...	...
과잉 관광 문제 - 관광 수용력을 중심으로	개인 생활 침해, 공동체 구성원의 이탈과 같은 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우려.....㉠ 관광객이 기대하는 관광 경험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우려.....㉡ 동시에 방문할 수 있는 관광객 규모를 넘을 우려.....㉢	㉠ ㉡ ㉢
지역민을 위한 현안	일자리 창출.....㉣ 생활 복지 개선.....㉤	㉣ ㉤
...	...	...

- ① [A]에서는 ㉠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측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상대측 의견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 ③ [C]에서는 ㉢와 관련된 상대측 계획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토의 및 회의 참여자 간 말하기

7. [A], [B]의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 3'은 '학생 1'과 '학생 2'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양측에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에서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은 비판하고 있고, '학생 1'의 의견은 지지하고 있다.
- ③ [A]에서 '학생 3'은 '학생 1'의 의견을, [B]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 ④ [A]와 [B]에서는 모두 '학생 1'이 '학생 2'의 의견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는 모두 '학생 2'가 '학생 1'이 제시한 의견을 점검하고 있다.

문제와 선지의 진술을 보면 알 수 있듯 '화법'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은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말하는 사람의 말하기 방식과 듣는 사람의 듣기 태도 등의 개념을 묻고 있다. 따라서 실제 수능에서 '화법'은 지문의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면서 '화법'의 개념과 관련된 출제요소를 찾으며 읽을 수 있어야 한다.



## 2) 작문

‘작문’은 글쓰기의 절차와 요령에 대해 공부하는 과목이며, ‘화법’과 마찬가지로 지문의 난도가 어렵지 않다. 따라서 ‘화법’의 공부 요령처럼, EBS 개념강의와 교재를 통한 기본개념의 이해, 그리고 전형적 문제유형을 공부하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작문’의 경우 특히 작문의 과정, 즉 ‘계획하기 → 내용 생성하기 → 내용 조직하기 → 표현하기 → 고쳐쓰기’의 단계에 대한 이해를 통한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문’의 전형적 문제들은 대개 작문 과정의 각 단계마다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작문’에서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작문의 특성 파악하기	작문 전략 파악하기
<p>6. (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작문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① 글쓰기 전부터 지니고 있었던 배경 지식은 배제한다.          ② 의미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독자와 소통하려는 활동이다.          ③ 글의 화제는 개인적 성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격도 지닌다.          ④ 내용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체 자료를 활용하기도 한다.          ⑤ 일상생활에서 파악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다.</p>	<p>6. 학생의 초고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① 현재의 문제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이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사례로 든다.          ②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의 심각성을 부각한다.          ③ 현 상황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④ 논지의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의 정책과 자신이 내세운 대안을 비교하여 제시한다.          ⑤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화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한다.</p>
자료 수집 및 활용의 적절성 평가하기	조건에 따라 표현하기
<p>7. (나)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자료를 제시한 후, ㉠을 바꾸어 쓰려고 한다. 가장 적절한 것은? [3점]</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flex: 1;"> <p>&lt;2014년 국외 문화재 파악 현황&gt;</p> <p>&lt;국외 문화재 환수 현황&gt;</p> </div> <div style="flex: 1; padding-left: 10px;"> <p>그래프에서 국외 문화재 분포를 살펴보면 국외 문화재가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p> <p>그래프에서 문화재 환수 주체의 상대적 비중을 보면 현재까지 문화재 환수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p> </div> </div>	<p>7. (나)의 [A]에 들어갈 글을 작성하고자 할 때, &lt;조건&gt;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lt;조 건&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의 ㉠과 관련하여 향토 음식의 가치를 제시할 것.</li> <li>○ 속담을 적절히 활용하여 (나)의 ㉡를 유도할 것.</li> </ul> </div> <p>① 향토 음식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음식으로서 현재의 식문화를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다. 따라서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향토 음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p>

보완 방안의 적절성 평가하기	고쳐쓰기 방안의 적절성 평가하기
<p>8. &lt;보기&gt;와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다)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lt;보 기&gt;</p> <p>국외 문화재를 들여오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여와서도 보관과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이 점을 생각하면 국외 문화재를 꼭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p> </div> <p>㉠ 국외 문화재 환수 비용 내역을 추가하여 국외 문화재 환수가 어려움을 부각해야겠군.</p>	<p>8. (나)의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 ㉠: 문장 성분의 호응을 고려하여 ‘부착될’로 고친다.          ㉡ ㉡: 피동 표현이 중복되었으므로 ‘나뉘다’로 고친다.          ㉢ ㉢: 문장의 연결 관계가 어색하므로 ‘그런데’로 고친다.          ㉣ ㉣: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기준의’로 고친다.          ㉤ ㉤: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실천하는’으로 고친다.</p>

화법과 작문이 융합된 지문 구성도 대비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경우 지문의 길이가 길어 문제를 푸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것인지 생각하며 접근해야 한다.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다고 해서 문제를 푸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문제를 푼다면 낭비되는 시간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문제 푸는 순서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신유형이 출제되었을 때 정답률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신유형이 출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에서 묻는 핵심을 빠르게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전형적인 문항을 통해 문제에서 묻는 출제요소를 꼼꼼히 파악하며 기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 3) 문법

‘문법’은 문법 개념을 알고 있으면 정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문법’에서 높은 오답률을 기록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했다면 충분히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능 시험까지 남은 시간동안 수능에서 출제되는 문법 개념부터 빠르게 학습하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문법’ 개념 단원은 ‘국어의 구조’, ‘국어의 규범’, ‘국어의 역사’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국어의 규범’은 각종 어문 규정의 이해와 탐구, 올바른 문장 표현의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고, ‘국어의 역사’는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현대 국어로 오면서 우리말이 각 단위에서 겪은 주요 변화에 관한 내용이다. 그런데 ‘국어의 규범’과 ‘국어의 역사’ 부분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어의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어의 구조’는 다시 음운, 단어, 문장, 담화, 의미에 대한 내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가 ‘문법’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거의 모든 내용은 이 ‘국어의 구조’ 단원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의 구조’ 단원을 이루는 주요 개념들(음운의 개념과 체계, 음운의 변동, 형태소 및 단어의 개념, 단어의 구조와 종류, 각 품사의 특성, 문장 성분의 기능과 특성, 문장의 종류,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의 종류 및 특성, 종결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 부정 표현, 담화의 기능, 의미의 종류와 관계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요 어문 규정과 올바른 문장 표현, 그리고 국어사의 주요 변화 등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출제된 문법 개념을 분석해 보면 어간, 어근, 어미, 접사, 조사 등 헛갈리는 문법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법 문제에서 주로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은 반복되고 있다. 문법 개념은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단번에 외우려 하기 보다는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통해 출제 가능성이 높은 개념을 충분히 이해한 후 암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01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이후로 계속 출제되고 있는 문법 분야의 새로운 출제 유형에 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의 문법 개념을 엮어 지문형으로 출제하는 방식은 학습자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문법 개념을 설명하는 지문을 독해하여 선지 판단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부한 문법 개념을 적당히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이해하고 숙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부한다면 ‘문법’에서 지문형 세트 문항이 출제되어도 지문을 읽어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 4) 독서

흔히 ‘비문학’이라고도 불리는 ‘독서’는 수능 시험에서 ‘문학’과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이자, 대개의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이기도 하다. 많은 학생들이 ‘독서’를 공부할 때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푼 뒤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만 해설지를 읽어보고 지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독서’ 문제를 푸는 실력을 올리기 힘들다. ‘독서’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공부를 시작하는 초반에 지문을 스스로 이해해 보는 과정을 견뎌야 한다. 해설지를 보며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해설지’를 공부하는 것이지 지문과 문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매일 꾸준히 독서 지문 내용을 스스로 이해하는 공부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서’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사실적 독해,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를 묻는 전형적인 유형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한다. 그리고 지문을 읽으면서 각 선지의 판단 근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여, 선지를 판단할 때 정확하게 대조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독서’는 인문, 사회, 예술, 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별 제재로 출제되므로, 각 분야별로 모아서 학습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각 분야별 글을 읽고 문제를 풀면서 지문의 내용을 배경지식으로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만 풀고 채점한 뒤 틀린 문제만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지문을 다시 정독하면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며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수능 국어 영역에서 출제되는 ‘독서’ 지문의 내용 전개 방식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 유형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중심 화제에 해당하는 특정 대상의 변화 양상을 시대 순으로 정리한다든지, 상반된 견해를 지닌 두 학자의 주장을 대비하여 소개한다든지 하는 식이다. 따라서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가 바탕에 깔려 있으면 지문의 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으므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학습해야 한다.

최근 기출문제를 보았을 때, ‘독서’는 3지문이 출제되고 있다. 각 지문 당 문항 수도 4개~6개 정도로 꽤 많은 편이다. 따라서 시간에 쫓겨 조금하계 문제를 푸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 수능에서 본인의 실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시간을 의식하고 빠르게 문제를 푸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수능 국어 영역을 공부하는 초반에는 무엇보다 지문 내용을 정확하게 독해하고 이해하여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그리고 지문의 내용이 어려울수록 한 번에 이해하고 넘어가지 말고, 여러 번 같은 지문을 반복하여 공부하면서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학습하길 바란다.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지문이라 해도 2주 뒤, 한 달 뒤 다시 보면 이해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 5) 문학

문학은 EBS 연계의 효과를 가장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작년, 2020학년도 수능을 대비하여 EBS 연계교재를 꼼꼼하게 공부한 학생들은 ‘문학’ 부분의 문제를 푸는 시간을 줄여 상대적으로 어려운 ‘독서’ 문제를 푸는 시간을 활용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처럼 EBS 연계교재의 작품을 우선순위로 삼아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에 수록된 작품들을 확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문학을 암기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연계되지 않은 작품을 만났을 때 당황할 수 있다. 결국 수능 국어 영역에서 측정하는 것은 독해력과 사고력이므로 낯선 작품을 읽고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 선지를 판단하는 연습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학교 내신 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공부 방법에 익숙한 학생들은 문학 참고서의 설명이 없으면 문학 작품을 공부하는 걸 매우 어려워한다. 하지만 참고서의 내용을 모두 외운다고 해서 수능 국어 영역에 출제되는 문학 문항을 모두 다 맞히는 것도 아니다. 즉, 작품을 독해하고 감상하며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문학’은 현대시, 고전 시가, 현대 소설, 고전 소설, 극/수필, 이렇게 다섯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주로 현대시나 고전시가 분야에서 두 작품 이상을 한 세트로 묶는 지문 구성을 보일 때가 많으나, 현대시와 현대수필 복합 지문, 고전 시가와 고전 수필 복합 지문, 현대 소설과 시나리오 복합 지문, 현대시와 희곡 복합 지문 등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또 현대 소설 세트에서 출제된 문제에서는 단독 작품의 지문 구성 일지라도 문제의 <보기>에 다른 장르의 작품을 추가로 제시하여 비교 감상을 유도하는 형식으로도 출제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개별 작품이나 장르에 대한 이해에 국한하지 말고 복수의 작품을 비교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운문 문학을 독해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방식과 산문 문학을 독해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운문 문학은 시적 상황, 분위기, 화자의 정서, 시적 대상에 대한 태도 등을 파악하는 독해를 해야 하고, 산문 문학은 인물 간 갈등 양상, 인물의 심리와 인물 간 관계 파악 등에 중점을 두어 독해를 해야 한다.

## [국어 FAQ]

### Q1. ‘독서’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배경지식을 어떻게 쌓아야 할까요?

→ 철학, 과학, 경제, 법률 등의 영역을 따로 공부해서 배경지식을 쌓으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능과 모의평가 기출문제와 EBS 연계교재를 풀면서 독서 지문을 읽기 자료로 삼아 자기 전에 지문만 다시 한 번 읽어 보기를 바란다. 또한 연계 교재 독서 지문에 나온 용어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이해해 두는 방법을 추천한다.

### Q2. ‘화법’, ‘작문’에서 하나씩 틀리는 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문제를 빨리 풀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지문을 대충 읽고 문제를 푸는지, 선지를 판단할 때 자신의 주관만 개입하여 정답을 고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기를 바란다. ‘화법’, ‘작문’의 지문이 ‘독서’보다 쉽다는 생각에 대충 훑어 읽고 정답을 고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실수로 문제를 틀리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 정확하게 읽고 선지를 판단하는 연습을 통해 ‘화법’, ‘작문’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하다.



**Q3. ‘고전 시가’ 공부가 너무 힘든데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고전 시가는 수능 국어 영역을 공부하는 초반에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부분이다. 고전 시가 학습은 초반에 낯선 고어를 익히는 과정만 잘 견뎌내는 것이 관건이므로 혼자서 고전 시가를 학습하려 하기 보다는 EBS 고전 시가 특강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Q4. ‘소설’ 지문은 길이가 너무 길고, 내용 파악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 ‘소설’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소설 문학’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학생들이 문학 공부를 할 때 ‘시 문학’부터 공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설 문학’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소설’ 지문의 길이가 길지만 문제를 푸는 경험을 늘린다면, 긴 지문에서 파악해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Q5. ‘문법’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5문항밖에 출제되지 않는데 ‘문법’ 말고 다른 공부부터 하는 것이 나을까요?**

→ 국어 영역 고득점을 위해서 ‘문법’은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다. ‘문법’ 영역을 확실하게 공부하지 않고 고득점을 받기란 사실 어렵다. EBS 문법 특강을 통해 기본 개념을 빠르게 한 번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반복 학습하면 문법 실력이 나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 6.2 수학(가형, 나형)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도한 선행학습, 지나치게 어려운 교재, 학교 시험범위와 맞지 않는 학원수업 등 자신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노력하는 것에 비해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이로 인해 학부모는 실망하고, 학생의 자존감은 떨어져 점점 더 수학을 싫어하게 된다. 수학은 단순히 많은 문제를 풀고 선행 학습하는 횟수가 많다고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여러 번 하는 것 보다 한번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 따라서 학생 개인의 이해수준을 고려한 학습법만이 긍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우선 대학 입시에 있어 수시의 비율이 정시의 비율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학생 수준에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학교수업과 교과서이다. 3학년 1학기 성적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시 전형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학교 수업에 집중하고, 마지막 내신 성적을 잘 마무리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주위 친구들의 추천으로 유형별 문제만 가득한 문제집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 학습할 때는 당연히 ‘교과서’나 ‘개념서’를 먼저 읽어 보는 것이 가장 좋다. 문제는 개념을 확인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에 도움이 되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어야지 단순 문제 풀이가 목표가 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수학 용어, 개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개념들의 유기적인 관계, 함수의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도록 한다.

### 가. 수학 영역 공통 수준별 공부법

#### 1) 최상위권 (상위 10% 이내의 학생)

어떤 시험이든 최상위권은 킬러문항(2~3문항)에서 승부가 나는데 연산 능력에 자신이 있다고 암산으로 답을 빨리 찾거나 남들보다 문제를 빨리 푸는 것에 자만하지 않아야 한다. 강박관념처럼 고난도 문항에만 집착하거나 풀어내는 문제의 양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상위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역량은 킬러 문제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문제를 빠른 시간에 실수 없이 풀어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학 공부의 절반은 대표 유형들을 실수 없이 해결하며 감각을 유지하는 것에, 나머지 절반은 고난도 문항을 충분히 고민하는 것에 투자하도록 한다. 한 달에 1~2회씩 실전모의고사를 풀며 실전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27문제를 50분(최대 60분) 이내에 풀고 나머지 3문항을 40분 동안 고민하고, 마지막 10분은 못 푼 문제에 미련을 버리고 풀어진 문항들을 검토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틀리는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틀린 문제들에 대한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교육청, 평가원 기출문항 중 21번, 29번, 30번과 같은 최고난도 문항들은 5명 이상의 해설 강의를 통해 조건을 해석하고 문제에 접근하는 다양한 사고방식을 익히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된다.

#### 2) 상위권 (상위 10~25%의 학생)

성적을 올리려면 자신보다 성적이 좋은 학생이 듣는 강의, 다니는 학원, 푸는 문제집을 따라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학생이 많다. 킬러문제를 풀지 못해서 더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위권 학생이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역량은 킬러문제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킬러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를 빠른 시간에 실수 없이 풀어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표유형을



풀어내는 시간과 최고난도 문항을 고민하는 시간의 비율을 7대 3정도로 균형있게 유지하도록 한다. 한 달에 1회씩 실전모의고사를 풀며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틀리는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틀린 문제들에 대한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 번 틀린 문제는 다음에 반드시 맞힌다는 마음가짐으로, 각 단원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문제나 삼차함수의 그래프와 도함수의 활용과 같은 고난도 문제는 해설지의 한 줄 한 줄의 의미를 음미하며 그대로 따라 적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 3) 중위권 (상위 25~60%의 학생)

“수업 들은 것을 자신이 공부한 것으로 착각하지말자! 복습해야 내 것이 된다.”

중위권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만 있거나, 숙제 정도만 간신히 할 뿐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들지 않은 학생이 많다. 중위권 학생의 대부분은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응용문제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서툴다’거나 ‘고난도 문항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조금 아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고, 문제의 정답만을 확인하고 해설지를 꼼꼼히 살피지 않거나 해설지 이외의 풀이에 관심을 갖지 않는 학생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아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문제의 조건을 해석하고 다양하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부하는 양 자체가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일 규칙적으로 일정 시간의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 권의 교재를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교과서와 개념서, 쉬운 유형별 문제집을 반복 학습하여 단원별 대표 유형들만 해결할 수 있더라도 극적인 성적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지속적으로 성적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 4) 하위권 (상위 60% 이하의 학생)

“헛되게 소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중학교 수학부터 다시 한다면 반드시 역전 찬스는 온다.”

기본적으로 핸드폰, 컴퓨터 등으로 허비하는 시간이 많고, 한 번도 열심히 공부해본 기억이 없는 경우가 많다. 지금 당장 교육과정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수포자를 벗어나는 것이 어렵고, 스스로의 무력감에 익숙해져 공부하려는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학 시험의 평균은 생각 이상으로 낮고, 조금의 노력이 비약적인 성적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첫 걸음은 자신의 하루, 일주일, 한달을 되돌아보며 생활패턴을 반성하는 것이다. 자신이 허비하는 시간들을 확인하고, 습관을 조금씩 고쳐가기 위해 처음에는 무리하지 말고 ‘30분씩 4회 앉아있기’와 같이 실현가능한 계획부터 이루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금씩 공부의 양을 늘려가며 중학교 수학의 복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고등학교 3학기 이상의 수학 공부를 손 놓은 상태라면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수시전형에 기대하는 것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수능 공부에 충분한 시간임을 명심하고, 지금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없다면 자신에게 필요한 단계, 예를 들어 중3이나 고1 부분의 개념 위주 강의를 EBS에서 찾아 듣기를 추천한다. 조바심에 문제풀이 강의를 듣지 않도록 하고, 철저하게 개념 위주의 쉬운 강의부터 예습 복습 없이 편한 마음으로 꾸준히 듣는 것을 추천한다. 듣기만 하는 것으로도 수학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지고, 시간이 지나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수학 성적은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니 조바심 내지 말고 눈앞의 것에 집중하도록 하자.

## 6.2.1 수학 가형

### 가. 수학 가형 학습 주요사항

1) 바뀌는 교육과정과 최근 수능 출제 경향에 주목하자.

구분	'20학년도	'21학년도
수학 가형	미적분II,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수학I, 확률과 통계, 미적분
수학 나형	수학II, 미적분I, 확률과 통계	수학I, 수학II, 확률과 통계

과목	변화	대비	비고
수학I	나형 : 지수·로그·삼각함수 추가 공통 : 코사인법칙, 사인법칙, 삼각형의 넓이 공식 추가	함수 이해도 UP 삼각함수 도형에 활용 집중 대비	공통
수학II	큰 변화 없음	나형 : 여전히 미적분에서 고난도 킬러 출제 예상	나형
확률과 통계	기본 순열과 조합, 분할과 분해 삭제 모비율 추정 삭제	여러 가지 순열과 중복 조합 비중 UP, 까다로운 준킬러 준비	공통
미적분	수열 이동	가형 : 여전히 미적분에서 고난도 킬러 예상 나형 : 등비급수 도형에 활용 삭제(가형)	가형

2021학년도 대수능은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첫 시험이다. 물론 가형과 나형의 큰 틀은 유지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의 변화로 인해 학습내용 및 출제범위에도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과정 해설서를 참고해 변화 또는 새롭게 강조하는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의 변화에도 수능의 최근 출제경향과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 예상된다. 최근 수학 영역은 소위 말하는 킬러문항(21번, 30번 : 1등급을 가르는 문항)의 난도를 다소 낮춰, 학습을 충분히 한 학생이라면 접근해볼 수 있도록 출제하고 있다. 반면 준 킬러문항(17~20번, 27~29번 : 중상위권을 가르는 문항)의 난도는 높이고 개념을 다각도로 활용한 문항을 출제하고 있어 충분한 개념학습이 수반되어야 한다.

2) 기본 개념에 충실한 학습을 하자.

수학은 그 어떤 과목보다 개념학습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고등학교 수학은 개념이 심오하고 활용되는 폭이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풀이 양만 늘려서는 일정 등급 이상 올리기에 한계가 있다. 개념학습으로 공식을 숙지하고, 증명하고, 이의 활용 및 예제에 적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다. 나아가 개념서의 예제와 유제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충실하게 학습해 두어야 이것을 제대로 활용된 문제에서 진정 빛을



발할 수 있다. 간혹 기출문제 위주로 먼저 학습하면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만 학습하고 트레이닝 하겠다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나 최근 출제 경향은 개념학습이 탄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변형된 문제에 대비하기 어렵게 출제되고 있어 충실한 개념학습을 토대로 쌓아나가지 않은 채 문제풀이 양만 늘리면 일정 등급 이상 오르지 않는 암흑기를 경험할 수 있다.

### 3) 기출 분석은 모든 학습의 기본이다.

어떤 시험에서든 기출분석이 가장 중요하며, 기출분석은 그 어떤 공부보다도 우선시되는 부분이다. 기출문제를 보면 어떤 식으로 그동안 출제가 되었는지, 어떤 주제가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신의 출제경향까지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능 역시 각 과목별로 실제로 시험에 등장하는 소재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평가원에서 반복적으로 비슷한 소재와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기출로 출제되었던 주제를 정리하고 출제 빈도를 토대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으며, 출제 빈도가 높은 유형에 대한 확실한 대비를 해 나가야하겠다.

## 나. 파트별 공부법

### 1) 수학

#### 〈2020 대수능 출제 분석〉

##### -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번호	출제 개념	점수
가형 15번	로그방정식의 해와 지수법칙 - 로그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지수법칙을 이용해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4점
나형 1번	지수법칙 -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식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기본 문항이 출제되었다.	2점
나형 17번	로그의 성질 - 약수의 개수와 연관지어 문제를 해결하고 로그의 성질과 시그마 계산 공식을 이용해 계산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4점

##### - 삼각함수

번호	출제 개념	점수
가형 7번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과 부등식 -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기본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3점

## - 수열

번호	출제 개념	점수
나형 15번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 -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을 이용해 합이 최대인 상황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4점
나형 21번	수열의 규칙성 추론 - 수열의 규칙성을 추론하여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4점
나형 23번	등비수열 - 등비수열의 뜻을 이해하고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3점
나형 25번	수열의 합 - 나머지정리를 이용하여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3점

## 〈2021 대수능 출제 예상 및 학습법〉

첫째, 수학I 단위 구성상 가장 큰 특징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등 다항함수 이외의 새로운 함수의 도입이다. 1학년 때 배웠던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수며, 이외에도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등 새로 배우는 함수의 기본적인 특징과 성질을 잘 정리해두어야 한다. 다항함수가 갖는 성질과는 전혀 다른 세 가지 함수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는 평가원에서 주로 보고 싶은 개념 요소가 될 것이다.

둘째, 수학I ‘삼각함수’ 단위에서는 코사인법칙, 사인법칙, 삼각형의 넓이 등에 관한 공식을 배우고 이를 활용해 삼각형의 세 변과 세 각을 구해 삼각형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기초가 토대가 되고 이를 문제풀이 과정에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중학 도형의 기초를 한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 특히 코사인법칙, 사인법칙 등은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가형조차 출제 범위가 아니었던 부분이라 오래전 기출문제를 통해 감각을 기를 필요가 있겠다.

셋째, 수학I ‘수열’ 단원은 공식 암기뿐만 아니라 평소 수열을 보고 규칙성을 파악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에 대입을 통해 필요한 항을 구하는 것이다. 의외로 실전 문제에서는 일일이 세거나 대입해보고 규칙을 따지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 2) 확률과 통계

### 〈2020 대수능 출제 분석〉

#### - 경우의 수

번호	출제 개념	점수
가형 4번	이항정리 - 이항정리를 이용하여 항의 계수를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3점
가형 16번	중복조합 - 중복조합을 이용하여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4점
가형 22번	순열과 조합을 이용한 계산 - 순열과 조합의 공식을 이용하여 주어진 계산을 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3점
가형 28번 (나형 19번)	같은 것이 있는 순열 -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이용하여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4점
나형 29번	중복조합 - 중복조합의 수를 이용하여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4점

#### - 확률

번호	출제 개념	점수
가형 6번	확률의 정의 - 조합의 수를 이용해 확률을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3점
가형 20번	독립시행의 확률, 여사건 - 독립시행의 확률과 여사건을 이용하여 조건을 만족시키는 확률을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4점
가형 25번	독립시행의 확률 -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해 확률 계산을 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3점
나형 5번	확률의 연산 - 확률의 성질을 이용하여 확률을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3점
나형 9번	조건부확률 - 표를 해석해 조건부확률을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3점

## - 통계

번호	출제 개념	점수
가형 14번 (나형 16번)	이산확률변수의 평균과 분산 - 이산확률변수의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논리적 추론 문항이다.	4점
가형 18번	정규분포 - 정규분포의 성질을 이용하여 확률의 최댓값을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4점
가형 23번 (나형 24번)	이항분포 -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의 분산을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3점
나형 13번	정규분포 -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3점

## 〈2021 대수능 출제 예상 및 학습법〉

첫째, 일일이 세거나 수형도를 그리면서 공식을 체화해 나가면서 확률적 사고(수세기를 잘 하는 방법)를 연습하자. 확률과 통계 과목은 다른 수학 과목과는 달리 학문적 위계가 크게 없다. 즉, 특정 과목을 학습해야 이해할 수 있다거나 하는 부분이 없는 대신, 확률적 사고를 가지면 과목 전체를 쉽게 공부할 수 있다. 반면 그렇지 않다면 매우 고통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경우의 수를 셀 때 언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지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감각을 키우려면 일일이 세거나 수형도를 그려보면서 체화해 나가야 한다. 그러다보면 반복되는 규칙을 공식으로 만들 수 있고, 자연스럽게 순열, 조합,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순열, 원순열, 중복조합 등의 공식으로 이어져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체화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둘째,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의 기본 공식도 간접적인 시험 범위라고 생각해야 한다.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르면 경우의 수(합의 법칙, 곱의 법칙), 순열, 조합의 기본 공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습하는 내용으로 확률과 통계 교과 내에는 빠져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순열과 중복조합, 이항정리까지 대부분의 공식을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순열, 조합에서 유도하며, 앞선 개념이 부족할 땐 심지어 확률 계산까지도 계속 발목을 잡게 된다. 직접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모르면 다음 내용을 이해하거나 응용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적인 시험 범위라고 봐도 무관하다.

셋째,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 직접적인 시험범위에서 빠지면서 직접적인 시험범위인 여러 가지 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조합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다. 2020학년도 대수능에서도 예고하듯 여러 가지 순열과 중복조합을 비중 있게 출제하였다.

넷째, ‘통계’는 낯선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립 및 개념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킨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자. 확률과 통계의 통계 단원은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기 보다는 비슷한 유형의 문항에서 약간의 변형을 통해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통계에서 다루는 용어 자체가 낯설고 생소하고 어려워서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부터 확실하게 정리해 익숙해진 뒤에, 공



식만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스토리를 짜서 용어 및 개념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킨다는 생각으로 개념 공부를 해야 한다. 막상 문제 스펙트럼은 좁아 다소 뻔한 것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용어 및 개념만 확실히 잡고 간다면 문제풀이 단계는 수월하게 넘길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논리적 추론이 몇 년째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되고 있으며, 2020학년도 대수능에서는 통계에서 출제되었다. 낯선 증명이나 풀이 과정을 보고 빈칸 주변에서 힌트를 얻어 빈칸을 추론해나가는 연습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겠다.

### 3) 미적분

#### 〈2020 대수능 출제 분석〉

##### - 수열의 극한

번호	출제 개념	점수
나형 3번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 - $\frac{\infty}{\infty}$ 꼴의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2점
나형 18번	등비급수의 활용 - 등비급수를 이용하여 무한히 반복되는 도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4점

##### - 미분법

번호	출제 개념	점수
2번	지수함수의 극한값의 계산 - 지수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2점
9번	평면운동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력의 최솟값을 구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3점
10번	삼각함수의 덧셈정리 - $\tan$ 함수의 덧셈정리를 이용하여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3점
11번	변곡점을 갖기 위한 조건 - 미분법을 이용하여 곡선이 변곡점을 갖기 위한 조건을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3점
22번	로그함수의 미분 - 로그함수의 미분과 곱의 미분법을 이용한 미분계수를 구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3점
26번	합성함수의 미분, 역함수의 미분법 -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한 미분계수를 구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4점
30번	접점이 일치하는 공통접선 - 두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조건을 이용하여 미분계수를 구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4점

## - 적분법

번호	출제 개념	점수
나형 11번	정적분을 이용하여 급수의 합 계산 - 정적분을 이용하여 급수의 합을 구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3점
8번	치환적분법과 부분적분법을 이용한 정적분의 값 계산 - 부분적분법을 이용한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3점
12번	입체도형의 부피(정적분의 활용) - 정적분을 이용하여 입체도형의 부피를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3점
21번	미분법과 적분법을 이용한 명제의 진위판정 - 접선의 방정식, 미분가능성을 이용하여 함수를 구하고 미분법과 적분법을 활용하여 주어진 명제의 진위를 판정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4점

## 〈2021 대수능 출제 예상 및 학습법〉

첫째, ‘수열의 극한’은 수학II에서 학습한 함수의 극한과 연관 지어 이해하되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생각하면 쉽다. 단, 등비급수의 활용은 도형에 대한 이해와 감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중학도형 지식을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고, 이를 도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형을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미분법’은 여러 가지 미분법을 활용한 간단한 기본 계산 문항부터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는 최고난도 문항까지 두루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단원이며, 출제 문항수 및 배점 또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 예상되는 바, 꼼꼼한 학습이 요구된다. 교육과정이 바뀌고 기하가 수능에서 빠지면서, 미적분에서 좀 더 비중있게 고난도 문항이 나올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더욱 비중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수학 가형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특히 ‘미분법’ 학습에 비중을 두고 학습하면서 종합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분법’ 단원은 ‘미분법’ 단원과 마찬가지로 정적분의 활용에서 넓이와 부피, 속도와 거리,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여 급수의 합을 구하는 문항 등 기본적인 문항부터 미분법과 연계한 최고난도 문항까지 모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득점을 원하는 학생들은 매년 고난도로 출제되고 있는 정적분으로 나타낸 함수를 이용한 함수의 추론 및 진위판정형(합답형) 등의 유형도 잘 연습해둘 필요가 있겠다.



## [수학 가형 FAQ]

**Q1. 내신과 수능 학습을 병행하려니 여의치 않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율적인 학습법이 있을까요?**

→ 내신과 수능 학습은 절대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수학 실력은 신기루처럼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신 학습을 하면서 차곡차곡 쌓은 개념과 문제해결력이 곧 수능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 특히 고3 1학기에 내신으로 학습하게 되는 미적분 또는 확률과 통계의 과목은 우선 내신에 만전을 기해 학습하면서 개념을 탄탄히 쌓아가되 기출문제집을 병행하면서 실전 감각을 높이는 식으로 계획을 세워나간다면 내신과 수능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Q2. 기출문제는 어떤 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은가요?**

→ 흔히 기출문제를 몇 번 돌려야 하나고 묻는 학생들이 있지만, 기출문제는 엄밀히 말해 푸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는 것이다. 어떤 개념이 어떤 식으로 표현 및 발문이 되는지, 같은 개념이 반복적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화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2021학년도 수능은 교육과정의 변화로 기출문제도 선별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라 기출문제를 그대로 뽑아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맞게 재구성된 교재를 통해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또한 2020년에 자신이 직접 치루는 모의고사도 놓치면 안된다. 올해 치러지는 시험 문제 역시 또 하나의 기출문제, 아니 가장 좋은 기출자료가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가 끝날 때마다 기출분석 및 본인이 틀린 문제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오답분석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와 같이 시험범위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경우 2020년에 치러지는 6월, 9월 모의평가는 그 어떤 시험보다도 중요하다.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교육과정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출제하고자 하는지, 신유형으로는 어떤 유형을 출제할 것인지 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Q3. 오답노트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 오답노트는 틀린 부분을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 틀리거나 헛갈리는 문제를 모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만드는 것보다 다시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따라서 오답노트는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문제집을 찢어서 묶어서 보관해두어도 좋고, 간단히 사진으로 모아두어도 된다. 다만 자신이 놓친 문제의 핵심과 오답의 원인을 간단히라도 필기해두어야 다시 볼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Q4.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수능에서 중요시하는 개념은 정해져 있지만 이를 표현하는 방법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알고 있는 개념인데 생소하게 느껴 접근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평소 문제를 보면 어떤 개념이 쓰였을까

스스로 고민해보면서 직접 대입, 단순화시켜 해보기, 표 또는 그림 그리기 등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연습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모른다고 바로 해설지 또는 강의를 보거나 해설지를 그대로 외우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다. 해설지 또는 강의를 통해 처음 힌트, 전체적인 방향만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풀고, 잘 안되면 그 다음 해설을 참고하는 식의 ‘해설 단계적 활용법’이 낯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사고력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Q5. 실수가 많은 경우 어떻게 실수를 줄여 나갈 수 있을까요?

→ 최근 수능은 쉬운 문항은 확실히 쉽게, 어려운 문항은 확실히 사고력을 요구하는 식으로 출제하고 있다. 어려운 문항은 다같이 틀리는 경우가 많겠지만 쉬운 문항에서 실수를 해버리면 남들은 맞고 나만 틀리는 상황이라 바로 등급하락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평소에 실수를 줄이는 연습이 중요하다. 시간을 정해놓고 실전처럼 긴장상태로 연습을 해보거나, 문제풀이의 과정을 꼼꼼하게 쓰면서 내려가는 습관을 길러 자신의 풀이에 대한 반성을 수시로 해보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6.2.2 수학 나형

### 가. 수학 나형 학습 주요사항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음식을 요리하는 것과 같다. 레시피에 적힌 대로 재료를 준비하고, 이유를 고민하지 않고 조리 순서만 따라서 음식을 만드는 것은 수학의 ‘공식’을 아는 수준이다.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지만 조금만 상황이 달라져도 당황하고 바뀐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다. 하지만 재료들이 들어가서 어떤 맛과 향을 내는지, 이 조리 과정이 왜 필요한지, 간이 안 맞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면 처음 만드는 요리도 그럴싸한 맛이 나는 법이다. 이것이 바로 수학의 ‘개념’을 이해하는 수준이다.

개념’을 이해하면 처음 접한 문제에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 접근을 할 수 있다. 답을 맞히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시도를 한 후에 해설을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같은 수준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면 결국 그들의 차이를 가르는 것이 다른 아닌 기본기라는 것. 칼질이 서툰 사람은 이제 갓 조리를 시작했는데,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은 이미 요리를 완성하여 내놓는다. 수학에서도 ‘아는 것’ 이상으로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법이다. 이것만은 절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고 자기 스스로 해내야만 하는 부분이다.

1) 기초는 쉬워서 기초가 아니라, 중요해서 기초인 것이다. 기초가 없이 요령만 익혀서는 높이 올라갈 수 없는 법.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산의 기초가 되는 다항식의 연산을 충분히 연습하고, 복잡한 식의 계산도 미련해 보일 정도로 많이 다뤄보는 것이 좋다.



2)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계산이지만, 수학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주어진 조건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공식에 숫자만 넣어 계산하는 예제를 맞췄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개념을 자세히 설명한 개념서나 교과서를 정독하며 상황을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개념과 개념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흐름을 이해하는 학생들은 교과서의 단원명을 술술 적어나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단원명을 적지 못한다. 빈 노트에 한 단원의 세부 개념들의 마인드맵을 그려보며 정리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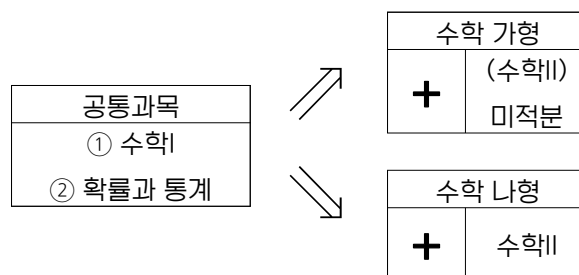
3) '개념은 아는데 문제에 적용을 못하겠어요. 기본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응용문제는 못 풀겠어요.'라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공식'을 '개념'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공식 ≠ 개념'을 명심해야 한다. 처음에는 개념을 소설책 읽듯이 읽어보고, 공식이 나오게 된 원리, 즉 '증명 과정'을 직접 자기 손으로 한 줄 한 줄 적어가며 어떻게 이 공식이 유도되고, 왜 이 공식이 필요한지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고등학교의 응용문제라고 해봐야 여러 가지 개념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것에 불과하므로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 보다는 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라보고, 해설지의 '정답만 보며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한줄 한 줄의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4) 알고 있는 개념을 확인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어떤 개념을 친구에게 설명하거나 혹은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해보면 이해하지 못한 채 기억력에 의존하는 방법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느끼게 된다. '설명하기'는 가장 좋은 공부법으로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파악하게 해준다.

풀어내는 문제의 양에 목표를 두지 말고, 개념의 이해를 목표로 하기 바란다. 빠르게 진도를 빼는 것에 급급하거나 여러 권의 교재를 공부하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자신의 수준에 알맞은 교재를 선정하고 한 권의 교재를 완벽하게 알 때까지 몇 번이고 보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공부법이다.

## 나. 파트별 공부법

2021학년도 대수능에서 [수학 가형]과 [수학 나형]은 응시 과목이 다르다.



수학 나형은 [①수학I, ②수학II, ③확률과 통계] 세 과목을 준비해야 하는데, 문제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2015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 하지만 각 과목별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개념은 동일하기 때문에 연계 교재를 꼼꼼히 살펴보면 준비하고, 평가원의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부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 1) 수학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수학] 과목은 단독적으로 출제되지 않으나 곱셈공식, 곱셈공식의 변형, 인수분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도형의 이동, 합성함수, 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원의 방정식 등 단원별 기본적인 개념이 간접 출제 되니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교과서와 압축 개념강좌를 활용하되 심화 문제는 뛰어 넘고, 핵심 개념과 대표 유형들만 빠르게 복습하길 추천한다.

### 2) 수학I

10~11문항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내용이 추가 되었다. '지수와 로그'에서는 지수의 확장과 지수법칙을 이용한 계산 문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한 계산 문제가 주로 출제 되므로 능숙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연습할 필요가 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는 함수의 그래프와 이를 활용한 방정식, 부등식에서 어렵지 않은 문제가 주로 출제 되나, 예전에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던 '부등식을 만족하는 격자점의 개수'의 문제의 출제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각함수'는 단원 자체의 내용이 많고, 학생들의 체감 난도가 높은 단원이므로 삼각함수의 그래프와 도형에 삼각함수를 적용하는 문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길 추천한다. '수열'단원은 등차수열, 등비수열에서는 간단한 문제가 출제되나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에서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는 추세이니 숫자들을 나열하여 관찰하고 규칙을 찾는 연습이 필요하다.

- 삼각함수의 활용(도형 문제),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 고난도 문항 대비 필요

### 3) 수학II

10~11문항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2009 교육과정]의 '미적분'과 같은 내용에서 '구분구적법, 정적분과 급수와의 관계'가 '미적분'으로 이동하여 삭제되었다.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는 간단한 극한값 계산, 그래프에서 극한값 찾기, 미정계수 결정과 같은 문제가 주로 출제 되지만, 연속성을 판단하는 합답형 문항이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될 수 있다. 도함수의 활용과 정적분의 활용은 보통 4점짜리 문항이 다수 출제되며, 수학 나형 상위권을 변별하는 단원이므로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특정 짓기 위해 평소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고, 비례 관계나 대칭성과 같이 심화 내용까지 정리할 것을 추천한다.

### 4) 확률과 통계

8~9문항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순열, 조합'의 내용이 '수학'과목으로 이동하였고, '자연수의 분할, 집합의 분할, 모비율의 추정'이 삭제되었다. 기본적으로 확률과 통계의 내용이 줄었으나 과목별 문항수, 난도의 균형을 위해 다소 복잡한 상황의 경우의 수, 확률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빈 칸을 채우는 완성형 문제가 여전히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중복조합의 수를 활용한 경우의 수, 확률 문제가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확률 문제나 확률분포 문제도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확률 문제 또한 경우의 수 문제이기 때문에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조합, 중복조합 등을 사용하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경우의 수 문제를 지속적으로 풀어내며 감각을 유지하길 추천한다.





## [수학 가형 FAQ]

**Q1. 시험을 치면, 아는 문제들을 실수해서 2~3개씩 틀리는데, 실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시험에 대한 긴장감과 압박감에 실수를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한 두 번의 실수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생각이 사로잡힌다면 트라우마로 인해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남들보다 실수하는 빈도가 더 잦다면 자신도 모르는 잘못된 습관으로 인한 가능성이 크니 ‘또 실수했어!’가 아니라 ‘어떤 실수를 반복하는지’ 눈여겨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p+q$  합을 구하는 상황에서  $pq$  곱을 구했다든지,  $73-36$ 과 같은 상황에서  $47$ 로 계산한다든지,  $6 \times 9 = 48$  과 같이 자신이 자주 실수하는 연산의 특징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어디에서 자주 걸려 넘어지는지 알면 다음부터 걸려 넘어지지 않고 피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노력 없이 단순히 ‘계산 실수가 많다’고 불평하는 것은 자신을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그리고 평소 문제를 풀 때 한 페이지의 6문제를 10분 만에 풀었다고 해서 바로 해설지를 보고 채점하지 말고, 3분 정도는 자신의 계산과정을 검토하고, 실수한 부분을 잡으려는 습관이 중요하다. 평소 검산하지 않고 바로 채점하던 학생이 시험시간에 검토해서 실수한 문제를 찾기를 바란다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다.

**Q2. 문제를 풀다가 도저히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오래 잡고 고민해야 할까요?**

→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위 10%의 학생의 경우에는 고민해도 안 풀리는 한, 두 문제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최소 30분 이상 고민해보기를 추천하고, 이런 고난도 문제의 해법을 비슷한 수준의 누군가와 공유해서 해설지보다 더 좋은 다양한 풀이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법이다. 하지만 90%의 보통의 친구들은 10분 정도 고민하다가 그래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자신이 아는 만큼만 연습장에 적어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한다. 오늘 풀어야 할 분량을 다 해결한 이후, 풀리지 않아 넘어갔던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자. 10분 더 고민해도 안풀리는 경우 강의를 참고하거나 해설지를 보도록 한다. ‘왜 이 문항을 해결하지 못했는지’, ‘어느 부분에서 막혔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넘어가도록 하고, 강의를 참고할 때에는 강사가 그 문제를 왜, 어떤 방법으로 접근했는지를 반드시 파악하고 자신의 풀이법과 비교해가면서 그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Q3. 오답노트가 중요하다는데 꼭 만들어야 할까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 중위권, 하위권 학생의 경우 풀지 못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오답노트를 만드는 것이 너무 오랜 시간 걸리고, 그에 비해 학습 효율은 떨어지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 오답노트를 만들기보다는 그때그때 자신이 왜 그 문항을 틀렸는지를 파악하면서 문제집을 끝까지 한 번이라도 풀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의 경우 하루에 틀리는 문제가 10문제 내외이기 때문에 오답노트를 만드는 것이 좋다. 이 때, 공부한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단원별&개념별로 오답노트를 만들고, 해설지를 그대로 옮겨 적지 말고, 자신의 틀린 풀이를 적거나 막힌 부분까지 사고 과정을 적어두고, 틀린 부분, 막힌 부

분에 대한 키워드나 한 줄 평 정도만 간단히 적어두는 것이 다음 번 오답노트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된다.

#### Q4. 기출문제를 풀다보면 풀이법이 외워져서 다시 풀 때는 생각없이 풀어내게 돼요. 기출문제를 몇 번 푸는 것이 좋나요?

→ 푸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을 풀어보더라도 바르게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단순히 ‘문제를 풀어보는 것’과 ‘문제를 꼼꼼히 분석’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발문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어떤 개념이 평가원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가를 알면 평가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어떤 개념 문항이 상대적으로 난도가 쉬운 문항에서 나오는지, 어떤 개념 문항이 난도가 높은 문항에서 나오는지도 알 수 있다. 고난도 문항의 경우 몇 가지의 개념이 함께 등장할 가능성이 높는데, 서로 연관성이 높은 개념을 파악하는 것도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 각 문항의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에는 EBS 해설 강의를 참고하자. 개념 공부에 성실히 임하고, 평가원 기출문제만 제대로 분석해도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니 적어도 최근 3개년 평가원 기출(6월, 9월, 대수능) 문항은 꼭 분석하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 Q5. 개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면 모든 문제가 맞히고 1등급 받을 수 있나요?

→ 개념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두 가지 오해를 하는데, 첫 째는 ‘공식과 개념’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쉬운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응용문제는 손을 못 대는 학생의 대부분은 ‘공식을 아는 것’을 ‘개념을 이해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공식’을 알면 같은 상황에 숫자만 바뀐 문제는 암기한 방법으로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지만, 다른 상황이 주어지면 문제를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식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 학생들은 많은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고, 따로 개념 공부에 시간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경험을 반복하게 되고 수학을 포기하게 된다. 교과서를 펼쳐 공식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직접 손으로 적어보는 것을 추천하고, 기초개념 강좌를 듣고 복습하며 개념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오해는 ‘개념을 이해하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다. 개념을 이해한다고 해도 내 것으로 체화하고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이는 수학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수영’을 예로 든다면 ‘수영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수영하는 방법을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도 몸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과 같다. 다만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문제 풀이를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틀린 문제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개념이 뒷받침되지 않은 문제 풀이로는 절대 뛰어넘지 못하는 선이 분명히 존재한다.



## 6.3 영어

### 가. 영어 학습 주요사항

#### 1) EBS 연계율?

2020년에 수능을 치르는 고3은 현행대로 EBS 연계가 70%로 유지된다. 특히 영어 과목의 경우, EBS 연계라는 것은 EBS의 연계교재인 수능특강 영어,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수능완성에서 지문이 거의 그대로 수능에 활용된다는 의미이다. 1년간 EBS 연계교재를 확실하게 공부하면 수능에서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 2) 절대평가 영어 시험은 쉽다?

기존의 상대평가 시스템에서 1등급은 전체의 4%이다. 절대평가는 90점만 넘으면 누구나 1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보다는 등급 획득에 용이하다. 하지만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영어 시험은 쉽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영어 공부의 비중을 줄이면 안 된다. 수능에서 영어과목이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의 1등급 비율을 살펴보자.

구분	1등급 비율
2018학년도	10.03%
2019학년도	5.3%
2020학년도	7.43%

절대평가 초기에 1등급의 비율이 10%수준으로 높았다가 다음 해에는 5%수준으로 시험이 매우 어려워졌다. 가장 최근에는 7%수준으로 1등급이 형성되고 있다. 절대평가 시험도 변별이라는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7%~8%정도로 1등급의 비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험을 쉬운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 100명의 시험 응시자 중 7명만이 90점을 넘을 수 있는 시험의 수준이다. 여러분이 100명 중 7명, 즉 전국 상위 7%수준의 실력자가 아니라면 여전히 영어 1등급을 받기란 쉽지 않다.

#### 3) 영어 과목의 전략적 중요성

수능에서 영어 과목은 상대평가 때보다는 등급 확보가 수월해졌다. 이를 이용하면 영어 과목을 대입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능에서의 영어 성적은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로 활용된다.

1. 수능최저학력기준
2. 정시에서의 반영

상위권 대학의 경우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한다. 2개 과목에서 등급 합 4등급, 3개 과목에

서 등급 합 5등급을 요구하는 식이다. 학교별, 전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지원하는 대학에서 영어 과목을 별도로 분리하여 다루지 않는다면, 영어 과목을 활용하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수월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타과목보다 상대적으로 등급 확보가 용이한 영어에서 1등급을 받는다면, 다른 과목에서 3등급을 받아도 2개 과목 등급 합 4등급이라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맞출 수 있다.

또한 중하위권 대학일수록 정시에서 2개, 3개 과목만 선택해서 입시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영어 성적이 높으면 다른 특정 과목의 성적이 매우 낮아도 입시에서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

고3이라면,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에서 영어를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는 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 성적을 완전히 입시에서 배제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 어떤 식으로든 영어 성적이 입시에 반영되는 한, 높은 영어 등급을 받으면 분명히 입시에서는 유리해진다.

#### 4) 수능 영어에 대한 이해

수능 영어 시험은 매년 어려워지고 있다. 영어가 아니라 한국말로 봐도 이해가 어려운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그 수준을 같이 살펴보자. 2019년 11월에 실시된 2020학년도 수능 영어 34번 문제의 한글 해석이다. 영단어(account)가 어려웠던 오답률 1위 31번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오답률 1위 문제이다.

악음(樂音)의 특정 속성이라는 견지에서 음악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 19세기의 유명 평론가인 Eduard Hanslick은 ‘측정할 수 있는 음조’를 ‘모든 음악의 주요하고 본질적인 조건’으로 간주했다. 그가 말하기를, 악음은, 자연의 거의 모든 소리가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주파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반해, 그들이 고정된 음 높이를 사용을 수반한다는 사실에 의해 자연의 소리와 구별될 수 있다. 그리고 20세기의 많은 작곡가들은 Hanslick과 마찬가지로 고정된 음 높이가 음악의 결정적인 특징 중의 하나라고 추정했다. 이제, 세계의 대부분의 음악 문화에서 음 높이는 고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속된 별개의 음정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음악에 관한 일반화이지 그것에 관한 정의는 아닌데, 왜냐하면 반례(反例)를 제기하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사쿠하치’ 음악과 한국의 ‘산조’ 음악은 그 음악이 구성된 관념상의 음 높이라는 견지에서 그 주위에서 끊임없이 변동한다.

이 지문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을 찾는 것이 34번 문제였다. 한국말로 보아도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수준이다. 상대평가보다는 등급 확보가 유리하지만,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수능 영어도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수능 지문들은 인문, 사회, 심리, 경제, 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이 분야들에 대한 전문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소재로 인해서 난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어려운 수능 영어의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

틀기 17문제, 독해 28문제, 총 45문제로 구성된 수능의 영어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 능력이 필요하다.

1. 영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2. 문제를 유형별로 풀 수 있는 능력

먼저 1번의 영어 문장 해석 능력을 살펴보자. 모의고사 기준으로 3등급-4등급에서 영어 성적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서 고민하는 학생들은 영어 문장 해석이 완전히 안 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영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3가지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1. 단어
2. 문법
3. 긴 문장을 해석하는 경험

단어와 문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긴 문장을 해석하는 경험을 꾸준히 쌓아야 영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지문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단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대강 의미를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절대로 3등급 이상의 성적을 받을 수 없다. 모의고사 3-4등급의 학생들 중에서 막연하게 독해 문제만 푸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런 식의 공부법으로는 등급이 오르지 않는다. 제대로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단어를 꾸준히 암기하면서 문법의 기초를 마스터하고, 독해를 할 때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실력이 늘면 문장 해석 속도는 자연히 빨라진다. 현재의 수능의 수준은 아는 단어 바탕으로 대강대강 의미를 조합해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시간을 투자 하더라도 자시의 영어 기초 실력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능 영어의 흥미로운 점은 지문의 내용이 파악이 되어도 100점이 안 나온다는 것이다. 매년 수능이 끝나면 흥미로운 영상들을 볼 수 있는데,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국인, 미국인 등이 수능 영어 문제를 푸는 영상이다. 그들은 진심으로 수능 영어 문제의 정답을 찾지 못 한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기에 지문의 내용이 100% 이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틀리는 것이다. 수능 영어 시험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우리는 국어 시험에서 100점을 받는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평생 한국말을 썼지만 우리의 국어 성적은 100점이 아니다. 같은 이치이다. 국어 시험에서 100점을 받으려면,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 덧붙여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문제가 원하는 정답을 골라야 한다. 수능 영어도 마찬가지이다. 해석만 되면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도 있지만, 푸는 전략이 필요한 문제들도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1등급에 도전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수능 영어의 문제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 해석이 되면 답이 나오는 문제 유형  
글의 목적, 글의 분위기, 주장, 요지, 주제, 제목, 도표, 실용문, 일치/불일치...
2. 해석 외에 풀이 전략이 필요한 문제 유형  
어법, 어휘, 빈칸추론, 글의 순서, 문장 삽입, 문장 요약...

해석만 되면 답이 나오는 문제들은 정답률이 높다. 특별한 전략이 필요 없는 독해 유형이다. 수능 영어의 통계를 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들은 전부 풀이 전략이 필요한 유형들이다.

〈수능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  
빈칸추론, 어법, 어휘, 글의 순서, 문장 삽입

이 문제들이 오답률이 높은 이유는 반드시 지문의 수준이 높아서만은 아니다. 글의 순서나 문장 삽입의 경우 단어나 문장의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 아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석과 더불어 풀이 전략이 필요한데, 학생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틀린다. 이 때 풀이 전략이라는 것은 비싼 돈을 지불하고 익히는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빈칸 문제를 푸는 전략을 살펴보자. 상식만 있으면 대한민국의 고3 학생들 모두가 금방 익힐 수 있다. 먼저 한국말로 된 다음의 두 문제를 풀어 보자.

문제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승익 선생님은 회를 못 먹는다.  
또한 고기는 완전히 구워야 먹을 수 있다.  
그는 꿈틀거리는 산낙지는 입에도 대지 못 한다.  
요약하면, 정승익 선생님은 \_\_\_\_\_ 음식을 먹지 못 한다.

- ① 인스턴트
- ② 날 것 상태의
- ③ 값 비싼
- ④ 푹 익힌
- ⑤ 고기로 만든

문제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승익 선생님은 날 것 상태의 음식을 못 먹는다.  
정승익 선생님은 회를 못 먹는다. 또한 고기는 완전히 구워야 먹을 수 있다. 요약하면,  
그는 \_\_\_\_\_ (은)는 입에도 대지 못 한다.

- ① 햄버거
- ② 피자
- ③ 치킨
- ④ 삼계탕
- ⑤ 육회

1번의 정답은 ②, 2번의 정답은 ⑤이다. 다들 맞혔을 것이다. 답을 찾으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글의 내용 중에서 빈칸에 대한 근거를 찾았을 것이다. 그 근거를 바탕으로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빈칸 문제 푸는 방법이다. 지문 속에 빈칸에 대한 근거가 있다. 그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문 속에서 그 근거를 역으로 찾으면 된다. 앞서 살펴봤던 2020수능 34번 빈칸 추론 문제를 다시 보자.

악음(樂音)의 특정 속성이라는 견지에서 음악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 19세기의 유명 평론가인 Eduard Hanslick은 ‘측정할 수 있는 음조’를 ‘모든 음악의 주요하고 본질적인 조건’으로 간주했다. 그가 말하기를, 악음은, 자연의 거의 모든 소리가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주 파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반해, 그들이 고정된 음 높이를 사용하여 수반한다는 사실에 의해 자연의 소리와 구별될 수 있다. 그리고 20세기의 많은 작곡가들은 Hanslick과 마찬가지로 고정된 음 높이가 음악의 결정적인 특징 중의 하나라고 추정했다. 이제, 세계의 대부분의 음악 문화에서 음 높이는 고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속된 별개의 음정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음악에 관한 일반화이지 그것에 관한 정의는 아닌데, 왜냐하면 반례(反例)를 제기하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사쿠하치’ 음악과 한국의 ‘산조’ 음악은 그 음악이 구성된 관념상의 음 높이라는 견지에서 그 주위에서 끊임없이 변동한다.

이 문제의 밑줄 친 빈칸 부분에 대한 근거는 지문의 앞쪽에서 찾을 수 있다. 음높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지를 찾아야 하는데, 지문의 내용 중에 음높이가 고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음높이가 고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다른 보기들에는 음높이가 고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고 다양한 다른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다.

- ① 인위적으로 고정되어 있기보다는 자연적으로 변동하고
- ② 고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속된 별개의 음정으로 조직되어
- ③ 음악의 주된 구성 요소로 거의 여겨지지 않고
- ④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래서 측정될 수 없는
- ⑤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적 특징을 전달하는 수단

분명히 빈칸추론 문제의 지문 수준은 높다. 사용된 단어, 문장 구조도 어렵고, 지문의 소재도 어렵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빈칸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게 지문 속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수능은 매년 60만 명 정도가 응시하는 시험이다. 수능 영어의 빈칸 문제의 경우, 60만명이 그 빈칸에 들어갈 정답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문 속에 너무나도 확실하고 명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문제를 푸는 수험생은 그 근거를 찾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근거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문 속에서 찾는 것이다.

다른 독해 유형들도 이와 같이 지문 속에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어휘, 글의 순서, 문장 삽입 유형들도 모두 정답을 위한 근거를 지문 속에 갖고 있다. 학생들은 어디서 어떤 근거를 찾아야 하는 지를 배우기만 하면 된다. EBS의 수능특강, 수능완성 강의를 수강해서 들으면, 강의 중에 독해 유형별로 근거를 찾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 5) EBS 연계교재에 대한 이해

많은 학생들이 고3이 되어서 처음으로 EBS연계교재를 공부하게 된다. 영어의 경우 총 3권의 연계교재가 있다. 연 초에 수능특강 영어,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이 발간되고, 7월 정도에 수능완성이 출시된다. 수능특강 영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다. 유형별로 책이 구성되어 있어서 수능 영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좋다.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은 말 그대로 연습을 하는 책이다. 어려운 유형 위주로 책이 구성되어 있고, 평균적으로는 수능특강 영어보다 난도가 높다. 수능완성은 수능 영어를 완성하기 위한 교재이다. 이 3권은 모두 공부해야 한다. 어느 책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다. 어떤 문제가 연계될지 모르기 때문에 3권을 모두 꼼꼼하게 학습해야 한다.

영어 과목의 경우, 연계가 된다는 것은 EBS연계교재의 지문이 모의고사, 수능 지문으로 거의 그대로 활용이 된다는 의미이다. 내가 공부했던 지문이라고 해서 정답을 바로 맞출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공부했던 지문이 어법이나 글의 흐름 문제로 활용되면, 내용을 안다고 해서 정답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시간 단축의 효과가 확실하다. 1년 중에서 6월, 9월의 시험은 EBS연계교재에서 지문들이 연계가 되는 시험이다. 이 때 연계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다만, 고3의 바쁜 일정 속에서 6월까지 2권의 책, 9월까지 1권의 책을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만 연계의 효과를 알 수 있다.

연계교재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 한다. 수능에 나온다고 하니, 공부를 어디까지 꼼꼼하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것이다. 상위권과 중하위권의 공부법은 달라야 한다. 1~2등급 수준의 상위권은 수능에서 3문제 내외를 틀리는 학생들이다. 이 학생들이 틀리는 문제는 비연계문제이거나, 연계가 되었어도 유형의 특징 때문에 틀리는 문제들이다.

#### 1등급 학생들이 수능에서 틀리는 문제

##### 1. 비연계 문제

##### 2. 연계되었지만 유형이 어려운 문제(어휘, 어법, 글의 순서, 문장 삽입)

이를 예상하고 대비하면 연계교재에 대한 공부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상위권들은 연계교재의 내용을 한국말로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 어차피 틀리는 문제는 비연계이거나, 연계가 되어서 내용을 안다고 해도 별도의 유형별 전략이 필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연계지문이 어법 문제로 활용되었다면, 한국말 내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법 문제를 풀기 위한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위권에게 연계교재는 철저하게 영어 실력을 유지, 향상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굳이 상위권이 연계교재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연계교재를 공부하면 분명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 해에 나오는 교재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교재가 수능특강, 수능완성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의 도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중하위권은 급한 마음에 한국말 내용을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한국말 내용을 외워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 지문의 내용을 안다면, 주제, 제목 유형의 문제는 맞출 수 있겠지만, 현재 EBS연계교재의 내용은 주제, 제목 유형으로는 연계를 하지 않는다. 어차피 내용을 알아도 유형이 바뀌면 문제를 틀린다. 중하위권들은 급한 마음을 버리고, EBS연계교재라는 완성도 높은 교재를 통해서 영어의 기본기를 닦고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연습을 해야 한다. 아무래도 지문의 수준이 높아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쉬운 유형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면 영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영어 공부에 흥미를 찾을 수 있다. 수능특강 영어-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수능완성 의 순서로 공부하면 착실하게 영어 실력을 높일 수 있다.

## 나. 파트별 공부법

### 1) 듣기

듣기는 귀의 문제가 아니다. 생각해보자. 틀리는 문제라 하더라도 틀리는 부분이 있고, 안 틀리는 부분이 있다. 안 틀리는 부분은 왜 안 틀릴까? 그 부분의 단어나 표현을 모르기 때문이다. 모의고사 기준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듣기를 틀린다면 90% 이상의 확률로 모르는 단어나 표현 때문이다. 지금 확인해보자. 지난 수능의 듣기에 나온 표현과 문장들이다. 해석해보자.

1. I'm wondering if I could talk with him. [2018수능 2번]
2. To satisfy our audience's growing needs, we've added three new functions to our app. [2018수능 3번]
3. I hope these new functions of our radio app will make your day more enjoyable. [2018수능 3번]





4. You'll practice how to use various equipment for extinguishing fires.  
[2018수능 5번]
5. She said she rearranged it and emailed me a photo. [2018수능 6번]
6. Did you take care of the accommodations? [2018수능 7번]
7. For example, participants will look for dinosaur bones hidden in sand and then put them together. [2018수능 10번]
8. It won't overlap with our family trip. [2018수능 10번]
9. Registration is only available on the conference WEBSite. [2018수능 11번]
10. The registration fee is \$30, and it's non-refundable. [2018수능 11번]
11. Lastly, in Australia, the material of choice is hardwood from local trees.  
[2018수능 16번]

#### [해석]

1. 나는 그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궁금해 하고 있는 중이다.
2. 청중의 커지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3개의 새로운 기능을 우리 앱에 더했다.
3. 나는 우리 라디오 앱의 이러한 새로운 기능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즐겁게 만들기를 희망한다.
4. 너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다양한 장비 사용법을 실습할 것이다.
5. 그녀는 그 방을 재배치했다고 하면서 내게 이메일로 사진을 보내줬다.
6. 숙박 시설은 처리하셨나요?
7. 예를 들어, 참가자들은 모래에 묻힌 공룡 뼈를 찾아서 그것들을 조립할 것이다.
8. 그것은 우리 가족 여행과 겹치지 않을 것이다.
9. 등록은 회의 웹사이트에서만 가능하다.
10. 끝으로, 호주에서, 선택 재료가 그 지역의 나무에서 나는 단단한 목재이다.

이 표현들을 눈으로 봐도 해석이 안 된다면, 귀로 들으면 아예 이해를 못 한다고 봐야 한다. 듣기 문제를 많이 틀린다면, 듣기 대본을 공부하자. 대본을 독해하듯이 공부하면서 모르는 표현이나 단어를 공부하자. 모르는 단어와 표현이 적어지면, 그 다음에 귀를 훈련하자. 어느 정도 모르는 단어와 표현이 줄어들면, 자신이 공부한 대본의 MP3파일을 다운 받아서 들으면서 영어 특유의 억양과 리듬을 익히자. 기출 문제에 대한 모든 자료는 EBSi 기출문제 카테고리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르면 1주일에 1회-2회 정도는 실제 모의고사처럼 시간을 정해 놓고 모의시험을 실시해 보자. 문제별로 푸는 요령,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의 시간 관리를 연습할 수 있다.

## 2) 어휘

수능 영어 공부의 시작과 끝은 어휘 암기이다. 모의고사 성적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어휘를 매일 암기하고 있지 않다. 어휘는 외워도 자꾸 까먹기 때문에 좌절하고 종도에 포기하거나 다른 공부법을 기웃거리다가 결국에는 암기를 실패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망각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따르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우리는 한 시간이 지나면 전체 내용의

44%, 하루가 지나면 33%만을 기억한다. 10개의 단어를 외우면 하루 지나면, 3개 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것이다. 이마저도 시간이 일주일만 지나도 거의 다 까먹는다. 이런 우리의 타고난 망각본능을 거스르면서 단어를 암기하기 위해서는 영단어 암기의 기본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1. 영단어는 한 두번 보서는 원래 외워지지 않는다.
2. 7번 이상의 반복이 필요하다.

어휘 암기는 결국 기억과의 싸움이다. 우리의 두뇌는 한 두번 보거나 들은 것을 모조리 기억하지 않는다. 정말 강렬한 기억이 아니라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지난 일들을 잊어버린다. 기억을 위해서는 7번 이상의 반복이 필요하다. 같은 어휘를 7번은 봐야 제대로 머리에 각인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의 단어 암기가 왜 실패하는 지 알 수 있다. 단어 책을 1권을 외운다는 것은 같은 단어를 1번, 많아야 2-3번 정도 본다는 의미이다. 이 정도를 보서는 단어를 외울 수 없다. 그렇다면 나머지 5-6번은 어디서 채워야 하는 것일까? 이 때 필요한 것이 '독해'이다. 고3이라면 수능특강, 수능완성을 열심히 풀면서, 또는 기출 문제집을 병행하면서 열심히 독해를 하자. 그 과정에서 수능 수준의 단어를 계속해서 접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같은 단어를 자주 만나는 과정에서 단어 암기가 이루어진다. 다행스럽게도 독해를 하면서 맥락 속에서 단어를 암기하면 훨씬 더 의미 있게 외울 수 있어서 7번까지 암기를 하지 않아도, 뇌에 단어를 각인할 수 있다. 독해를 하면서 문장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암기하는 것은 단어 암기의 치트키,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다.

더 이상 자신의 머리를 탓하면서 더 쉬운 단어 암기 방법을 찾아다니지 말자. 집에 있는 단어 책 1개, 수능특강, 수능완성, 기출문제집 1권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단어 암기를 완성할 수 있다.

### 3) 문법

문법은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 문법은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특히 수능 영어 지문에는 한 지문에 1-2개씩 매우 긴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문장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0수능 34번 빈칸추론 문제의 한 문장을 옮겨 보았다.

Musical sounds, he was saying, can be distinguished from those of nature by the fact that they involve the use of fixed pitches, whereas virtually all natural sounds consist of constantly fluctuating frequencies.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삽입, 수동태, 동격 정도의 문법을 알아야 한다. 길이에 비해서 문법이 많이 활용된 문장은 아니다. 고3이라고 해서 문법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 해석에 꼭 필요한 문법들만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배우면 된다. 문장 해석에 필요한 기초 문법은 EBSi의 [수능개념] 강좌에서 마스터할 수 있다. 기초 문법을 완성한 이후에는 많은 문장들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면 된다.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단어를 암기하면서 문법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4) 독해

일단 독해를 시작하기 전에 단어, 문법, 문장 해석의 기초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방법으로 최대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상태에서 독해에 도전하자. 기초가 약한 상태에서 독해를



해봤자 단어를 모르고, 문장 해석도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단서로 답을 추측하는 능력만 기를 수 있다. 이런 능력은 기를 필요가 없다. 문장 해석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면, 유형별로 독해를 전략적으로 하는 연습을 하자. 독해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1. 글의 주제 파악하기
2. 유형별 근거 찾기

글의 주제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소재에 대한 필자의 의견이다. 특히 빈칸추론 문항의 경우 지문의 난도가 높는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를 찾아 보면 소재를 정리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필자의 의견, 주장을 찾으면 글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유형별로 근거를 찾아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근거가 없는 문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출제 단계에서 그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문장 삽입이나 글의 순서도 반드시 그런 순서여야만 하는 흐름의 근거가 지문 속에 존재한다. 그 근거를 바탕으로 문항을 출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역으로 찾아내어 문제를 정확하게 풀면 된다. 명심하자. 해석만으로 푸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학생들이 대강의 해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감’을 발동하여 정답을 찾는데, 정확한 풀이가 아니고, 오답 확률이 높 존재한다. 문제를 출제한 분은 ‘감’으로 문제를 출제한 것이 아님을 명심하자. 근거로 문제를 출제한 것이고, 우리는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 유형별로 근거를 찾아서 독해를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EBS의 수능특강, 수능완성 강좌에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다.

## 다. 수준별 공부법

### 1) 1-2등급

- 진단 : 영어의 기본기가 비교적 튼튼하며 각 유형에 대한 전략과 시간관리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다. 하지만 자신의 실력을 맹신하며 영어공부를 소홀히 하다가는 6월 모의고사 이후 급격히 점수가 후퇴거리며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다. 안정적인 1등급, 더 나아가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인 만큼, 점수를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다 세심한 학습 전략이 요구된다.

- 처방 : 3점 빈칸 추론 문제에 의해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평소 추상적, 철학적 소재의 고난도 지문을 꾸준히 접하며 글의 논리 전개를 파악하는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또한, 어법성 판단, 문장 삽입, 단락 순서 추론, 요약문 완성 등 오답률이 높은 문항을 집중 공략하여 표준점수를 높이는데 주력한다.

- 학습전략 : 연계교재를 공부할 때, 설혹 틀리는 문항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꼼꼼히 풀어보며 실제 수능에서 확실한 시간 절약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지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연계출제 유형을 예측해보자. 또한, 주요 어휘와 구문을 정리하고 오답 소거의 과정을 점검하는 등의 공부를 통해 실수의 여지도 줄여가도록 한다.

시간분배 전략 문제는 구간별로 세심하게 시간을 배분하고 독해의 강약을 조절하는 훈련을 하도록 한다. 즉, 쉬운 유형의 문제는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고, 여기서 확보된 시간은 어려운 유형의 문제를 푸는데 투자함으로써 정답률을 높이는 전략을 취한다.

## 2) 3-4등급

- 진단 :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나 기본 어휘 등은 갖추어져 있지만,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고 구조가 복잡해지면 해석이 뒤죽박죽 얹히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유형별 전략을 완전히 숙지하고 연습하지 못한 채 감에 의존해서 시험을 친다거나, 시간조절에 실패하여 시험을 칠 때마다 점수가 들쭉날쭉한 수험생들이 많다. 하지만 어설픈 수준의 어휘실력과 어법실력을 가지고 수능에서 고득점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처방 : 여름방학 이전까지는 시간단축에 연연하지 말고, 문장 단위에서 정확히 해석하기 위한 구문독해 훈련부터 시작하도록 한다. 또한, 각 연계교재의 해설지에 수록된 주요 구문 분석을 활용하여 복잡한 문장도 정확히 읽어내는 연습을 한다.

- 학습전략(어휘) : 어휘의 부족은 지문을 읽을 때 부정확한 추론을 하게하여 오답률을 높이고 시간을 부족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반드시 하루에 30~50개의 어휘를 외우고, 주요 어휘들은 예문을 통해 문맥상 쓰임도 함께 익힐 수 있도록 한다.

- 학습전략(독해) : 정해진 문제수를 규칙적으로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단순히 정답만 확인하는 식의 공부는 지양해야 한다. 각 유형별 접근전략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하고, 정답을 놓친 문항에 대해서는 어떤 사고과정을 거쳐 오답을 고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되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해석에 있어 부정확한 부분은 없었는지, 해석은 정확했지만 글의 논리 전개를 잘못 이해한 것인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된다.

- 학습전략(듣기) : 듣기 문항을 모두 맞지 못한다면 1, 2등급으로 도약할 수 없다는 각오로 일주일에 듣기 모의고사 1회 분량은 반드시 풀고, 등하교 시간을 활용하여 틈틈이 듣는 습관을 갖는다. 또한, 어려운 문항의 경우 받아쓰기를 통해 꼼꼼히 점검하고,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 재생하여 들어본다.

## 3) 5-9등급

- 진단 :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마음만 초조하고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시작해야할지 몰라 막막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럴수록 모의고사 결과에 일희일비하며 조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멀리 바라보며 공부해야 한다. 나의 최고 성적은 수능 성적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부정적인 생각은 떨쳐버리자. 반드시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것이다.

- 처방 : 이 교재, 저 교재 기웃거리거나 연계교재 출시 시기에 조급해하기 보다는, 1~2개월 정도는 기본개념을 확실히 다지는데 투자할 것을 추천한다. 그 다음에는 연계교재 커리큘럼을 충실히 따라가며 유형별 학습, 영역별 고득점 전략, 지문 분석 및 주요 구문까지 차근차근 공부해간다면 연계문제뿐 아니라 비연계문제까지 모두 챙길 수 있을 것이다.

- 학습전략(어휘) : 영어 공부의 출발점으로 어휘 학습에 집중할 것을 권한다. 실제 5등급 이하 수험생들의 경우 어휘력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휘력 보강만으로도 상당한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어휘 공부는 질보다는 양이다. 어제 외운 단어가 오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 같은 단어를 최소한 10번은 다시 보겠다는 각오로 매일 일정 분량을 꾸준히 암기하고, 어느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 다시 처음부터 반복하는 학습법을 실천한다.

- 학습전략(독해) :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우리말로 매끄럽게 번역하겠다는 생각으로 독해에 접근하여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수험생들이 많다. 기본기가 약한 상태에서 이런 접근법을 취하면 연계교재의 앞부분만 공부하다가 지레 지치기 쉽다. 따라서 처음에는 지문의 중심 생각을 파악하고, '주제문만큼은 정확하게 해석해보겠다.'는 목표로 독해공부를 시작하여 점차 세부적인 부분까지 완성



해 나가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 학습전략(듣기) : 듣기 유형을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성적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독해보다는 듣기가 시간 투자 대비 점수 상승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 EBS 연계교재 듣기의 음성파일을 등하교시간과 일과시간에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듣는 것을 습관화하고 모르는 표현을 노트에 정리하며 듣기 스크립트도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한다.

## [영어 FAQ]

### Q1. 시험 볼 때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떡하죠?

→ 시간이 부족한 것은 자신의 영어 실력의 부족으로 판단해야 한다. 어휘를 잘 모르고, 긴 문장 해석이 안 되면서 지문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 해서 다시 읽고 또 다시 읽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다. 영어 실력 부족이 시간 부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평소에 어휘, 문법, 문장 해석이 기본기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 다만, 시험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 단축팁들을 익히는 것은 5분, 10분의 시간이라도 단축시켜서 등급을 향상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 ① 연계효과 누리기!

EBS연계교재를 통해 이미 공부했던 지문은 당연히 익숙하지 않은 지문에 비해 그 독해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계지문을 평소 제대로 분석하며 공부해 두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 단축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1년 중에서 연계교재가 시험에 출제되는 시험은 6월, 9월 모의고사와 수능 시험이다. 6월까지의 수능특강 영어, 수특특강 영어독해연습의 공부를 마치자. 9월까지의 수능완성 공부를 마쳐야 한다. 그래야 연계의 효과를 충분히 느끼고 연습할 수 있다.

#### ② 쉬운 문제 먼저! 어려운 건 나중에!

자신이 모의고사 4등급 이하의 실력이라면, 쉬운 문제를 먼저 풀자. 고난도의 어법, 빈칸 추론 등을 풀면서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없다. 쉬운 문제만 모조리 맞춰도 3등급 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 고난도 문항으로 분류되는 어휘, 어법, 빈칸추론, 글의 순서, 문장 삽입은 뒤로 미루고, 쉬운 문제를 먼저 빠르게 풀고, 남은 시간에 고난도의 문항들에 도전하자.

#### ③ 유형별 근거 찾기

근거를 찾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정답을 찾는 속도가 빨라진다. 근거를 못 찾으면 지문 전체를 읽고 또 읽으면서 정답을 찾아야 한다. 이 경우 정답을 찾는다고 해도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린다. 유형별로 근거를 찾아서 푸는 연습을 하면 지문이 다소 길고 어려워도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한다.

## Q2. 단어가 도저히 안 외워집니다. 어떡하죠?

→ 단어는 반복이 생명이다. 최소 5회 이상, 권장 7회 이상 단어를 반복하지 않았다면 안 외워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보통의 의지력을 가진 학생이라면 5회 이상 단어를 반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독해를 많이 할 것을 추천한다. 고3이라면 당연히 수능특강, 수능완성을 풀 것이고, 여기에 기출 문제집 1권 정도를 더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독해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단어를 5번, 6번, 7번 만나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단어가 외워진다. 역설적이지만, 자신의 의지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독해를 많이 하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단어가 외워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Q3. 연계 교재와 기출 문제의 비율을 어떡하죠?

→ 연계교재는 수능특강 영어,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수능완성의 3권이다. 사실 이 정도만 제대로 공부하기에도 고3의 시간은 부족하다. 때문에 기출 문제를 하고 싶은데 시간 부족 문제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다수이다. 솔직히 기출 문제를 공부하기에 최적의 시기는 고2 겨울방학이다. 수능특강이 시작되면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출까지 공부하라고 권하기가 애매하다. 고2 겨울방학 기간 동안 EBS의 [기출의 미래] 정도의 교재와 강좌를 이용해서 기출을 한 번 정리하고 고3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 기출을 훑어보지 못 하고 고3이 시작되어 버렸다면, 일단 연계교재를 공부하자. 그리고 자신이 유독 약한 유형이 발견된다면 해당 유형에 대해서만 기출 문제를 공부하자. 상위권 학생들일수록 글의 순서, 문장 삽입과 같은 글의 흐름을 다루는 문제들에 약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유형만 기출 문제집을 통해서 보충하자. 3년치, 부족하다면 5년치 정도의 기출 문제들을 풀면 분명히 출제 경향, 정답의 근거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혼자서 공부하면 정확한 해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문항에 대한 강좌가 무료로 제공되는 EBS의 [기출의 미래]를 교재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 Q4. 문장을 하나하나 해석하느라 시간이 늘 부족해요. 어떡하죠?

→ 중하위권의 학생들일수록 문장 하나하나에 눈길이 가고 해석이 그만큼 느려진다. 이는 지문의 전개 방식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능 지문의 문장들은 각각의 성격을 갖고 있다. 주제, 예시, 부연 등이다. 각 문장의 성격을 세밀하게 분류할 필요는 없고, 최소한 글의 주제를 잡으려는 노력을 하자. 중요한 문장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려는 연습을 하면 지문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글의 초중반에 however, but이 등장하면서 나오는 문장은 중요한 문장이다. for example로 시작하는 문장은 당연히 예시문이다. 글의 후반에 therefore로 시작하는 문장은 결론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단서를 바탕으로 문장의 성격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는 연습을 하면 문장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습관을 버릴 수 있고, 독해 속도도 자연히 빨라진다.

## Q5. 모의고사 복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고3은 거의 매달 모의고사를 실시한다. 모의고사는 열심히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습이 더 중요



한 시험이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다음 시험까지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의고사를 보고 난 이후에는 틀린 문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영어 문항을 틀리는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다.

1. 어휘 부족
2. 문장 해석 부족
3. 유형별 근거 찾는 능력 부족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서 다음 시험까지 준비를 해야 한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고3들에게 막연한 공부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 매일 독해 문제를 일정하게 푸는 것으로 영어 공부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고3들이 많은데, 잘못된 생각이다. 자신의 약점에 따라서 어휘에 집중해야할 수도 있고, 문장 해석을 꼼꼼하게 해야할 수도 있고, 특정 유형의 문항만 풀어야할 수도 있다. 약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공부를 하자. 모의고사가 끝난 이후에 힘들겠지만, 반드시 틀린 문제를 하나씩 보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틀렸는지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공부 계획을 세우자. 약간 더 힘들면 결과는 훨씬 더 좋을 것이다.

## 6.4 한국사

### 가. 한국사 학습 주요사항

#### 1) 필수 과목

한국사는 수능 필수과목으로 수능을 응시하는 모든 학생이 응시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응시하지 않을 경우 수능 성적표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여기서 응시라는 것은 수능 당일 시험장에 꼭 있어야 한다는 것)

#### 2) 절대 평가와 쉬운 시험

등급	1	2	3	4	5	6	7	8	9
분할기준 (원점수)	50점 ~ 40점 이상	40점 미만 ~ 35점 이상	35점 미만 ~ 30점 이상	30점 미만 ~ 25점 이상	25점 미만 ~ 20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이상	15점 미만 ~ 10점 이상	10점 미만 ~ 5점 이상	5점 미만 ~ 0점

한국사는 성적표에 등급만 표기되는 절대 평가 과목이다.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절대 평가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실제 다른 사회탐구 과목처럼 만점을 받기 위해 지엽적인 부분까지 암기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성실한 개념학습을 바탕으로 핵심 키워드만 잘 정리되어 있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 3) 문항 구성

보통 전근대사(선사시대~조선 후기) 10문제, 근현대사(개항기~현대사) 10문제로 출제되고 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선사시대~남북국 시대	3문제	전근대사
고려	3문제	
조선	4문제	
개항~국권피탈기	3문제	근현대사
일제 강점기	4문제	
광복 이후 현대사	3문제	





#### 4) 공부의 핵심

첫째, 전 범위에 대해 제대로 한번 이상 공부할 것

반드시 한국사 전 범위 내용을 ‘제대로’ 한 번 이상 공부해야 한다. 문제가 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공부할 양이 적은 편은 아니다. 따라서 일단 학교 수업이든 인터넷 강의든 개념 학습을 성실하게 해놓기를 권한다. 최근 수능 시험을 보면 쉬운 한국사 체제 내에서도 조금씩 어려워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방심하고 개념 학습을 소홀히 했을 경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수능은 단순히 개념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료에 대한 해석 능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낯선 지문 속에서 핵심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매 주제별 핵심 키워드를 짚어주는 강의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

둘째, 키워드 정리만 잘 되어 있어도 순식간에 등급 상승이 가능

시험 문제를 보면 5지선다형이라고 하지만 매력적인 오답(헛갈리게 하는 선지)이 극히 적고, 가끔은 너무나도 파격적인(?) (ex : 고려시대 문제인데 20세기 내용이 선지로 나오는 경우 등) 오답 선지로 인해 5지선다라기보다는 4지선다 내지는 3지선다로 보일 때가 있다. 즉 자신이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공부해놓았다면 인과관계 없이 관련된 키워드만 가려낼 줄 알아도 상당수의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

### 나. 파트별 공부법

#### 1) 전근대사

- 철저하게 키워드 중심

인과관계를 파악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올바르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사건의 여러 개념들을 가려낼 줄만 알아도 대개의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 키워드 매칭을 우선적으로 연습해보자.

- 첫 번째 고비 ‘삼국시대’

삼국시대가 첫 번째 고비인 이유는 첫째, 왕을 비롯한 인물이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 둘째, 한 국가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삼국(가야까지 보면 4국)을 봐야하기에 처음 하는 학생들은 흐름을 잡지 못하고 포기하게 된다. 접근방향은 이렇다. ① 전성기 내용(각국 전성기 군주와 각각의 업적)을 먼저 파악한다. ② 두 국가 이상이 서로 만나는 사건에 주목한다. (ex : 장수왕(고)-개로왕(백), 진흥왕(신)-성왕(백)) 일단 이렇게라도 중심을 잡아놓고 대비를 한 뒤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금방 감이 잡힐 것이다.

- 두 번째 고비 ‘사회·경제·문화사’

정치사와 달리 사회·경제·문화사는 스토리가 연결되지 않아 어려워한다. 딱딱해서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이럴 때일수록 최우선적인 내용을 먼저 선별하고 그 뒤는 개념을 반복하거나 문제를 더 풀면서 채워나가면 된다. 단 한번의 수업(또는 인강 수강)으로 모든 것이 숙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① 경제 : 토지제도(관리) ② 경제 : 조세제도 ③ 문화 : 시대별로 많은 내용이 있긴 하지만 막상 정답이 되는 경우는 각 국가와 시대를 넘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문화재 중심으로 나온다.

## 2) 근현대사

### - 연대기적 감각 필요

19세기 중반부터 전개되는 근현대사는 말 그대로 연도별로 사건들이 긴박하게 쭉쭉 진행된다. 연도를 외우라는 것은 아니지만 긴박하게 전개되는 흐름을 잘 타야 근현대사에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다. 역사 속 굵직한 사건들 정도는 연도를 파악해둬야 흐름을 읽히고 사건과 사건 사이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권피탈기 내용 중 을사늑약 1905년, 경술국치 1910년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이 주제 속 여러 사건들을 질서 정연하게 정리할 수 있다.)

### - 사건과 인물, 그리고 단체

흐름을 잘 타면서 사건을 잘 정리한다면 위의 전근대사 파트와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통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만 독립운동 과정에서 많은 단체,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기출 중심으로 파악해 보면 중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있으니 그것으로 중심을 잡으면서 너무 힘들어 하지 말기 바란다. (무장투쟁을 보면 수많은 단체가 나오지만 의열단, 한인애국단, 한국광복군 중심인 것처럼) 또한 그 만큼 나라가 어려울 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자세로 임하다보면 더 수월하게 느껴질 것이다.

## [한국사 FAQ]

### Q1. 개념강의를 꼭 들어야 할까요?

→ 학교 수업을 충분히 잘 소화했고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면 개념강의를 강권하진 않겠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한국사 시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을 목격한 선생님으로서의 의견은 방학이나 주말처럼 시간이 있을 때 개념강의를 최대한 빨리 한번이라도 돌려놓고 점검을 해놓는 것이 안전하게 수능을 대비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다.

### Q2. 국영수탐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빠르게 할 수 있을까요?

→ 요즘은 자세한 개념강의도 20강 전후이므로 빠른 배속까지 곁들이면 1주 이내로 충분히 완강할 수 있다. 이 방법이 힘든 학생들을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다.

첫째, 키워드 중심으로 접근하면 10강 정도로도 요약이 가능하며 이미 이런 유형의 강의들이 여럿 나와있어서 강의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 (아니면 자료실의 요약 자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둘째, 그것도 안된다면 6월, 9월, 수능 문제 몇 년치를 풀면서 자주 출제되는 최소한의 내용을 스스로 정리할 수도 있다.



### Q3. 언제부터 대비 하는 게 좋을까요?

→ 방학이나 여유 있을 때 곧바로 끝내놓고 가끔씩 요약강의나 문제풀이로 감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한다.

### Q4. 문제를 얼마나 풀어야 하나요?

→ 평가원 문제와 연계교재(수능특강)만으로도 충분하다. 사실 문제가 절대 필요 없다.

### Q5. 심화된 내용은 어떻게 공부할 수 있나요?

→ 가끔 너무 쉬워서 심화된 학습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는데 ebsi의 개정고급한국사, 한국사 종합완성 같은 현존 최고의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 들어도 좋고 궁금한 부분을 발췌해서 수강해도 좋을 것이다.

## 6.5 사회탐구

### 가. 사회탐구 학습 주요사항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될 수험생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첫 세대다. 수능 역시 문·이과 융합형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공론화 과정이라는 1년 유예기간이 생겼다. 수험생들은 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배우지만, 수능은 2020학년도와 같이 치르게 되었다.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의 단원 체계가 달라지고 새로운 개념이 추가되거나 제외되기도 하였다. 특히 ‘법과정치’에서 ‘정치와 법’으로 교과명까지 바뀔 정도로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 등 기존의 문제를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한다. 사회탐구 9과목 가운데 2과목을 선택하고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 교재와 수능을 70% 연계하는 정책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수험생들은 겨울방학 때 사회탐구 선택 과목을 결정해야 한다. 2020년 1~2월 동안 적어도 한 과목의 개념 정리는 끝내야 한다. 만점 1등급을 목표로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이 증가하는 만큼 한발 앞서 개념 정리를 마무리하고, 꾸준히 문제 적용 연습을 해야 한다.

사회탐구는 국어, 영어, 수학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에 노력한 만큼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과목이다. 집중력을 갖고 개념을 완성하고, 단순 암기나 문제풀이식 공부가 아니라 문제 유형을 분석하는 진짜 공부를 한다면 고득점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고3 수험생활은 변수가 많고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대비해야 하며 입시 일정 소화 등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본격적인 수험생활을 시작하는 3월부터는 학교 수업과 국·영·수 공부로 사회탐구 영역을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 겨울방학이나 학기 초를 이용하여 깊이 있는 공부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EBS 수능개념 강의를 들으며 기본 개념을 익히도록 하자. 사회탐구는 결국 자신감의 문제다.

### 나. 사회탐구 과목 선택 방법

수험생 입장에서는 지난해 사회탐구 과목별 난도나 표준점수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과목 간 난도 차이로 인해 어느 과목을 택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탐구 9개 과목의 응시인원, 난도가 매년 달라지고 표준점수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과목별 난도나 표준점수는 과목 선택의 고려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많은 대학들이 과목별 유불리가 나타나는 표준점수보다는 백분위 점수를 변환표준점수로 다시 산출해 반영한다. 자신의 흥미와 내신 과목, 전공 선택 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요인들을 토대로 선택 과목을 결정해야 한다.

#### 1) 학교 내신 과목을 수능에도 선택하라.

학교 내신 과목과 수능 선택 과목을 일치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내신 과목 외에 다른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 학습 부담이 커지게 된다. 3학년 때 공부하게 될 과목으로 선택한다면 꼭 겨울방학동안 EBS 수능개념 강의를 활용하여 개념을 예습하는 것이 좋다. 개학 후 학교 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개념을 2회독 하게 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된다.



2학년 때 내신으로 공부한 사탐 과목과 3학년 내신으로 공부할 사탐 과목을 각각 한 과목씩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2학년 때 내신으로 한 과목을 이미 끝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1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겨울방학 동안 체계적으로 개념을 정리하여야 한다. 수능 출제 포인트를 잡지 않고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가게 되면 장기간 등급 정체에 빠질 수 있다. 이때에도 EBS 개념 강의를 활용하여 자신의 개념 교재를 완성하자.

서울 상위권 대학 합격자들의 80% 이상은 3학년 3월 학력평가 이전에 사탐 2과목의 개념을 끝낸다는 것을 명심해라. 3학년 내신은 반영 비중이 높으므로 내신 공부와 수능을 병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한 과목 이상은 내신 과목과 일치시키자.

## 2) 교과 연관성이 높은 과목을 선택하라.

적어도 한 과목은 내신 과목과 일치시키고 나머지 한 과목은 이미 선택한 과목과 교과 연관성이 높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학습량을 줄이고 선택 교과 간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조합을 고려해야 한다. 교과 간 연관성이 높은 사탐 SET는 다음과 같다.

- ① 한국지리 - 세계지리 : 기후, 지형, 인구, 도시 등 개념 원리가 동일하여 학습량 대폭 감소
- ② 윤리와 사상 - 생활과 윤리 : 생활과 윤리의 고난도 문제가 윤리와 사상에서도 그대로 출제되므로 어려운 사상이 주제를 한 번 공부하면 두 과목의 고난도 문제 해결 가능
- ③ 세계사 - 동아시아사 : 중국사, 일본사 등 동아시아사의 내용이 세계사 내용과 겹치므로 학습량 대폭 감소

## 3) 평소 선호하는 과목을 선택하라.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재미있으면 자주하게 되고, 자주하면 잘 하게 된다. 1학년 통합사회를 배우면서 재미있게 공부했던 영역을 생각해보고, 독서 등 간접 경험을 통해 평소 관심이 많았던 분야와 관련 깊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대학에서 전공하고 싶은 학과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인문사회 계열의 많은 학생들이 사회과학 전공을 선호한다. 경제학, 행정학, 법학, 정치학, 사회학 등을 전공하고 싶다면 일반사회(정치와 법, 사회문화, 경제 등) 과목을 수능 선택으로 고려할 수 있다.

9개의 사회탐구 과목 중 어떤 과목을 선택하여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신중하게 결정하되, 한번 결정하면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가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

## 다. 파트별 학습법

### 1) 일반사회계열 학습법

- ① 수능 출제 포인트! 빈출 주제가 정해져 있다.

사회문화, 정치와 법, 경제는 매년 수능에 출제되는 핵심 개념이 반복적으로 출제된다. 단원별 출제 문항수도 거의 정해져 있다. 최근 3년간 기출문제를 토대로 수능에 출제되는 빈출 주제를 뽑아보면 대략 30개 내외로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빈출 주제는 단원별 마인드맵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대단원명, 대단원별 중단원명, 중단원별 핵심개념이라는 체계를 세워본다. 핵심개념과 기출문제의 평가요소를 각각 대입하여 단원별 빈출 주제 및 주제별 중요도를 수험생이 스스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② 어려워진 사탐, 꾸준한 문제 적용 연습이 중요하다.

사회탐구 고득점을 위해 개념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은 몇 번을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최근 사회탐구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문제 적용 연습이 개념 완성만큼 중요해졌다. 수능 문제는 추론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단순 암기로는 고득점을 받을 수 없다. 문제 유형을 익히지 않으면 개념은 이해했는데 등급은 정체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기출 문제를 통해서 문제 유형을 파악해야 한다. 최근 3년간 기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대략의 문제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개념별로 정리된 문제집을 활용하여 빈출 개념을 정리한다. 문제 풀이보다 주요 개념이 어떤 형식의 문제로 만들어지는지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능특강, 수능완성, 기출 문제 등 필수 교재의 문제를 여러번 꼼꼼히 풀어보자.

### ③ 수능의 출제 경향! 평가원 모의고사에 답이 있다.

평가원 모의고사는 올해 수험생들의 수준을 파악하여 수능 난도를 조절하려는 목적을 갖고 출제된다. 이를 위해 수능과 똑같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출제하기 때문에 이름만 모의고사일뿐 '6월과 9월에 보는 수능'과 다름없다. 당해 수능의 경향, 특히 문제 유형은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고사를 통해 예고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평가원 모의고사는 그 해 수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고난도 문제의 주제는 물론이고 신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EBS-수능 연계 정책에 따라 수능특강, 수능완성 교재의 문제가 어떻게 변형되고 연계되어 출제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결국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등급이라는 결과보다 문제와 유형을 분석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지금은 매우 새롭게 보이는 문제 유형이라도 반복해서 보고 분석한다면, 수능에서는 더 이상 어렵고 생소한 문제가 아닌, 등급을 올리는 전략 문제로 작용할 것이다.

## [일반사회 FAQ]

### Q1. 기출 문제는 언제 공부하나요?

→ 수능 공부에서 기출 분석은 정말 중요하다. 적어도 개념 1회독을 한 이후에 시작하면 좋다. 과목 전체 내용에 대한 큰 그림을 파악하고 난 이후에 개념별로 분류된 기출 문제를 풀이하면 단원별 출제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념별로 분류된 기출 문제를 최신부터 순차적으로 늘려가면서 풀이하는 것이 좋다. 최근 3년의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데, 그 중에서도 평가원이 출제하는 6월, 9월, 수능을 먼저 보고, 3, 4, 7, 10월 학력평가를 보면 된다. 기출문제는 여러번 풀이하되, 정답을 맞추는 문제 풀이가 아니라, 제시문의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고, 선지의 진위를 파악하며,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분석하는 문제 풀이'를 해야 한다.

### Q2. 수능특강과 수능개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사회탐구 수능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 완성'이다. 자신의 머릿 속에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혔을 때 자유롭게 개념을 꺼내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수능 공부의 순서는 먼저 개념을 완성



한 후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다. 수능개념은 개념을 설명하고,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사례를 제시하는 ‘개념’ 중심의 강의다. 수능특강은 문제집이다. 수능 연계 교재로서 300개 내외의 문항이 수록되어 있다. 핵심 개념을 요약하지만, 강의의 포인트는 문제 분석 및 풀이다. 따라서 수능 사회탐구 공부의 시작은 수능 개념이다.

### Q3. 모의고사 성적이 안 올라요.

→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건 3가지 이유 중 하나다. 첫째, 개념 강의를 들었을 뿐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은 ‘가짜 공부’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진짜 공부는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단원 체계를 세우기 위해 여러번 복습하고 반복하는 것이다. 둘째, 개념을 공부했음에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는 기출 분석이 안된 경우이다.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고, 정답만 맞췄을 뿐 문제 유형, 선지 분석이 되지 않으면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제시문, 선지, 문제 유형을 꼼꼼하게 분석해야 한다. 셋째, 꾸준함이다. 주기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실력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다. 실제로 9월 모의고사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고, 정작 수능에서는 실패한 경우를 종종 본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개념과 문제 유형을 파악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 2) 지리계열 학습법

### 2-1) 한국지리, 세계지리 공통

#### ① 무조건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지리는 다른 사회탐구 과목에 비해 개념 학습 분량이 많은 편이지만 개념을 한번 탄탄하게 정리해두면 타 과목에 비해 그 지속성이 높은 편이다. 어려운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문항의 경우 개념만 잘 정리해두어도 풀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어려운 자료가 제시된 경우에도 자료 해석만 잘 이루어지면 이미 학습한 개념을 적용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선지들이 제시된다. 따라서 개념을 충실히 공부해둔다면 자료 해석 및 문제풀이가 훨씬 쉬워진다. 지리의 경우 다른 사회탐구 과목에 비해 인과성이 높은 개념을 다루기 때문에 원리부터 출발해서 차근차근 이해하며 학습하면 더 쉽게 개념을 학습할 수 있고, 오랫동안 파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완벽하게 이해된 개념을 바탕으로 확장적인 사고를 통해 보다 고차원적인 명제들까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통한 개념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 이해를 통해 개념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항상 ‘왜 그럴까?’하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 ‘왜 그럴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곧 학습의 과정이며, 개념을 이해해가는 과정이다. 개념 학습의 경우 한 두 번의 강의 수강으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의를 수강한 후 꾸준히 복습을 해가며,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 ② 각 지역의 특성을 토대로 통계자료를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지리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이지만 개념만 학습한다고 해서 모든 문항을 풀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항은 일반적으로 발문, 자료, 선지로 구성되며, 지리에서 자료로 가장 많이 제시되는 것 중 하나가 통계자료이다. 굉장히 다양한 통계자료 중에서도 수능 문항에는 주로 어떤 지역의 지역성을 파악하거나, 또는 지역성을 토대로 주제나 특징 등을 추론할 수 있는 통계자료들이 출제된다. 기본적으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통계자료를 해석해야하지만, 빈출되는 통계자료의 경우 꾸준한 연습과 반복을 통

해 친숙하게 익혀두는 것이 좋다. 통계자료를 살펴볼 때는 기본적으로 기출되었던 통계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다양한 형태와 주제로 살펴두는 것이 좋다. 한국지리 제조업 분포의 경우 표, 그래프를 모두 정리하면서, 시도별, 도시별, 권역별 자료를 고루 살펴봐야 한다. 통계자료는 암기보단 각 지역, 주제별 특성을 토대로 통계의 분포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세계지리 라틴아메리카 민족 및 인종의 분포의 경우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은 백인, 열대기후가 나타나 플랜테이션 농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흑인의 비중이 높다.’와 같이 해당 지역의 자연, 인문적인 특성을 토대로 통계자료를 이해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이해할 수 없는 자료의 경우에는 자신만의 방법을 사용하여 암기를 해야 하지만 이 경우 암기만 해두면 맞출 수 있는 문항들이 주로 출제된다.

### ③ 위치는 기본이다.

위치가 지역성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다. 적도 부근에 위치하면 대체로 열대기후가, 회귀선 부근에 위치하면 대체로 사막기후가 나타나듯이 어떤 지역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특징이 결정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리의 기본은 위치이다. 그래서 지리 관련 문항에서는 지도를 활용한 문항의 출제 빈도가 높다. 그렇다고 모든 지역들이 지도 문제로 출제되진 않는다. 뚜렷한 지역성을 갖고 있거나, 위치를 토대로 지역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들이 주로 출제되며, 비슷한 지역들이 반복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되었던 지역들을 정리해보면 지도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지도 학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학습 시 지도를 옆에 두고 학습과정에서 언급되는 지역들을 지도에 직접 표시한 후 해당 지역의 특성을 정리해보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많은 지역의 다양한 지리적인 특색이 지도에 담기게 될 것이며, 이는 지도 관련 문제를 풀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기만의 지도가 될 것이다. 위치는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친숙해지는 것이다. 외우려 하기 보다는 자주 보는 것이 좋다.

## 2-2) 세계지리

세계지리라는 과목을 처음 대했을 때, ‘세계’라는 넓은 범위를 다룬다는 사실만으로 지레 겁을 먹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나 넓은 지역을 다루는 만큼 학습의 깊이는 얇은 편이고, 뚜렷한 지역성을 갖고 있는 지역들 위주로 학습하기 때문에 다루는 지역들도 생각보다 협소한 편이니,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서 처음엔 부담을 느끼던 학생들도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큰 흥미를 갖고 학습을 진행해나가는 경우가 많다. 세계지리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는 기후이다. 기후는 위치에 따른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며, 농업 및 목축업, 토양, 식생, 인구, 종교 등 여러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렵더라도 꼼꼼하고 확실하게 이해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세계지리 여러 주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프레임 중 하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특징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 역시 산업, 인구 등 여러 주제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를 접근할 때 이를 염두에 둔다면 세계지리를 보다 수월하게 학습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2-3) 한국지리

한국지리는 세계지리보다 좁은 범위를 학습하긴 하지만 더 세세한 내용들까지 다루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학습을 더욱 꼼꼼히 해야 한다. 특히 여러 주제와 관련된 통계자료들이 아주 다양하게 제시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통계자료를 해석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통계자료의 경우 암기에 치우치기보단 학습한 개념과 여러 지역의 지역성을 바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한국지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대해 학습하는 과목인 만큼 주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개념이나 생활하면서 접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하며 주변의 것들을 보다 관심 있게 살펴본다면





더 재밌고, 쉽게 학습할 수 있다. 한국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은 5단원 생산과 소비의 공간이다. 자원, 공업, 농업, 산업 구조와 관련하여 통계자료를 활용한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최근에는 도시와 관련된 고난도 문항의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최신 문제 트렌드를 확인하고 이에 철저히 대비해두어야 한다.

## [지리계열 FAQ]

### Q1. 지리는 지구과학과 비슷해서 과학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나요?

→ 분명 과학 관련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학습 포인트가 다르다. 예를 들어 지구과학은 화성암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성분과 분출 온도 차이로 인해 각각의 암석이 가진 특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암석’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하는 반면 한국지리의 경우, 제주도의 기반암이 현무암이기 때문에 배수가 양호하기 때문에 발의 비율이 높고, 해안에 용천대가 발달하는 것과 같이 ‘인간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해야 한다. 과학 관련 내용이 나오지만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괜찮다.

### Q2. 지리는 암기할 것이 많지 않나요?

→ 사실 모든 과목의 학습해서 암기는 필수적인 부분이다. 지리에서도 분명 암기할 부분이 있다. 하지만 지리는 다른 사회탐구 과목에 비해 인과관계가 뚜렷한 과목이다. 암기보단 원리를 통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암기를 해야 하는 부분들 또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보다 쉽게 기억에 남기 때문에 지리 학습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의문을 갖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다.

### Q3. 세계 모든 나라, 한국 모든 지역의 위치와 이름을 다 외워야 하나요?

→ 아니다! 절대 세계 모든 나라, 한국 모든 지역의 위치와 이름을 다 외워야하는 것은 아니다. 지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지역성이며, 여러 지역들 중 지역성이 아주 뚜렷한 지역들 위주로 학습하며, 시험에서 그런 지역들 위주로 출제된다. 또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역들이 거의 정해져있어서 빈출되는 지역들 위주로 학습하면 된다. 절대 모든 지역의 위치를 다 외워야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라.

## 3) 윤리계열 학습법

### ① 특정 주제에 대한 여러 사상가들의 입장을 비교 분석적으로 이해하기

한 주제에 대해 공통된 입장 혹은 상이한 입장을 가진 사상가들의 조합이 문항의 전형적 구조이다. 개념학습 시, 그 구조를 생각하며 각 사상가들의 입장과 맥락을 이해해 둔다. 키워드는 그 서로 다른 입장을 결정해주는 표현들에서 잡아야 한다.

[예: 윤리와 사상] 도, 예, 이치, 진리, 도덕적 판단, 도덕적 행동 등

유가는 예(禮)를 도덕성의 완성, 사회 규범으로써 중시하지만, 도가는 예를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본다. 유가 내에서도 맹자는 예를 사덕 중 하나로 내재적 가능성으로 보지만, 순자는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요인으로 본다. 기초 개념을 정리하되 이렇게 사상가들 간의 비교분석이 문항의 구성임을 알아 두며 재확인한다.

[예: 생활과 윤리] 도덕적 고려의 대상, 정의로운 분배의 기준 등

레건과 싱어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동물을 포함한다. 하지만 레건은 의무론의 계승, 싱어는 공리주의의 계승점에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논리가 구성된다.

### ② 기본 전제로부터 결론까지 논리적으로 정리해두기.

각 사상가 입장의 기본 전제 → 지향점과 비판점 → 해결방안과 같은 큰 틀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연습이 좋다.

[예: 윤리와 사상] 맹자는 성선설 → 선한 본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선한 본성을 가리는 욕구를 절제하기. 순자는 성악설⇒악한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훌륭한 군주의 통치와 각자의 수양으로 본성 변화시키기.

[예: 생활과 윤리] 싱어는 공리주의⇒쾌고감수능력 소유 여부가 도덕적 판단의 관건⇒쾌고감수능력을 지닌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함

레건은 의무론⇒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를 존중해야 함⇒‘삶의 주체’가 되는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함

### ③ 자신이 오해한 개념 · 용어들 바로잡기. 정확한 표현들, 텍스트 활용해 읽어두기

위와 같은 과정을 열심히 하더라도, 자신의 언어나 논리가 개입되어서 자칫 개념을 오해하기도 한다. 개념학습을 할 때 보다 문항을 풀어보면 제시문과 선택지의 함정에서 잘 걸리는 이유다. 그러니 교재에 소개된 자료, 기출 문항의 제시문과 선택지 자료를 정확하게 읽어가는 것은 귀한 투자이다. 특히 사상가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구성되는 문항은 제시문의 내용과 선택지의 내용구성이 긴밀하게 연결되므로 학습 자료로 잘 활용하면 좋다.

## [윤리계열 FAQ]

### Q1. 개념어, 한자 다 외워야 하나요?

→ 한자나 단어를 그 사상가의 입장을 표현해주는 도구이다. 단어가 함축하는 기본 의미와 지향점을 정확히 알아두자. 다양하게 변형되어가는 선지 판단에 도움 되므로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얻는 셈이다. 처음



에는 잘 정리해 두고 각 커리를 통해 반복하면서 암기하자.

## Q2. 다 적어야 하나요?

→ 중요한 내용이거나, 문항 풀이에 적용되는 소스면 언젠가는 적게 된다. 정확한 의미를 메모로 적어 두면 좋다. 아니면 그 근거가 되는 자료나 문항의 출처를 꼭 메모해 두자.

## Q3. 출제는 되는데 어렵지 않은 단원 공부 어떻게 할까요?

→ 출제 방향에 맞추어 압축된 개념정리를 해 둔다. 의외로 길고 복잡하게 구성된 제시문과 선택지에 빠르게 접근하고 실수를 줄여 득점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

## 4) 역사계열 학습법

### 4-1) 세계사

① 서양사, 중국사, 각국사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서양사의 비중이 가장 크다. 따라서 비중 순으로 서양사→중국사→각 국사 순으로 접근하면 학습 부담이 점차 줄어드는 느낌이 들 수 있다. 아니면 정반대로 좀 더 쉬운 중국사를 빨리 끝내면서 속도감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여하튼 다행인 것은 동아시아사처럼 동시대 국가 간의 상황을 묻는 문제보다는 개별 국가나 왕조의 상황을 파악하는 문제가 위주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따로 따로 덩어리 지어 공부할 수도 있다.

② 학교수업을 잘 듣는다 할지라도 인터넷 강의가 필요하다. (세계사를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도 사실이다.) 방대한 양을 효율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한 커리큘럼이 계속 제공되기 때문이다. 개념강의로 전체 내용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연계교재를 통해 출제될 수 있는 자료 속지, 문제 풀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단권화 교재나 노트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능을 보는 그 순간까지 자신만의 교재를 완벽하게 숙지(암기라고 해도 좋다.)하고 있어야 한다.

③ 개념 속지가 어느정도 되었고 평가원 기출문제 풀이에서도 안정적인 느낌이 든다면 난도를 조금 높여도 좋다. 사료를 모아보기, 출제되었거나 연계교재에 수록된 지도 꼼꼼하게 파악하기, 마지막으로 집중적으로 연표 파악하기 등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다양한 접근을 통해 개념을 반복해주는 것이다.

### 4-2) 동아시아사

아무리 관계사라지만 역사과목이기 때문에 각 국가별 흐름이 제대로 잡혀있어야 한다. 즉 한국사는 한국사대로, 일본사는 일본사대로, 중국사는 중국사대로 튼튼하게 뼈대가 잡혀있어야 관계사로 연결지를 때 수월하다. 주어진 교재를 놓고 국가별로 내용을 모아서 파악해보는 방법이 있다. 교과서별로 개성이 다양한 것처럼 공부 방법 또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인터넷 강의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EBS의 동아시아사

강의는 교육과정 및 출제 매커니즘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아는 강사진이라는 사실!) 세계사와 마찬가지로 개념 파악 이후 연표를 기반으로 한 학습이 필요하다.

## [역사계열 FAQ]

### Q1.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를 함께 하는게 꼭 유리한가요?

→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단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에 추천할 수 있는 조합이다. 타 과목에 비해 ‘꼬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부 과정에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두 과목 모두 각각 수능 ‘10분 컷’ 효자과목이 될 수도 있다. 역사를 좋아한다면 입시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쌓을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부담이 된다면 언제나 고3 내신에서 수강하면서 점수도 괜찮게 나오는 과목 또한 1순위 선택과목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Q2. 교과서를 꼭 읽어야 하나요?

→ 읽으면 좋다. 자신만의 개념교재(수능개념, 수능특강 또는 자신만의 개념교재)를 철저하게 학습하면 수능 대비가 충분히 가능하긴 하지만 안정적 만점을 목표로 한다면 교과서를 제대로 읽을 필요도 있다. 킬러문제로 연표뿐만 아니라 지엽적인 내용도 염두해야 하며 다양한 사료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본인의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추가로 1권 이상 더 읽을 때 효과가 높다. 교과서를 먼저 읽기 보다는 인터넷강의를 통해 개념공부가 잘 된 상태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최대한 빠르게 읽어보는 것이 좋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개념학습이 잘 된 학생의 경우 알고 있는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술술 익힐 것이다.

### Q3. 연표를 꼭 암기해야 하나요?

→ 처음부터라고 말한다면 “그렇지 않다.” 개념은 어느 정도 되었는데 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대답 하겠다. 결국 한 문제가 등급을 가르는 시험이다. 그리고 보통 그 문제는 연표를 바탕으로 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 시험은 상대평가이고 연표를 철저히 숙지하게 되면 다른 학생들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암기방법에 왕도는 없지만 추천방법은 ① 평가원 기출문제, 연계교재에 출제된 문제들의 자료 및 선지마다 연도나 세기를 적는 습관을 기른다. ② 시기 문제만 모아놓고 풀어보면서 집중적으로 연습한다. ③ 잘 외워지지 않는 시기만 따로 메모하여 자투리 시간마다 챙겨본다. ④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 자신이 직접 연표를 만든다.



## 6.6 과학탐구

### 가. 과학탐구 학습 주요사항

2022학년도부터는 문과/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탐구과목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과학I, II) 중에서 구분 없이 택2를 하도록 대입제도가 개편되었으나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은 자연계열 수험생이라면 과학 두 과목 선택을 필수로 지정하는 입학전형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대입제도 개편이 큰 폭의 변화를 예고하기는 하지만 탐구과목을 선택하고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과목별 공부 방법 등은 기존의 입시와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 나. 과학탐구 과목 선택 방법

- ☒ 진로와 관련 있는 과목 or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
- ☒ 선택이 빠를수록 심도 있는 공부를 위한 시간 확보가 가능
- ☒ 내 결정이 최선이라는 확신을 가질 것

탐구과목을 선택할 때는 과목별 수능 응시자 수나 출제 난도 등에 따라 수험생에게 유불리함도 생기므로 과목을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이 있는 과목을 선택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진학을 희망하는 학과와 관련 있는 공부를 하게 되면 더욱 깊이 있게 집중력을 발휘하여 이해 기반 학습을 할 수 있고, 흥미를 가진 과목의 경우 수험 생활을 해나가면서 끈기를 가지고 등급 향상을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택과목을 결정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이 최선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 다. 수준별 학습 전략

과학탐구 영역은 타 영역에 비해 문제의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고 다루는 내용도 제한적이다. 또한 매년 단원별, 개념별로 문제가 고르게 출제되고 명확한 핵심개념을 반복해서 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구 영역에서 고전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개념보다는 경험에 의한 풀이 과정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풀었던 문제와 일치하는 문제는 해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인식하게 된다. 실제 모의고사나 수능은 여러 개념의 통합, 문항의 변형, 자료 표현 방법의 변화 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잘못된 공부법으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얻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준에 맞게 학습법을 설정하되, 기출 및 연계교재를 학습함에 있어 단순히 문제를 암기하는 방법이 아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탐구하는 방법으로 학습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1) 상위권 (1-2등급)

1등급이 꾸준히 나오는 학생은 절대 자만하지 말고 만점을 목표로, 2등급 학생은 시간 안배에 대한 철저한 연습으로 안정적인 1등급 진입을 노려야 한다. 이 학생들은 이미 기본 개념이 탄탄하고 수능 출제 경

항 또한 매우 잘 파악하고 있기에 남은 시간동안 고난도 문제, 소위 킬러문항으로 불리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고난도 문항은 시간 내에 문제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고난도 문제는 처음 풀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문제에 제시된 단서, 묻는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올해 모의고사, EBS 연계 교재, 과년도 기출문제를 종합 분석하여 출제 패턴과 신유형 문제에 쓰인 개념, 해당 개념이 문제에서 어떠한 표현으로 제시되었는지를 정리하여 이후 실전에서 마주했을 때 바로 바로 풀이의 흐름이 생각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능 당일에 있을 수 있는 변수를 줄여 본인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계를 옆에 놓고 답안지 작성까지 해 가면서 실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문제풀이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 2) 중위권 (3~4등급)

중위권 학생은 개념 정리가 다소 부족하고 다양한 문제 풀이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핵심적인 개념 정립이 부족하고 문제 풀이와 연결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작정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취약한 단원부터 집중적으로 개념 학습을 하여야 한다. 9월 모의평가 이후에 개념 학습을 하라고 하면 조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테지만, 이 시기의 개념 학습은 겨울방학 때부터 진행해온 개념 학습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제는 전체 개념을 하나하나 복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확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히 하여 문제 풀이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개념들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여야 한다. 또한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 9월 모의고사 이후에도 아직 기출문항에 대한 학습이 완벽하지 않다면, 기출 문제 유형을 반드시 연습해야 한다. 기출 문항은 수능의 출제 경향을 보여주는 공신력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고 필요한 개념을 정리하고,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반드시 맞춰야 하는 문항들을 실수없이 대비할 수 있다. 자신이 준비가 덜 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새로운 문제집이 아닌 기출 문제부터 정확하게 공부하고, 그 후 기출 문항과 유사한 형태의 문항들을 충분히 다뤄봄으로써 유사 문항이 나왔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연습한다면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 3) 하위권 (5등급 이하)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 과학탐구 공부를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시간 기본 개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과학탐구는 정확한 개념, 그리고 원리 이해를 기반으로 추론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개념을 단순히 암기해서는 어느 이상의 점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암기는 이해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실이다. 이 때 학생들은 백과사전식 암기가 아니라 문제를 풀 때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게 해주는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암기하여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EBS 연계 문제 중 개념·원리를 활용하여 연계한 문제와 문항을 변형하여 출제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다. 이 때 어려운 문제보다는 비교적 쉬운 문제부터 문제를 풀어 본 후 자신감을 기르고 난도를 높여가며 문제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학탐구 20문항 3~4문항 정도 출제되는 최고난도 문항에 시간과 체력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나머지 문항들을 모두 맞추어 안정적인 등급을 받겠다는 목표로 끝까지 최선을 노력한다면 실전에서 충분히 현재보다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라. 파트별 학습법

### 1) 물리학

현재 고3 학생들은 새롭게 구성된 2015 개정 교육과정 세대로 바뀐 교육과정 수능 첫 번째 대상자이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구 교육과정과 비교해서 내용이 대폭 축소되었고, 소위 킬러 문제로 자주 출제되곤 했던 유체 역학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외되었으며, 역학적 평형이 물리학I에서 물리학II로 편제되어 물리학의 경우 난도 면에 있어서도 구교육과정과 비교해서 쉬워졌다.

물리학의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수능을 준비하기에 지난 교육과정에 비해 학습량이 확실히 감소하리라 예상된다. 또한 상위권 변별을 위해 구 교육과정에서는 대단원I과 대단원IV에서 고난도 문제를 출제하였으나,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고난도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단원이 대단원으로 축소되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한다면 구 교육과정에 비해 보다 수월하게 수능 물리학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수능 물리학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다년간 학생들과 함께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께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한다.

#### ① 완벽한 개념 학습

대수능 고득점의 비법은 특별하지 않다. 누구나가 강조하듯이 흔들리지 않는 개념학습이 고득점 비법의 기본이다. 완벽한 개념 학습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교재를 공부할 필요도 없다. 자신에게 맞는 개념서 한 권이면 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수능 전에 물리 전 범위를 한 번 정도는 꼭 정독해야만 한다. 시간이 없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만을 골라서 공부하다보면, 문제를 틀릴 때마다 되돌아가서 개념학습을 매번 다시 해야 하고, 그럴 때마다 자신감을 잃게 된다. 물리 전 범위를 한 번 정도는 꼭 정독하자.

#### ② 문제 풀이과정의 이해 후 암기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 개념을 아는 것과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능력이다.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개념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다. 문제풀이 역시 개념을 외우듯 이해한 후에는 반드시 암기해라. 처음에는 물리 전문가의 풀이과정을 외워서 모방하겠지만, 반복연습이 되면 나중에는 기계적으로 문제에 필요한 개념만을 추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수능에서는 30분 내에 20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항마다 이해하면서 풀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문제의 정답을 맞혔다고 책을 바로 덮으면 그 문제 풀이과정은 머리에서 휘발된다. 정답을 맞혔더라도 문제 풀이과정을 음미하라.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 과정을 음미해서 수능까지 반드시 기억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암기하라. 물론 틀린 문항이나 어려운 문항은 더 자주 반복해서 봐야하고, 유사한 문항을 연속해서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③ 보기 <제시문>을 통한 개념 점검

<보기> 제시문의 대개의 경우 ㄷ 문장은 난도가 높은 제시문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ㄷ 제시문 하나만을 틀리면 착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 아니라 정확한 개념을 모르는 것이다. <보기> 제시문의 ㄱ, ㄴ, ㄷ 중 한 문항에 오답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 문항에 대한 전체 개념과 공식 풀이과정 모두를 점검해야 한다. 더불어 자신이 갖고 있는 비과학적 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수정해야하고 놓친 부분을 꼭 확인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 ④ 난도별 문항에 대한 학습 요령

물리학 문항은 크게 단순 개념을 묻는 난도가 쉬운 문항, 공식을 사용하되 수치가 제시되지 않는 중간 정도의 난도를 갖는 문항,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가 주어진 정량적 계산 문제의 고난도 문항이 있다. 중요한 것은 단순 개념이라도 수능에 출제된다는 것이다. 단순 지식 및 개념이라 할지라도 절대 소홀히 하지 마라.

또한 공식을 사용하는 문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수치가 주어지지 않는 문항에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짧은 시간에 문제를 해결하여 고난도 문항 풀이를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출제자의 의도는 기출 문제를 비롯하여 연계교재의 비슷한 유형들의 문제를 꾸준히 반복해서 연습하는 과정에서 터득할 수 있다.

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고난도 정량적 계산문제의 경우 고도의 사고력과 통찰이 요구된다. 킬러 문제들의 경우 연계교재 문항 밖의 문항들이 출제되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잦은 빈도로 연계교재에서 심심찮게 출제되기도 한다. 따라서 고난도 문항풀이를 위해서는 평가원 기출 문제 및 연계교재의 수능 심화문제 풀이를 반복하여 연습하자. 이때 비슷한 개념들을 묻는 문항들만은 따로 정리해서 풀어보면 문제 관통하는 맥이 보일 것이다. 또는 기출모의고사 18, 19, 20번 문항만을 년도 별로 따로 정리해서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물리학 FAQ]

#### Q1. 문제를 풀 때 자주 실수를 반복하는데, 어떻게 해야 실수를 하지 않을까요?

→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안목을 기르고, 실수는 미리미리 경험하자!

객관식 문항이 갖는 단점 중의 하나가 문제 풀이 과정 중 사소한 실수나 비과학적 개념을 하나만 갖고 있더라도 결과가 정답에서 멀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보기> 제시문의 세 문장의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다. ㄱ, ㄴ, ㄷ으로 구성된 세 문장 중 두 문장의 진위 여부는 옳게 판단하고, 한 문장의 진위 여부만 잘못 판단해도 점수를 통째로 잃는다. 시험을 치루면서 안타까운 일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와 같은 일을 실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실수가 아니다. 출제자의 의도이다. 출제자들은 학생들이 어떤 비과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착각하고 혼돈 하고 있는지 이미 잘 파악하고 있다. 이럴 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 풀이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다. 비슷한 유형의 문항들과 비슷한 유형의 보기 <제시문>들을 통해 자신의 비과학적 개념 및 착각과 혼란을 미리 경험할 수 있다. 미리 실수를 경험함으로써 출제자의 고의적인 의도를 파악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다.

#### Q2. 평소에는 풀 수 있는 문제를 시험에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풀 수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 이해는 평소에 하고, 시험 때는 암기한 것으로 푼다!

만약 여러분들의 목표가 물리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지적 도전이라면 시간의 제한 없이 얼마든지 깊이 사색하고 고민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목표가 제한된 시간 내에 시험을 치루고 좋은 성적





을 받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학습 방법 면에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수능의 경우 20문항에 3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30분 내에 20문항의 문제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면서 풀어내기란 쉽지 않다. 수능은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평소 얼마나 성실하게 학습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해와 음미는 평소에 하는 것이고, 시험장에서는 문제를 보는 즉시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

### Q3. 물리학 상위 등급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 일단 1번에서 18번 문항을 맞혀라!

학생들에게 받는 어려운 질문 중 하나가 물리 상위 등급을 받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수능의 경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20개 문항의 정답을 모두 자신 있게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상위 등급은 가능하다. 소위 킬러문제라고 하는 고난도의 19번과 20번 문항을 제외한 18개의 문항의 정답을 찾아내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다. 18개의 문항에 포함되어 있는 3점 배점의 8개 문항은 킬러 문항의 3점 배점에 비해 난도가 낮다. 또한 이전의 평가원 기출 문항 및 연계 교재 문항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출제된다. 따라서 평소 성실하게 학습을 해왔다면 1번에서 18번 문항까지는 충분히 맞힐 수 있다. 킬러 문제도 3점 배점, 1번에서 18번 문항들 중 8문항도 3점 배점이다. 어떤 문항을 맞히든 결과는 같다. 처음부터 킬러 문제를 놓고 고민하지 말고 일단 1번에서 18번 문항을 깔끔하게 푸는데 집중하자.

## 2) 화학

화학은 2015개정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화학II에 포함된 화학 개념과 긴밀한 연계를 가질 수 있게 구성에 변화가 생겼다. 대표적으로 화학II의 몰농도와 동적 평형, pH파트가 화학에 포함되면서 기존 2009개정 화학보다 다소 어려워진 감이 있다.

- ✓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화학2’에 포함된 화학 개념과 긴밀한 연계
- ✓ 화학의 기초 개념을 유기적으로 다루어 화학의 유용성과 학문의 매력을 경험하도록 구성
- ✓ 다양한 탐구 중심 학습, 기본 개념의 통합적인 이해 및 과학의 탐구 경험을 통해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 능력,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 등의 핵심역량 함양

하지만 몇몇 내용이 추가되었을 뿐 물질의 구성 입자, 화학 결합, 화학 반응, 에너지 출입 등과 같은 화학의 기초 개념을 유기적으로 다룬다는 점은 화학의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수능 화학 고득점을 위한 공부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바뀐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안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하게 발휘하여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화학1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 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을 학습하자.

‘화학은 개념이 중요하므로 개념을 먼저 공부하라.’라고 하면 무작정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내용을 암기하려는 학생들이 있다. 화학의 개념은 암기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이해를 해야 한다. 이해가 동반되

지 않는 단순 암기로는 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수능 문항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개념학습을 할 때는 어떤 개념이 수능에서 다루어지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엽적인 부분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교육과정 해설서나 평가원 기출문항 분석을 통해 개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념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념은 개념서에 적혀있는 글자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 즉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 및 과정을 이야기한다. 단순히 답을 찾는 풀이가 아닌 개념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가 조금씩 변형될 때 그 의미를 정리하며 다시 한 번 개념을 복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새로운 형태로 문제가 바뀌어도 조건을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이 제대로 된 개념 공부임을 명심해야 한다.

### ② 연계교재 및 평가원 기출문항을 통해 개념을 문제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라.

개념학습을 한 후에는 그 개념을 기출문제에 적용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원 기출문제는 철저하게 교육과정을 따른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1차적으로 개념을 문제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이 학습한 개념들 중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교육과정 속의 개념이 어떻게 자료화 되어서 문제로 만들어지는지 그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모든 문제는 기출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문제집을 보면 대부분 기출문제를 변형한 문제들이 실려 있다. 심지어 학력평가나 모의평가, 수능까지도 기출에 있었던 자료를 변형하여 출제하기도 하므로, 기출문제만 꼼꼼히 분석하고 풀어보기만 해도 수능공부의 2/3는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출문제를 풀 때는 단원별로 어떤 유형의 문항들이 출제되었는지, 고난도 문항은 어느 단원에서 어떤 유형으로 주로 출제가 되어왔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능 또한 그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화학 고득점을 위해서는 또한 최신 출제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연계교재인 수능특강과 수능완성, 그리고 기출문제들 유형별로 문제들을 접하며 문제풀이의 감각을 잃지 않으면서 어떤 문제든지 자연스럽게 풀이 방법이 연상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취약한 유형의 문제들을 한 군데에 모아 정리하고 수시로 반복해서 푸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산화 환원 양적 관계 문제에 취약하다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추려서 그 풀이의 흐름을 자신의 사고의 흐름으로 완벽하게 체화시키는 훈련을 하도록 한다.

### ③ 자료 분석 및 해석 능력을 길러 응용력을 향상시키자.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해석 및 분석하는 문항과 실험, 탐구활동의 과정에 대한 문항이 많이 출제되므로 고득점을 위해서는 자료해석이 어려운 고난도 문항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개념학습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실험이나 탐구 자료 등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학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습내용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표, 그래프, 그림, 사진 등의 자료와 실험, 탐구 내용에 대해서 단원별로 정리하고,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지만 실제 시험에서 제시되는 새로운 자료나 실험, 탐구 과정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④ 연계교재를 다각도로 꼼꼼히 분석하자.

과학탐구 수능 연계교재는 각 과목별 <수능특강>과 <수능완성> 각 1권씩이며, EBS 연계 유형에는 개



- 탐구영역은 자료에 대한 연계 체감율이 높은 영역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4. 빈출 유형

- 빈출 유형의 개념, 자료 등을 해설과 함께 정리하도록 한다.
- 화학1의 킬러문항은 빈출 주제 및 단원별 출제 문항 수도 거의 정해져 있으므로 각 유형별로 풀이의 흐름을 자기에게 맞는 순서로 정리해두도록 한다.

이러한 단권화 노트를 작성한다면 어떤 복잡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배운 개념을 바로 바로 적용해서 풀 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 Q2. 평소에는 잘 푸는 문제를 시험에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어요. 왜 그럴까요?

→

- ✓ 시간은 킬러 문제가 아닌 끝없는 반복과 연습으로 2,3 단원에서 줄여라!
- ✓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실력이 부족한 것이다!

친구들 중에는 시험을 보고 나서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고 얘기하면서 평소 잘 풀던 문제도 실수했다는 경우가 많다. 과연 시간이 부족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그것은 실수였을까? 수능의 목적은 학문적 깊이를 깨닫고 사색하는 데에 있지 않고 제한된 시간 안에 주어진 문제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데에 있다. 평소 공부를 할 때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오래도록 그 문제를 고민했던 친구들은 당연히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였더라도 완벽한 이해와 정해진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단계별 풀이를 적용할만한 여유가 없다. 이해는 평소에 문제를 풀면서 해야 하며 시험에서는 문제를 보는 즉시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상황에 맞는 풀이법이 암기되어 있어야 한다. 즉, 공부법의 변화를 통해 시간 부족을 줄여야 한다.

또한 시간 부족을 호소하면서 고난도 문항을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해야겠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다. 소위 킬러문항이라 불리는 문제들만 연습하면 시간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3페이지까지 실수 없이 모든 문제를 맞혔는가? 아마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페이지를 못 보는 진짜 이유는 킬러문항 때문이 아니라 앞부분에서 쓸데없이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인 것이다. 연습을 통해 시간을 줄여야 할 구간은 바로 1~3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 3단원의 경우 내용이 어려워, 혹은 조건이 까다로워서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암기가 부족하고, 연습이 덜 되어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결국 무작정 시간 부족을 탓하기 전에 내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또 의심해보는 일이 필요하겠다.

### Q3. 기출 문제는 언제 풀어 보는 것이 좋을까요?

→

- ✓ 기출 문제풀이는 개념 학습과 병행하며 최소 3번은 풀어야 한다.
- ✓ 제대로 된 개념 학습 & 기출분석이 만점을 완성한다.



기출문제 풀이는 6월 모의평가 전까지 개념 공부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통 아끼고 아끼다가 개념 공부를 다 하고 난 뒤 풀어야한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과목마다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화학1 공부에 있어서는 그렇게 기출문제를 아끼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우리가 문제를 못 풀고 많이 틀리는 것은 개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개념을 문제에 어떻게 연결하고 적용해야하는지 그 방법을 몰라서이기 때문이므로 반드시 배운 개념으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개념과 기출문제 풀이는 병행되어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적어도 세 번은 풀어보셔야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번만 풀어보면 그저 내가 얼마나 많이 틀렸는지에만 관심을 갖고 화학1 공부에 대한 회의감만 느끼게 될 뿐이다. 한 번 전체적으로 풀어 보고 단원별로 나누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풀어보아야 하며, 다시 볼 때는 틀린 문항에 대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생각을 잘못했는지, 복잡한 문제였다면 풀이의 흐름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정리하면서 내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종합해보자면 결국 제대로 된 개념 학습과 기출분석이 만점을 만드는 법이다.

#### [선배가 말하는 화학1 1등급 실전Tip]

1. 쉬운 문제가 막히면 집중력이 흩어져 시험을 망치게 된다.  
⇒ 실전에서는 모르는 문제는 과감히 패스하는 결단력도 필요!!
2. 모든 문제풀이는 침착하고 정확하게 하라.  
⇒ 발문의 중요한 조건은 반드시 표시를 해두고 따로 정리해두어야 문제를 처음부터 두세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 킬러 한 문항을 버리고, 나머지를 100% 다 맞히자.  
⇒ 무조건 고난도 문항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실전에서 도저히 킬러에 대한 자신이 없거나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과감히 버리고, 나머지 19문항의 검토 시간을 확보하여 안전한 1등급을 확보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화학1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 화학1 1등급을 위한 선배의 실전 Tip까지 알아보았다. 시기와 상황에 맞게 앞서 소개한 방법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을 찾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는 반복학습, 체화시키는 훈련만이 내 실력을 완벽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수능 그 실전의 날 최고의,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 3) 생명과학

#### 3-1) 1단원 <생명 과학의 이해>

이전 교육과정에서 3문항이 출제되었던 ‘생물의 구성’ 파트가 통째로 생 II로 옮겨가면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탐구 방법’ 부분의 출제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양한 탐구 사례에서 대조군/실험군, 조작 변인/통제변인 등을 구분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 3-2) 2단원 <사람의 물질대사>

‘생명 활동과 에너지’ 부분에서는 동화 작용과 이화 작용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각각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세포 호흡 과정은 이화 작용의 대표적인 예이지만, 세포 호흡 과정에서 ADP와 무기 인산이 결합하여 ATP가 합성되는 것은 동화 작용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물질대사와 건강’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작용에 대한 내용이 많이 빠져 있으므로, 이들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

### 3-3) 3단원 <항상성과 몸의 조절>

3단원은 이전 교육과정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으므로 기출 문제를 무리없이 활용할 수 있다. ‘자극의 전달’ 부분의 주요 내용인 흥분의 전도와 근육의 수축은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도 고난도 문항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문항을 풀어보며 연습하는 것이 좋다. 3단원은 전통적으로 내용이 방대하여 암기할 부분이 많아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끼지만, ‘자극의 전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문항에서 묻는 내용이 거의 정해져 있어 공부를 하기만 하면 점수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처음 개념을 학습할 때 최대한 꼼꼼히 공부해야하고, 암기한 내용이 휘발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반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 3-4) 4단원 <유전>

공식적으로는 ‘멘델의 유전 법칙’이 빠졌으나, 이 법칙들이 유전 현상을 설명하는 기본 원리이므로 멘델의 유전 법칙을 모르는 상태로는 ‘사람의 유전’ 문제를 풀 수 없다. 따라서 크게 보았을 때 이전 교육과정과 차이가 크지 않아 이전 기출 문제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고난도 문항 빈출 부분이었던 연관 유전, 다인자 유전, 염색체 비분리 등의 요소가 모두 출제 가능하므로 연계교재와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며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 6월 모평 이후 출제 방향을 꼼꼼히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 3-5) 5단원 <생태계와 상호 작용>

5단원 역시 눈에 띄는 변화가 크지 않다. 빈출 부분인 군집, 물질의 순환, 에너지의 흐름 등을 중심으로 용어와 개념을 꼼꼼히 정리한다면 대부분의 문항을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사례에 개념을 적용하는 문항들이 출제될 수 있으므로 수능특강의 신유형 문항들을 풀어보며 자료 해석 능력을 키우는 것도 좋다.

### 3-6) 생명 과학 II

과탐 II 과목의 응시자 수가 매우 적은 가운데, 과탐 II 과목 중에서는 생명 과학 II 응시자가 가장 많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3학년 교육과정에 생명 과학 II를 편성하기 때문에, 수시 지원자에게 매우 중요한 3학년 내신 성적을 위해 생명 과학 II를 제대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내신 대비를 위해서는 학교 수업을 놓치지 않고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수능과 다르게 내신 시험은 학교에 따라 시험 범위, 학습 깊이가 천차만별로 다르므로 출제자인 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경청하며 출제 방향을 가늠해야 한다.

수능에서 생명 과학 II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상위 집단이므로 1등급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개념 학습이 완벽히 되어있다고 가정했을 때 1등급 싸움의 키는 ‘시간’이므로 충분한 기간 동안 시간 단축 연습을 해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생명 공학 기술 등 일부 파트의 내용이 축소되었으므로 모의평가 문항을 통해 정확한 출제 방향을 가늠해야 한다.

## [생명과학 FAQ]

### Q1. 기출 문제 풀이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은가요?

→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문제이지만, 개인적으로 생명 과학 교과는 최소한 수능특강까지 학습을 마친 후에 푸는 것을 추천한다. 평가원 기출 문제는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정돈되어 있으면서도 가장 난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문항을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푸는 것은 시간의 낭비이자 문항의 낭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수능개념-수능특강을 거쳐 어느 정도 개념을 문항에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이 되었을 때 푸는 것이 좋다. 특히 4단원(유전)은 기출 문제의 수준이 매우 높으므로 선βολ리 손댔다가는 자신감이 떨어져 학습 의욕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 Q2. 고3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요?

→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신 성적 관리와 수능 준비를 함께 병행할 것이다. 이때 시간 배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둘 다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특히 3학년 1학기는 가장 체력적으로 부담되고, 만성적인 학습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 학기이다. 이 때 균형을 잃고 무너지면 3년간의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갈 수 있으니 끊임없이 마인드컨트를 하며 버텨내야 한다. 전국의 모든 고3 수험생이 겪는 어려움으로, 자기 자신이 나약해서 내신 관리와 수능 준비를 제대로 병행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은 버려야 한다. 이 고비만 무사히 넘기면 수능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여름방학이 찾아온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정신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Q3. 생명 과학 I 으로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전 단원은 아무리 공부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과목을 바꿔야 할까요?

→ 자신의 목표 등급에 따라 답이 바뀔 수 있는 질문이다. 목표 등급이 3등급 이하라면, 과목을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4단원 이외의 나머지 단원에 중점을 두고 학습하면 좋다. 전체 20문항 중 4단원 유전에서는 7문항 정도가 출제될 것이다. 4단원을 제외한 나머지 단원의 문항을 다 맞추고, 4단원 중 일부 쉬운 문항을 풀어낸다면 3등급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목표가 1~2등급이라면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학습 능력이 뛰어난 최상위권 학생은 빠르게 결단하여 다른 과목으로 전환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



분은 먼저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에게 밀려 등급이 더 낮아지는 경우가 많으며, 어려운 파트는 다른 과목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꼭 더 높은 등급을 받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과목을 바꾸는 것은 큰 모험이 된다.

#### 4) 지구과학

##### ① 지구과학에서 다루는 개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다.

지구과학에서도 개념학습은 절대적이다. 지구과학 개념의 대부분은 우리 주변에서 관찰되는 현상과 사물에 대한 것인데,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개념을 학습할 때 현상에 대한 정의, 발생 원인과 진행 과정, 특징 등을 스토리로 연결하여 학습하는 것이 좋다. 태풍을 예로 들면 태풍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발생하고 소멸하는지를 먼저 학습한 후에 태풍이 이동하는 경로를 기준으로 안전반원과 위험반원이 구분되는 이유와 각 지역에서 풍향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 등을 스토리로 연결하여 공부하는 것이 태풍에 대한 완벽한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날씨와 기후, 지구 온난화 등 우리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현상들을 다루는 지구과학에서는 각각의 현상들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혼자서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어려운 학생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교과서를 읽는 것이 제일 좋다. 그리고 EBS 선생님의 강의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② 수능 연계교재, 평가원 기출문제를 이용해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을 한다.

개념을 확실히 이해했다면 이제는 이를 문제에 적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개념의 이해만으로도 고득점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문제의 유형이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심화 개념을 활용한 문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과 심화 문제풀이 능력까지 갖추어야 고득점이 가능하다. 누구나 처음에는 쉽지 않다. 수능 연계교재의 문제, 평가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연습하면 좋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해설강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익히고 반복 훈련하면 대비할 수 있다.

##### ③ 자료와 사례에 개념을 적용하여 응용력을 향상시킨다.

지구과학에서는 그림, 도표, 그래프가 주어지는 자료 해석 문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념을 중심으로 주어진 자료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지구과학 I의 경우, 고지자기 분포, 마그마의 생성, 온대 저기압과 태풍, 일기도와 위성 영상 해석, 해수의 성질, 수온 염분도, 엘니뇨와 라니냐, 우주론 등의 개념을 제시된 자료에 적용해 풀이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실생활의 사례가 제시된 경우도 있으므로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대표 사례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개념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 ④ 어려운 개념뿐만 아니라 쉽다고 생각하는 개념도 꾸준히 반복한다.

개정된 지구과학 I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은 학생별로 다르다. 개인마다 학습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려운 단원에 대한 집중 공략은 당연히 필요하다. 해당 단원의 완벽한 학습과 적용 연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쉽다고 생각했던 개념들의 꾸준한 복습이다. 학습하기 쉽다는 것은 그만큼 소홀해지기 쉽다는 것이고, 그만큼 기억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쉬운 개념들은 수능까지 계속해서 반복, 복습해야 한다. 지구과학 공부에 있어 가장 큰 무기는 성실함이다.





## [지구과학 FAQ]

### Q1. 지구과학은 늦게 시작해도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 지구과학의 경우, 9월 모의평가 때 선택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난다. 6월 모의평가에서 선택했던 과학탐구 과목의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친 학생들이 지구과학으로 변경하기 때문이다. 지구과학은 학습에 대한 부담이 다른 과목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1년을 꾸준히 준비한 학생과 비교했을 때, 한 과목을 집중해서 학습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수능에서 지구과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의 학습에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구과학도 일찍 선택하여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를 추천한다.

### Q2. 지구과학의 킬링 파트는 어디인가요?

→ 지구과학은 다루는 대상(원자 수준에서부터 우주의 지평선)이 광범위하다. 또한 여러 분야(지질학, 대기과학, 해양학, 천문학 등)의 개념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학생별로 킬링 파트가 다르다. 이전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천체의 관측’ 단원이 대부분의 학생에게 킬링 파트였으나, 현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관심 분야, 학습 방법에 따라 킬링 파트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지구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성실히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특별히 어려운 단원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 Q3. 개정된 지구과학은 예전에 비해 쉬워졌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등급은 어떻게 구분하게 될까요?

→ 예전보다 개념이 쉬워졌습니다. 이는 개념을 학습하는 것이 쉬워졌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말이 문제풀이가 쉬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개념은 쉽게 학습했는데 문제를 풀어보니 쉽게 풀리지 않고 문제의 오답률이 높은 경우를 상상해보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최근 수능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자료 분석 능력은 기본 역량이 되었으며, 학습한 개념 중에 적절한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선택하여 문제에 적용해 풀이해야 한다. 결국 수능에서 1등급을 받고자 한다면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자료를 해석하고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VII

# EBS 고교강의

## Ⅶ. EBS 고교강의

# EBS 고교강의

## 7.1 2021 수능 연계교재 로드맵

입문	2021 수능개념 19.11 오픈	국, 수, 영 한, 사, 과	수능 고득점의 열쇠, 수능 개념으로 열자!
연계 개념	2021 수능특강 20.01 오픈	국, 수, 영 한, 사, 과 제2외, 직	 연계 교재 필수 개념
연계 보완	2021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20.01 발행	국, 영 사, 과	수능특강의 주요 지문, 주요 자료들의 꼼꼼한 분석
연계 보완	수능 연계교재의 VOCA 1800 20.01 오픈	영	수능 특강, 수능완성에서 선별한 1,800개 영단어 분석 특강
실력 완성	고난도 신유형 3·4주특강 20.03 오픈	국, 수, 영, 과	최신 수능 유형 분석과 3, 4점 고난도 문항 대비
연계 문풀	2021 수능완성 20.06 오픈	국, 수, 영 사, 과 제2외, 직	 수능 시험 전 필수유형 문제풀이 특강

## 7.2 수준별, 시기별 추천 강좌

EBSi에서 학습 가능한 다양하고 유용한 강좌들! 아래의 수준별, 시기별 추천 강좌 목록을 확인해 보고  
개인 수준과 시기에 맞는 강좌를 선택하여 학습해 보자.

## 가. 시기별 '필수' 추천 강좌

11~2월	고3 입문 2021 수능개념	국, 수, 영 한, 사, 과	수능 고득점의 열쇠, 수능 개념으로 열자!
	고3 입문 2021 기출의 미래	국, 수, 영 한, 사, 과	개념, 유형 분석, 출제 트렌드를 모두 잡는 기출 문제 해설 강의
2~6월	기본개념 2021 수능특강	전영역	 연계 교재 필수 개념
	기본개념 2021 내신만점 수능특강	국, 수, 영 한, 사, 과	수능특강 핵심 정리와 내신 대비를 한번에!
6~9월	문제풀이&최종마무리 2021 수능완성	전영역 (한국사 제외)	 수능 시험 전 필수유형 문제풀이 특강

## 나. 시기별 '기초' 추천 강좌

11~2월	고3 입문 수능 감(感) 잡기	국, 수, 영	내신+수능형 문항으로 겨울방학 8주간 내신, 수능 동시 대비 가능!
	고3 입문 EBS공부법Q	공통	내신 관리법, 영역별 공부법, 방학 공부법 등! 공부할 때 궁금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강의
7~11월	문제풀이&최종마무리 2021 파이널 체크포인트	국, 수, 영 한, 사, 과	수능 전, 꼭 알고 가야 하는 개념과 유형을 정리한 강의

## 다. 시기별 '기본' 추천 강좌

11~2월	고3 입문 (새교육과정)올림포스	국, 수, 영	기본 개념은 올림포스! 개념 정리부터 내신과 수능까지 대비
	고3 입문 (새교육과정)개념완성	한, 사, 과	학교 교과서의 중요 핵심만 정리한 한국사, 사회, 과학 대표 기본 개념서
	고3 입문 약점집중관리 2주특강	국, 수, 영 한, 사, 과	취약 파트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개념 강의 단 2주로 집중 학습 가능
2~6월	기본개념 2021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국, 수, 영 한, 사, 과	수능특강의 주요 지문, 주요 자료들의 꼼꼼한 분석
	기본개념 2020 수능연계교재의 VOCA 1800	영	수능특강, 수능완성에서 선별한 1,800개 영단어 분석 특강
6~9월	문제풀이&최종마무리 FINAL 실전 모의고사	국, 수, 영 한, 사, 과	늘 보던 기출이 아닌 100% 신문항!
	문제풀이&최종마무리 고3 학력평가/모의평가 해설	전영역	실시간 등급컷+빠른 채점 서비스+완벽한 해설강의 +영역별 총평 강의까지! EBS 풀서비스 대표 콘텐츠



7~11월	문제풀이&최종마무리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국, 수, 영 사, 과	수능 체감! EBS라서 가능한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최종마무리 대학수학능력시험 해설	전영역	EBS 스타 강사진의 명쾌한 수능 해설

## 라. 시기별 ‘고급’ 추천 강좌

6~9월	문제풀이&최종마무리 고난도 신유형 3·4주특강	국, 수, 영, 과	한 달이면 충분한 약점 없는 완벽한 실력 완성 프로젝트
	문제풀이&최종마무리 수능의 7대 함정	국, 수, 영 사, 과	매력도 높은 오답지가 들어있는 비밀! 그리고 그 함정 문항 탈출법
7~11월	문제풀이&최종마무리 고난도 시크릿X 봉투모의고사	국, 수, 영	킬러에 집중! 실전보다 더 어려운 문항으로 구성된 EBS 프리미엄 모의고사

# 7.3 입시 및 수시 강좌 소개

## 가. 입시 대비 커리큘럼과 독서 활동 대비 커리큘럼

입시	기초	개념	기출
	[1STEP] 학과, 직업 소개 특강	[2STEP] 나에게 맞는 전형 찾기	[3STEP] 전형 대비 전략
독서	개념	기출	
	[공통] 책 읽기 생초보 특강	[공통] 독서 활동 도서 추천	

‘꿈이 없어요.’, ‘무슨 학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입이 막막하다면 EBSi 대학별 입시 커리큘럼을 이용해 보자. EBSi 사이트에서는 비싼 사설 입시컨설팅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입시 대비가 가능한 종합 솔루션 강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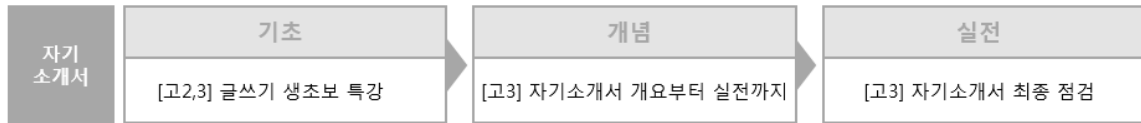
대학별로 전형의 종류와 진행 계획에 따라 준비해야 할 사항들도 다 각기 다르므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챙기거나 교과, 비교과 모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는 어떤 전형이 있는지, 내가 지원했을 때 유리한 전형은 무엇인지, 이 전형에서는 평가 항목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 학습 계획을 세우고 강좌를 수강하면서 전문 선생님들의 핵심 노하우와 유의할 사항들을 놓치지 않는다면, 막막했던 입시로 인해 무거워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독서 활동에 대한 대비도 가능한 커리큘럼도 마련되어 있다. 입시를

위해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된다면 <독서 활동을 위한 학과별 추천 도서> 강좌를 들어 보자.

## 나. 자기소개서 대비 커리큘럼



EBSi에서 제공하는 자기소개서 개념 강좌와 실전 최종 점검 강좌를 통해 혼자서도 자신만의 매력적인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다. 글쓰기가 겁나는 글쓰기 초보자들은 <글쓰기 생초보 특강> 강좌를 통해 기초를 완성한다면 자기소개서 작성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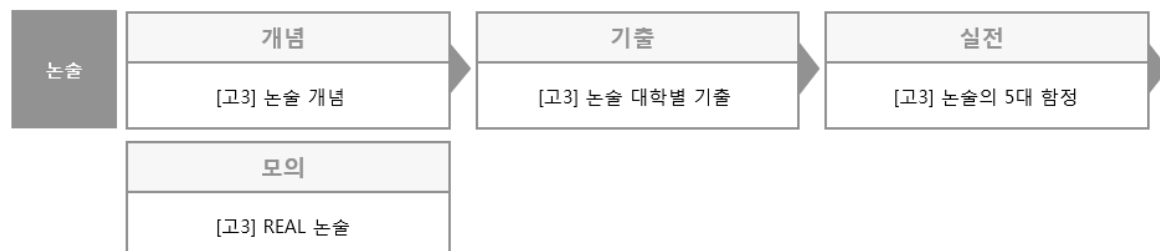
## 다. 면접 대비 커리큘럼



면접은 대학에 따라 전형 유형과 평가 방법이 다르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기출과 출제 경향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긴장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므로 실전 연습과 모의 면접이 중요하다. EBSi에서는 면접의 기초, 개념, 기출, 실전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실전 면접 연습이 가능한 <REAL 면접> 강좌가 8월 오픈될 예정이다.

## 라. 논술 대비 커리큘럼과 1:1 논술 첨삭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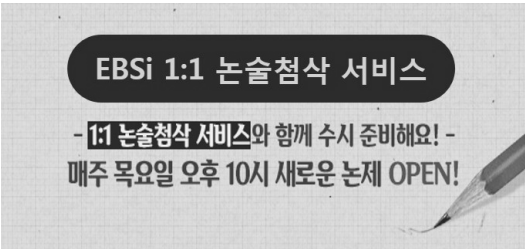
### 1) 논술 대비 커리큘럼



논술 전형은 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이할 수 있는 사고력이 중요하며, 대학별 논술고사의 평가 요소를 분석하여 출제 유형에 맞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기본 개념이 완성이 되어야 한다. EBSi는 초보를 위한 논술 개념 강좌부터 대학별 최신 기출을 다루는 실전 강좌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다.



## 2) 1:1 논술 첨삭 서비스



EBSi 사이트에서는 3월부터 10월까지 대학별 기출 논제에 대한 1:1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논술 첨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목별, 유형별로 논제가 제공되어 다양한 논술 유형에 대비할 수 있고, 전문가 선생님들의 1:1 피드백을 통해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

### 마. 적성고사, 경찰대/사관학교 대비 커리큘럼

적성 고사	개념	기출
	[고3] 적성고사 개념&실전	[고3] 적성고사 대학별 기출
경찰대/ 사관학교	개념	기출
	[고3] 경찰대/사관학교 특강	[고3] 경찰대/사관학교 기출

내신·수능 3~5등급이라면 적성고사 전형을 통해 대입 틈새 전략을 노려볼만 한다. 적성고사는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 중심으로 치르는 전공 적성 시험으로, 수능 보다 난도가 낮은 수능형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EBSi에서 제공하는 대학별 개념 강좌와 기출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경찰대/사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경찰대와 사관학교 시험 대비 특강과 최신 기출 분석 강좌를 제공한다. 난도가 높고, 시험 시간도 수능보다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과 연습은 필수다.

VIII

# EBSi 서비스



# EBSi 서비스

## 가. EBSi 소개



국가대표 고교사이트, EBS 고교강의(EBSi)는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부와 함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품격 동영상 강의 및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사이트이다.

학생 맞춤형 영역/학습 단계/시리즈별 강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대입 정보 및 수시 서비스, 대입 전문 선생님과 1:1 대입 상담 서비스, 문제은행 서비스를 통한 실전 대비 기출문제 풀이 서비스까지 학생들의 상황과 수준에 맞는 최적의 학습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 나. 맞춤형 커리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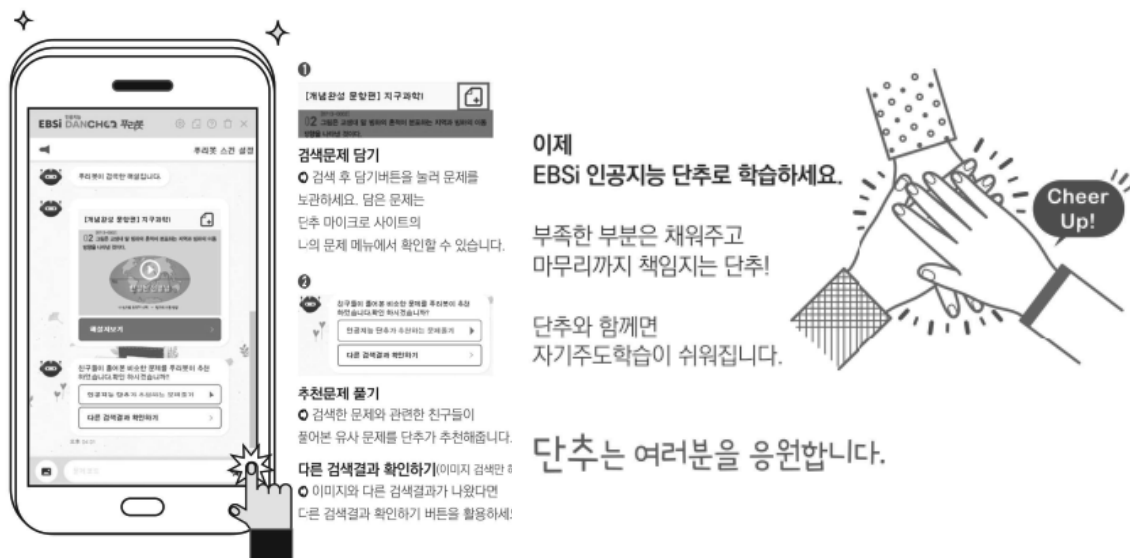
EBSi에 다양한 강좌가 있지만 어떤 강화를 어떤 순서로 들어야 할지 모른다면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다.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보여주는 커리큘럼이 아닌, 각 과목별, 등급별로 학습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어서 바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강화를 찾아볼 수 있다. ‘맞춤형 커리큘럼’ 페이지에서 ‘학습고민’을 선택하고 커리큘럼을 검색한 후 ‘나만의 맞춤형 커리큘럼에 담기’ 버튼을 누르면 일일이 강화를 담지 않아도 바로 마이 페이지에 수강 신청되어 관리할 수 있고, 커리큘럼별로 학습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다. 지금 바로 들어야 할 ‘고민 해결 강좌’를 먼저 제시해주고 이후에 들어야 할 강화를 제시하여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다. 인공지능 DANCHOO

인공지능과 교육이 만났다. 문제집만 쉴 새 없이 푼다고 성적이 오를까? EBSi에서는 비효율적인 학습에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추천 문제 및 강자로 영역별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DANCHOO>를 제시한다.

“문제검색”에서는 문제 사진을 올리거나 문항코드를 입력하면 챗봇이 해당 문제에 대한 해설 영상과 해설지를 찾아 보여준다. 해설지로 해결이 안되는 부분은 해설 영상 속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보충해보자. “문제추천”은 최소 과목, 최대 중분류까지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면 522,582개의 교재 및 기출문제 중 나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추천해준다. 추천문제를 통해 시험지도 만들고, 학습현황도 관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의 현재 학습 수준을 설정하면, 수준에 맞는 문제 및 강자를 추천해준다. “강좌추천”은 나의 학습 행태 및 친구들이 선호하는 강좌 등을 바탕으로 36만개 교재 및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문제를 추천을 해준다. 학습 결과에 따라 나의 영역별/과목별/단원별 예상 정답률, 강·약점 TOP5, 나와 동일한 학년 친구들이 많이 푼 문제 TOP5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학습현황에서는 나의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래프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제 EBSi 인공지능 단추로 학습하세요.**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단추!

단추와 함께면 자기주도학습이 쉬워집니다.

단추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검색문제 찾기**

- 검색 후 담기버튼을 눌러 문제를 보관하세요. 담은 문제는 단추 마이크로 사이트의 나의 문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천문제 풀기**

- 검색한 문제와 관련한 친구들이 풀었던 유사 문제를 단추가 추천해줍니다.

**다른 검색결과 확인하기** (이미지 검색만)

- 이미지와 다른 검색결과가 나왔다면 다른 검색결과 확인하기 버튼을 활용하세요!

## 라. 클립영상

EBSi에서는 자투리 시간 및 수업에 바로 활용 가능한 <5분 특강> 클립영상을 찾아볼 수 있다. 클립영상이란 3~10분 내외로 짧게 구성된 고품질의 영상 콘텐츠로 수업 디딤 영상, 학생들의 동기 부여, 사례 영상 등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콘텐츠이다. <5분 특강>을 들여다보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뿐 아니라 과목 공통까지 찾고 있는 모든 영상들이 있다.



## 마. 풀서비스

모의고사가 끝났다고 다 끝난게 아니다.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풀서비스’로 제대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 EBSi에서는 과목별 정답만 속속 넣으면 되는 <빠른 채점 서비스>, <과목별 총평 및 해설강의>, <오답률 TOP10>, 채점결과에 따른 <성적분석 및 추천강좌>, 정확도 높은 <실시간 등급컷> 등을 제공한다. 또한 EBSi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모의고사 이후 학습전략>은 앞으로의 학습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출을 완벽하게 풀어보면 수능 출제 유형 파악이 쉬워지고 신유형 문제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2006년부터 출간된 교재 문항과 수능·모평·학평 기출문항을 단원 분류/난도/출처로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거나 나만의 문제지를 만들어 풀어 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기출문제는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시험 보는 것과 같이 풀어볼 수 있으며, 틀린 문항에 대한 해설 강의도 바로 확인 가능하다.

풀서비스 활용팁 ▶

고3

여러분의 노력을 믿으세요. EBS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풀서비스

문제·정답 다운로드 624,045건

채점 서비스 154,292건

해설 강의 [화학] 박주원 00

## 바. 듀나공감(<http://u.ebsi.co.kr>)

EBSi에는 선생님과의 소통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소통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듀나공감에는 커뮤니티를 통해 각자의 의견과 고민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다른 친구들의 생각도 엿볼 수 있다. 매달 진행되는 이벤트들을 통해 EBSi로 공부하면서 선물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교재가 출시되거나 학평·모평이 다가올 때 재미있는 이벤트를 통해 좋은 선물들을 제공하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응모해보자.

On-air

커뮤니티
 설문조사
 공장학생
 학습법
 Play@
 이벤트

[?] 게시판 이용 수칙

이벤트(601)

EBS X 교보문고

총 4,000원 혜택  
+무료배송 쿠폰 받자!

총 장학금 1억

2020  
EBS 꿈장학생 공모

2020.1.7.~2020.2.9.

### 1월 신규 강좌

[고1] 5분 통합사회

[고1·2·3] 듀나TV 핵심 in 한...

[고3] 2021 수능 기술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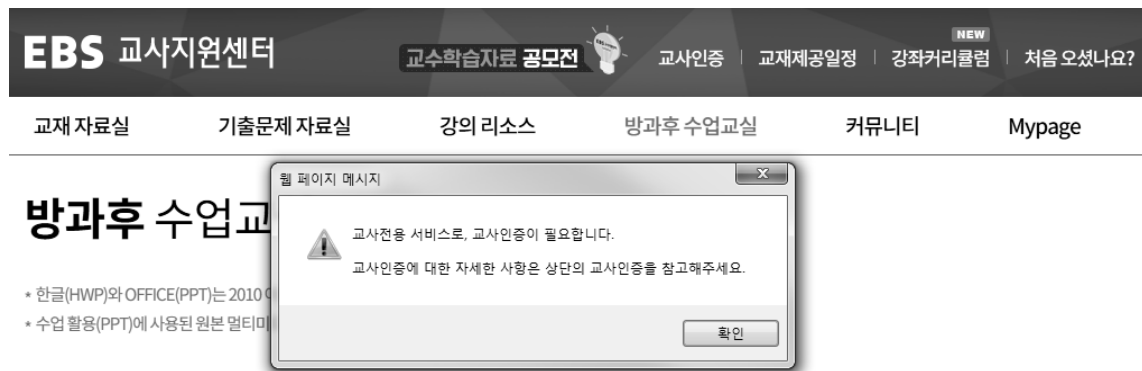
[고1·2] 어휘가 독해다

[고1·2] 10 CUT 고전소설

[고1·2] 국어 독해의 원리

## 사. 교사지원센터(<http://teacher.ebsi.co.kr>)

EBSi 사이트에는 학생을 위한 서비스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교육의 모든 리소스를 찾아 볼 수 있는 EBS 교사지원센터는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 EBS의 강의자료(강의CG, 이미지 등)와 EBS 교재(연계, 비연계) 문항, 기출문제 등을 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방과후 학습, 자율학습 등 학교 현장 활용도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업모델을 제공하고 PPT와 한글파일, 학습지 파일 등 원하는 콘텐츠로 저장하여 수업활용에 이용할 수 있다. EBS 교사지원센터는 GPKI 인증 완료 후 이용 가능한 교사 지원 서비스로, 교사인증을 받은 후 이용 할 수 있다.



## 아. EBS 입시설명회

공부는 결국 진학과 연결된다. 자신이 흘린 땀과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EBS에서는 다양한 분석 정보 및 설명회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EBS 입시설명회는 학년도별로 구분되어 있어, 해당 학년도를 클릭하여 들을 수 있다.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입시설명회가 궁금하다면 예정 설명회에서 시간과 장소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직접 들었던 입시설명회를 다시보고 싶다면, 행사 후 1주일 이내로 사이트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해당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클릭하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정보 알림 수신 설정'을 하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입시설명회가 개최되면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예정 설명회		설명회 영상		
전체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최근순 정렬 ▼	15개씩 보기 ▼			검색

## 자. EBS 대입상담실



공부할 시간이 빠듯하여 진학에 대한 정보를 접할 시간이 없는 경우도 많다. 수시, 정시, 입시, 진로, 학과, 학습법뿐만 아니라 예체능까지 여러 궁금증을 풀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EBS 대입상담실은 상담글을 작성하면 대표 진로진학전문가 선생님 약 40여명이 무료로 18시간 이내로 답변을 해주고 있다. 대입상담실을 이용하기 전 나의 입시, 학습, 성적 등의 기본정보를 작성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진로진학전문가 선생님과 1:1 맞춤 상담을 통해 대입에 대한 궁금증을 해쳐 나가 보자.

## 차. 입시 카드뉴스

입시가 궁금하지만 하나하나 검색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발맞춰 꼭 알아야하는 정보, 정확한 뉴스들만을 가져와 알려주는 유용한 수단으로 입시 뉴스가 있다. 입시 뉴스의 항목에는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입시 뉴스> 뿐만 아니라 이해가 어려운 것들, 혹은 공부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입시 카드 뉴스>가 있다. 어려운 글로 가득찬 뉴스가 아닌 사진과 쉬운 글들을 사용하여 수험생들의 빠른 이해를 돕고 있다. <입시 카드 뉴스>는 PC는 물론 모바일기기에서 볼 수 있으며 간결하게 정리한 지식들이기에 시간부족에 시달리는 수험생들에게 힘이 되어 줄 것이다.



## 카. EBS 월간입시

2020년부터 시작된 EBS 월간입시는 매거진 형식의 VOD콘텐츠이다. 월간 입시는 매월 둘째주 월요일에 오픈되며, 다음달에 준비해야 하는 주요 입시 일정이나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의 콘텐츠이다. 매월 펼쳐보는 비주얼 매거진 형식의 월간 입시는 지루하고 정형화된 강의 형식 설명회 포맷에서 탈피하여 학습자들에게 어려운 입시 정보를 시작적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신유형 콘텐츠이다. EBSi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들의 면술리 코칭 콘텐츠를 통해 복잡한 입시도 간편하게 살펴보자.





## [부록 1]

### 입시 용어 사전

#### 1. 백분위란?

전체 응시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수험생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백분위 점수를 표기하는 것입니다. 백분위는 계열별 전체 응시자 중에서 수험생이 얻은 점수보다 더 낮은 점수를 얻은 수험생들이 전체 학생 중에 몇%가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표시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백분위 점수가 85라는 것은 그 수험생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들의 비율이 전체 응시자의 85%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표준점수란?

표준점수는 원점수에 해당하는 상대적 서열을 평균을 중심으로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매길 때 응시 영역과 과목별 응시자 집단에서 해당 수험생의 상대적인 위치나 성취 수준을 나타내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즉, 표준점수란 전체평균을 100으로 놓고 분포시킨 상대 점수입니다.

##### 〈표준점수 계산법〉

- $Z\text{점수} = [(수험생\ 개인의\ 원점수) - (수험생이\ 속한\ 집단의\ 평균점수)] / \text{표준편차}$
- 국어/영어/수학 표준점수 =  $\{(\text{산출된 } Z\text{점수}) \times [\text{해당 영역의 표준편차}(20)]\} + \text{평균점수}(100)$
- 탐구/제2외국어 표준점수 =  $\{(\text{산출된 } Z\text{점수}) \times [\text{해당 영역의 표준편차}(10)]\} + \text{평균점수}(50)$

#### 3. 수능 등급이란?

등급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총점 대신 계열별 백분위에 따라 수험생의 등급을 정하는 제도로 현재 수능 등급은 9등급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표준점수의 0~4%가 1등급, 4~11%가 2등급, 11~23%가 3등급, 23~40%가 4등급, 40~60%가 5등급, 60~77%가 6등급, 77~89%가 7등급, 89~96%가 8등급, 96~100%가 9등급입니다.

#### 4. 학교생활기록부란?

학교생활기록부는 말 그대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해 교사가 기록한 장부입니다. 줄여서 학생부라고도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http://www.neis.go.kr))를 통해 온라인 또는 재학생의 경우 담임 선생님께 요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진로 희망사항, 독서활동상황, 봉사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교과학습 발달상황, 창의적체험활동상황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됩니다.

## 5. 수능최저학력기준이란?

수시합격자를 선발할 때 수능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성적은 받아야 한다고 대학에서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수능 최저 등급 기준입니다. 비교과 활동이나 논술 성적 등이 우수해 학생을 수시로 선발하고자 할 때,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학교 공부를 따라올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모든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 대학의 전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6. 추가모집이란?

정시모집 총원합격 등록마감 후, 2월 마지막 주 정도에 추가모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추가모집은 정시처럼 지원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지원하고 싶은 만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모집요강이 다를 수 있으니 지원하고자하는 대학 입학처에 문의하거나, ‘어디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추가모집은 정시 전문대에 합격한 학생도 합격을 포기하지 않고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시에 전문대에 합격한 수험생은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 7. 추가합격과 추가모집의 차이점은?

요즘 대학에서는 추가합격이라는 용어를 총원합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총원이라는 용어가 말해 주듯 총원합격은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 위한 제도이며,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총원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총원합격(추가합격)과 혼동할 수 있는 추가모집은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대학입학전형의 시기는 크게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그리고 추가모집으로 구분됩니다. 추가모집은 4년제 대학 중 정시모집 미등록 총원 기간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결원이 발생하여 정원을 못 채운 대학에서 추가로 모집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8. 이중등록 금지란?

이중등록 금지는 1개 대학에만 등록하라는 의미입니다. 모집 시기별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했다고 해도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한다는 의미로, 만약 이를 모르고 이중등록을 하게 되면 두 대학 모두 합격이 취소됩니다. 수시에 6회 지원한 학생이 여러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하며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대학(전문대학 포함)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시 3회에 지원하여 중복으로 합격한 학생도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별 입시가 종료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각 대학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 검사하고 이중등록자료를 찾아냅니다. 이중등록자를 찾아내면 해당 자료를 대학에 전달하고, 이를 통보 받은 대학은 바로 해당 학생의 합격을 취소합니다.

## 9. 학생부종합전형이란?

학생부종합전형은 고등학교 3년동안 학교생활을 통해 기록된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각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입니다. 대학마다 제시하는 인재상에 차이는 있지만, 학교생활기록부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활용하여 대학별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대입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성적, 교내활동의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을 다면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학업에 충실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며 학교생활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할 경우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0. 학생부교과전형이란?

학생부교과전형은 교과 성적, 즉 내신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모집 단위의 특성에 맞도록 각 대학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교과 성적을 점수로 계산하여 합격, 불합격을 가리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학생부종합전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경우에 따라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기도 하고,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11. 자기소개서란?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한 중요한 제출 서류에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일부 대학은 추천서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자기소개서란 대학에서 요구하는 공통양식에 따라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말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빠진 내용을 보충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어학성적, 한자능력급수, 교외수상 실적,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외국어 토론대회 등의 수상실적을 기재하는 경우 0점 처리되거나 불합격 처리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주로 4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1~3번 문항은 모든 대학이 함께 사용하는 공통문항이고, 4번은 자율 문항입니다.

## 12. 교사추천서란?

교사추천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전형 자료 중 하나로, 교사가 학생이 지원한 학교 및 학과에 적합한 학생이라는 점을 체크리스트와 글로 나타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추천서는 대학에 따라 활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만약 활용하는 대학이라면 서류 평가와 면접에 활용합니다. 교사추천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지원자의 숨겨진 특성이나 자질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로 하여금 지원자의 역량이 해당 대학 및 학과의 인재상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형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 13. 인성면접이란?

인성면접은 주로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 서류에 나타난 지원자의 인성을 면접이라는 방식을 통해 확인 및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즉 고교 재학기간 활동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난 지원자의 성실성과 나눔, 타인 배려심 등을 면접에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인성’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할 때 활용되는 여러 평가요소 중 하나로 인성면접은 고등학교 생활 중 꾸준히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의 능력을 나누며 협력을 실천해 온 지원자를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14. 고교프로파일이란?

고교프로파일(고교정보시스템)은 입학사정관이 각 고등학교의 정보를 근거로 지원자의 교육 환경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고교 프로파일에는 고교의 기본정보(학교 규모, 교원 현황 등), 교육 현황(교내 수상, 동아리 현황, 봉사활동 상황 등), 특기사항(교과 및 비교과 관련 특색 사업, 진로진학지도 등), 인성교육(인성교육 프로그램 현황) 등이 입력되어 있고 첨부파일(대학진학현황, 고교특기사항 등)의 형태로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은 이런 고교프로파일의 자료를 통해 교육과정을 파악하고, 학생의 학습 환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15. 유사도검색시스템이란?

유사도검색시스템이란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인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에서 표절을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또한 대필 및 허위 서류 작성 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모든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회의 유사도검색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사도검색시스템은 같은 해에 해당 대학에 지원한 지원자는 물론, 다른 대학에 지원한 지원자의 서류, 최근 3년간 누적 자료 및 웹 검색 자료까지 포함하여 유사도를 검증합니다. 대교협은 각 대학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해 일괄적으로 유사도를 검색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므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등을 작성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 16. 특별전형이란?

특별전형은 대학마다 특별한 전형 요소 또는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기준으로 하는 전형과 차등적 보상 기준에 의한 전형을 포함합니다. 차등적 보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은 고른기회전형이 대표적인데, 이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만학도, 지역인재,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졸업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5도 학생 전형 등이 있습니다.

## 17. 특기자전형이란?

특기자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부종합전형과는 달리 공인어학성적 등과 같은 외부 스펙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기자전형은 선발하고자 하는 특기자의 종류에 따라 전형 방법이 다양합니다. 전형 분류상 실기위주전형에 포함되어 있는데, 학생부나 수능보다는 실적을 바탕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외부수상실적이나 특기요소에 의해 선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는 어학특기자, 과학특기자, 체육특기자가 포함됩니다.

## 18. 고른기회전형이란?

고른기회전형이란 사회적, 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교육적 불평등을 받는 학생에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전형입니다. 고른기회전형을 통해 교육의 수혜자를 확대하고, 대학 입학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원 외 전형뿐만 아니라 정원 내 전형으로 모집 인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른기회전형은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출신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 19.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이란?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은 고른기회전형의 한 종류로, 학생과 부모가 모두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이 농어촌 소재지에서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와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초, 중, 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지원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지원 자격이 다르므로 대학별 입시 요강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은 선발하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합격선을 예측하기 어렵고, 이 전형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 더 쉽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 20. 지역인재특별전형이란?

지역인재특별전형이란 지방소재 대학이 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법학 전공 등 인기 모집단위를 운영하는 경우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은 일반학과까지 모집단위가 확대되어 운영 중입니다. 지역의 범위는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6개 권역으로 설정하여 권역에 따라 학생 전체 모집 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합니다.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지역인재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들어갈 기회가 많아진 것입니다. 또한 모집 정원도 차츰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록 2]

2020년 학력평가 및 모의고사 일정

▶ 2021학년도(고등학교 3학년)

월	일정	주관교육청
3	03.12(목)	서울특별시교육청
4	04.08(수)	경기도교육청
6	06.04(목)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7	07.08(수)	인천광역시교육청
9	09.02(수)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10	10.13(화)	서울특별시교육청
11	11.19(목)	대학수학능력시험

▶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고등학교 1,2학년)

월	일정	주관교육청
3	03.12(목)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미 실시)
6	06.04(목)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미 실시)
9	09.02(수)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미 실시)
11	11.25(수)	경기도교육청

## 2021학년도 EBS 입시자료집

발행처 : EBS(학습콘텐츠제작부)

발행일 : 2020.02.

### 기획

김경남(EBS 입시정보담당 ECP)

김진화(EBS 입시설명회 매니저)

### 집필

김한슬(EBS 진로진학 대표강사)

정미나(EBS 국어영역 대표강사)

정종영(EBS 수학영역 대표강사)

최은진(EBS 수학영역 대표강사)

정승익(EBS 영어영역 대표강사)

박세훈(EBS 한국사·사회탐구영역 대표강사)

박봄(EBS 사회탐구영역 대표강사)

이진웅(EBS 사회탐구영역 대표강사)

강승희(EBS 사회탐구영역 대표강사)

차영(EBS 과학탐구영역 대표강사)

박주원(EBS 과학탐구영역 대표강사)

박소현(EBS 과학탐구영역 대표강사)

정영일(EBS 과학탐구영역 대표강사)

이윤나(EBS 입시정보 ECM)

김진화(EBS 입시설명회 매니저)

※ [www.ebsi.co.kr](http://www.ebsi.co.kr)에서 PDF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EBSi([www.ebsi.co.kr](http://www.ebsi.co.kr))의 모든 학습과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EBSi([www.ebsi.co.kr](http://www.ebsi.co.kr))의 모든 학습과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